건축사 531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3 07
1966년 창간

칼 럼 편집인 칼럼
특별기고 서울시청 신청사는 왜 최악의 건축물이 되었나?
기획대담 우리시대의 진정한 슈퍼우먼 여성건축사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에너포르
www.kkp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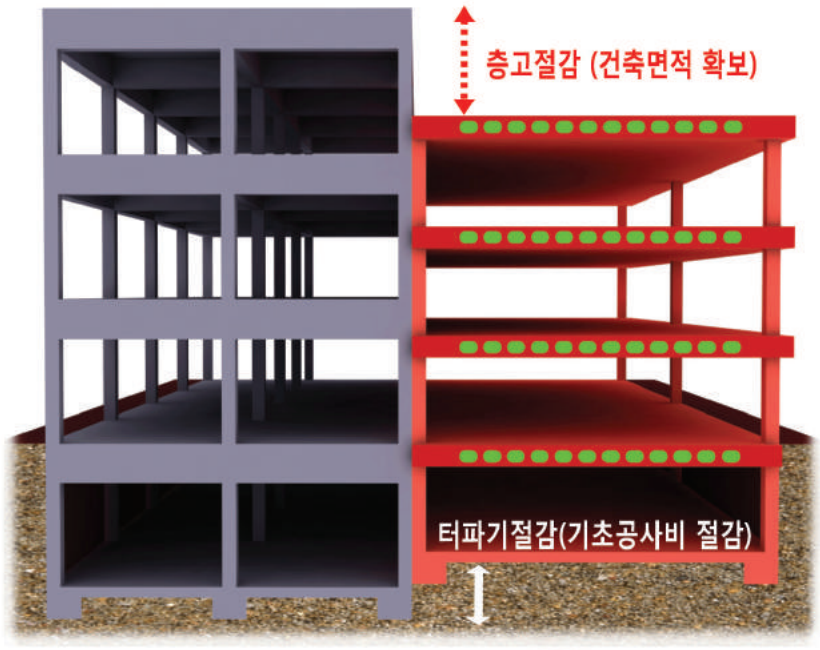
저탄소 녹색성장 공법

건축주의 고민 공사비 절감 !

SLAF® 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10%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 완벽한 시공을 위한 현장시공 기술자문 책임수행

건설 V.E. 공법의 NEW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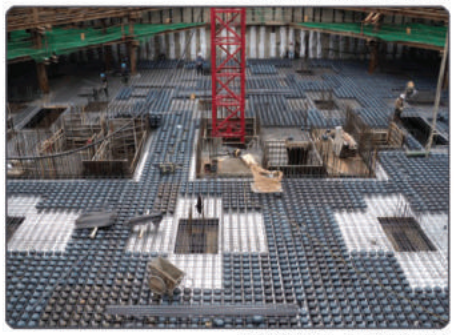
[기존 건물] [SLAF 건물]

Super Light-weight Air-balled Flat plate System

SLAF 공법과 동일한 김포공항청사의 벌집구조

SLAF 공법 적용 후 전경 사진 (무량판 구조 : NO B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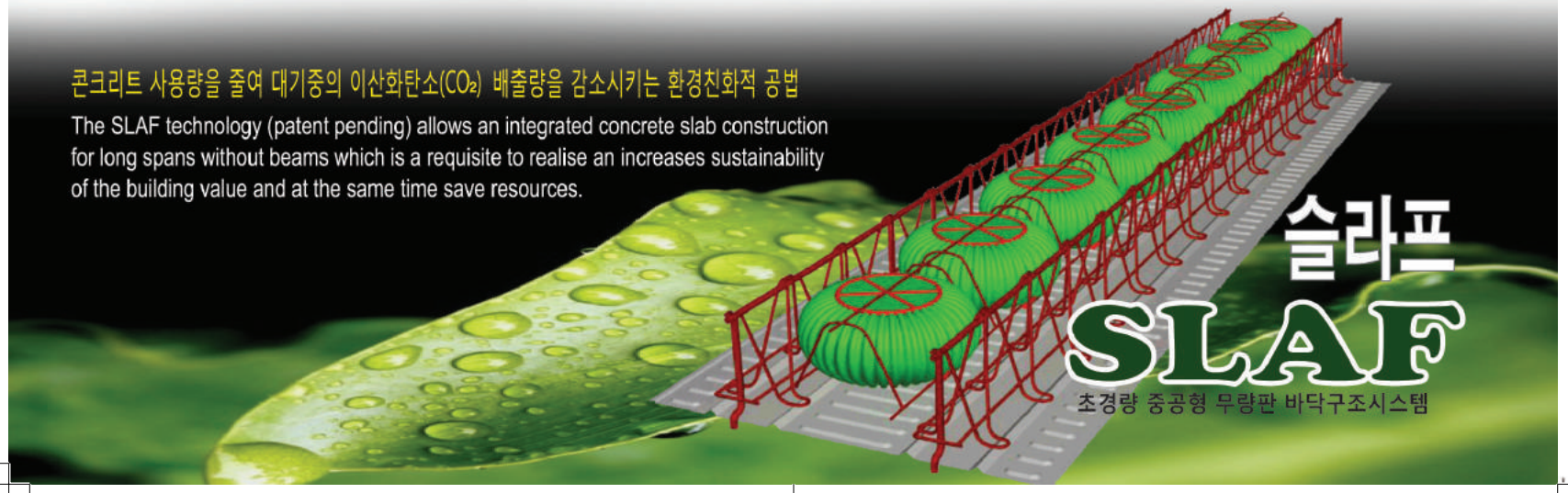
지상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지하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주)신화엔지니어링 SHINHWA ENGINEERING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 삼광빌딩 2층 T. 02.3481.3885 M. 010.3745.3885
http://www.sh911.co.kr 건축구조기술사/공학박사/대표이사 조상규

(주)신화엔지니어링은 40년 전통의 구조설계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구조계산서, 구조도면작성(세움터 인증 포함)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드립니다.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3길 8, 다동　TEL : 02)333-4448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방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건축물 외장재 신개념 PANEL

EURO-ZINC PANEL

다양한 외관창출과 징크패널의 업그레이드 제품
신소재 준 불연 단열재 프로폴보드의 시스템패널

기존 패널의 단조로운 색상과 형상에서 벗어난 샌드위치패널의 최종 집대성 된 패널입니다. 준 불연 단열재 프로폴보드를 사용하여 현존하는 샌드위치 패널의 장점만을 극대화 한 21세기형 최첨단 친환경 패널입니다. 지붕과 벽을 혼용할 수 있는 파형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출할수 있습니다.

[유로징크 특징/장점]

1.저렴한 비용으로 고품격 디자인 창출
2.비용 절감.공사기간 단축
3.줄눈의 색상 및 간격 조절이 자유로워 깔끔한 와관 창출
4.종.횡 시공에 의한 깔끔한 마감 처리시공
5.다양한 맞춤식 코너 마감으로 건축물의 완성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한 제품

특허출원번호-2011-0053998　　디자인등록 제30-0658085호

FREE-METAL PANEL

서진공영의 **프리메탈패널**은 **준불연재**이며 고품격 디자인을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코너마감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시공상의 우수성과 강도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으로 서진공영만의 프리메탈패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REE-METAL PANEL POINT]

1. 난연성이 우수하여 화재사고에 안전하며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2.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3. 단열성이 뛰어나 에너지소비를 절감하며 경제적입니다.
4. 방수,방습성이 우수하여 외부환경변화에 다른 단열성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5.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하여 취급이 간편합니다.
6. 발포폴리스티렌(EPS)이 적용될수 있는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발포폴리스티렌(EPS)의 간편한 시공법과 동일하게 시공됩니다.

특허증 특허 제10-1219639 샌드위치 패널용 외판 제조방법

SJ
서진공영주식회사
Seojin Gongyoung Co.,Ltd.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03-1번지　공장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32-1번지
TEL. 032-563-0020 FAX. 032-563-8813
www.i-seojin.co.kr / www.i-seojin.kr

brother
at your side

편견을 버리면 새로워집니다.

변화의 새로움을 브라더가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가로 출력시스템으로
더욱 빠르고 향상된 품질의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최대 20/18ipm (흑백/컬러)의 초고속 인쇄
- 초대용량 잉크카트리지로 유지비 절감
- 클라우드서비스 지원
- 유무선 네트워크
- 자동양면인쇄
- 3.7" 슬라이드 터치 LCD 디스플레이

MFC-J2510 InkBenefit

인쇄 속도	고속모드: 최대 흑백 35ppm, 컬러 27ppm 레이저대비: 최대 흑백 20ipm, 컬러 18ipm
복사 속도	흑백 12ipm, 컬러 9ipm
팩스 모뎀 속도	33.6kbps
스캔 해상도	최대 2,400 x 2,400dpi(광학), 19,200x19,200dpi(확장)

MFC-J2510 InkBenefit

디자인 어워드 2013 금상 수상기념!

1+5FREE

브라더 가로출력 복합기 1대 사면
산돌팬시폰트 5개가 무료!

9,900원 잉크 LC565 CMY 1,200매

13,200원 잉크 LC567 K 1,200매

MFC-J2510 InkBenefit 정품잉크 EVENT

MFC-J2510 InkBenefit + 정품잉크 + 산돌 유료 서체 이용권 + 무상A/S 1년 추가 연장

산돌 서체 EVENT

산돌서체 6개월 무료 → 산돌서체 3개월 무료 (첫번째 구매) → 산돌서체 3개월 추가(무료) (두번째 구매) = 총 1년 산돌서체 이용권 (6개월 + 3개월 + 3개월)

무상 A/S 추가 EVENT

A/S추가 1년 (4개월 + 4개월 + 4개월) = 무상 A/S 4개월 추가 (다섯번째 구매) ← 무상 A/S 4개월 추가 (네번째 구매) ← 무상 A/S 4개월 추가 (세번째 구매)

자세한 사항은 브라더 홈페이지 **www.brother-korea.com** 접속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1577-3340

METRO T&C
METRO TOTAL CONSTRUCTION

강봉 포스트텐션보강

〈건축물 내진구조보강 설계 · 시공 전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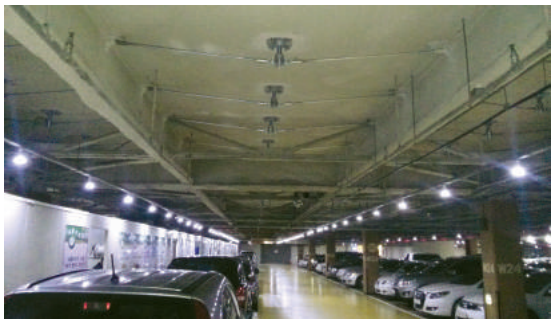
MPT 강봉보강공법 개요

MPT(Metro Post Tension) 강봉보강공법은 보의 부족한 휨모멘트 및 전단력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보의 단부 상단 고정판과 중앙 하부 고정판을 정착하고 고강도 특수강제의 강봉을 유압시스템으로 인장하여 구조물의 보 또는 슬라브를 보강하는 공법이다.

기존의 수동적 보강방법인 강판과 탄소섬유로 부착하여 보강 할 경우, 보강 부재가 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때 기존부재는 보강 후 적재로 인한 추가 변형으로 인해 구조체의 변형이 증가하게 됨으로 균열의 확대 또는 파손의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강판보강이나 탄소섬유보강공법의 경우 상부의 하중을 제거하거나 구조체의 변형을 강제로 회복시킨 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MPT(Metro Post Tension) 강봉보강공법은 기존부재의 변형을 회복시키면서 추가 하중을 구조체와 함께 지지하게 됨으로 구조물의 내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능동적 보강공법이다.



보강공법의 특징

1. 구조적 안정성
   고강도의 특수강봉을 유압시스템으로 정확한 인장력 계측이 가능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높다.

2. 내화성능
   일반보강공법에 비교하여 에폭시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불연재인 강봉을 사용함으로 내화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3. 친환경적
   미장제거에 따른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다.

4. 경제적
   건축물의 천정마감재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비용이 절감된다.

5. 공기단축
   기존 보강공법에 비해 공정을 단순화시켜 공사기간이 약50% 이상 단축된다.

6. 시공성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면 완료됨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주변의 각종 설비 시설등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하다.

7. 품질관리, 내구성
   고강도 특수강봉을 공장에서 가공함으로 품질 관리 및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내구성이 높다.

〈그림 1.4.5c〉 강봉 배치형태(슬라브 V형)

〈그림 1.4.5b〉 강봉 배치형태(보 V형)

메트로 T&C
건축물 내진구조보강 벤처기업

건축물내진보강 벤처기업 www.metrotnc.co.kr E-mail : metrotnc@nav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5길4, 4F(오금동) TEL : 02)402-9395 FAX : 02)402-9396

www.sypanel.com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눈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 PIR
- GLASSWOOL
- ROCK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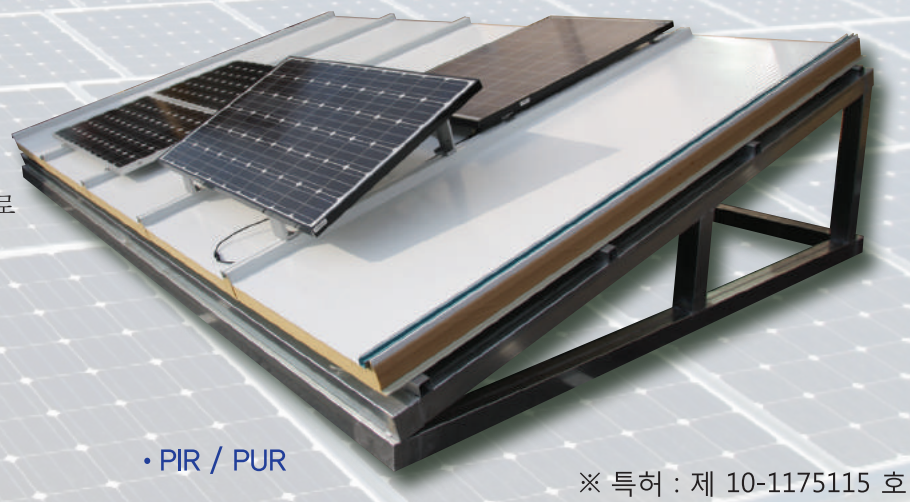
※ 특허 : 제 10-2011-0139926 호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 패널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 특허 : 제 10-1175115 호

에스와이패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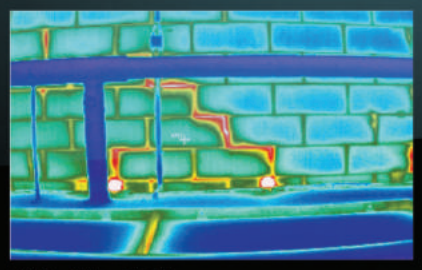
설계영업부(기술지원) TEL. 031) 226-4226 / FAX. 031) 226-2978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21-4 리치타워 7층 Tel. 031) 222-4028~9 / Fax. 031) 221-5458
인주공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037 Tel. 041) 534-8484~5 / Fax. 041) 534-8487
논산공장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226-3 Tel. 041) 742-8486~7 / Fax. 041) 742-8483

FLIR T640bx / FLIR T620b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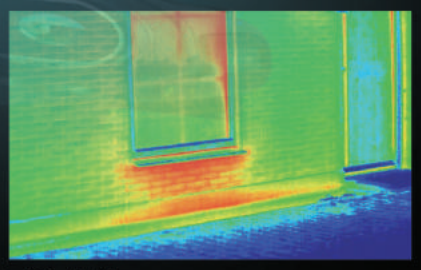
건물/에너지 진단을 위한 전문가용 열화상 카메라

최고의 이미지 해상도
640 x 480 픽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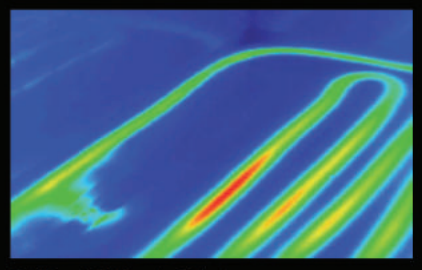


건물 구조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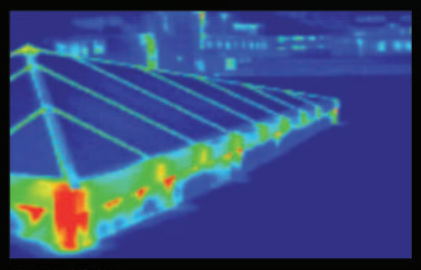
에너지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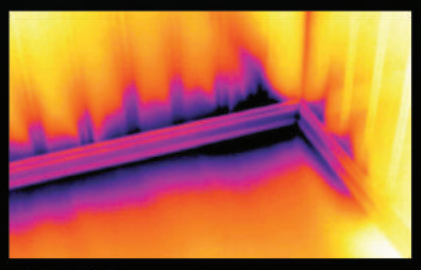
절연 손실



난방 배관 누수 탐지



외기 유입



습기 침투

www.flir.com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6층 (삼성동, 구구빌딩) 전화: (02) 565-2714~7 팩스: (02) 565-2718 이메일: flir@flirkorea.com

Images/contents are for illustration purpose only.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 천정 결로방지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의 에너지효율 및 내열성능 시험결과

에너지효율은 높이고 냉·난방비는 낮추고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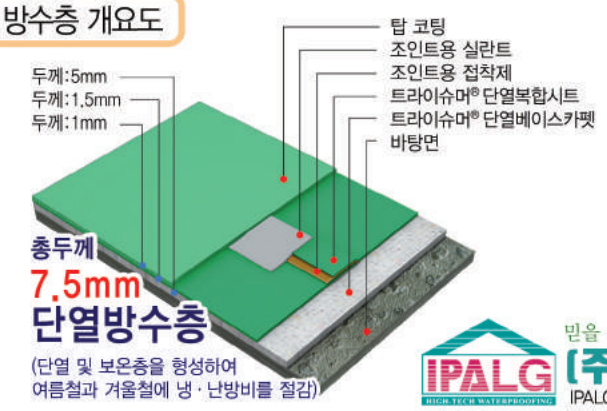
여름철 실내온도 3~5℃↓ → 전기료 30~40% ↓ → 냉방비 절감

겨울철 실내온도 3~5℃↑ → 난방비 15~20% ↓ → 난방비 절감

내열성능 시험결과

시료명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열에 의해 변형이 된 길이 (200mm 기준)	0.1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5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흘러내림길이(mm))
결과 이미지	변형이 거의 없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시트에 주름이 발생하거나 파단됩니다.
시험방법	가로와 세로길이가 각각 200mm가 되는 시편을 80도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 열변화에 따른 길이변화와 겉모양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시험기준	KS F4917: 2007	
시험기관	한국 건자재시험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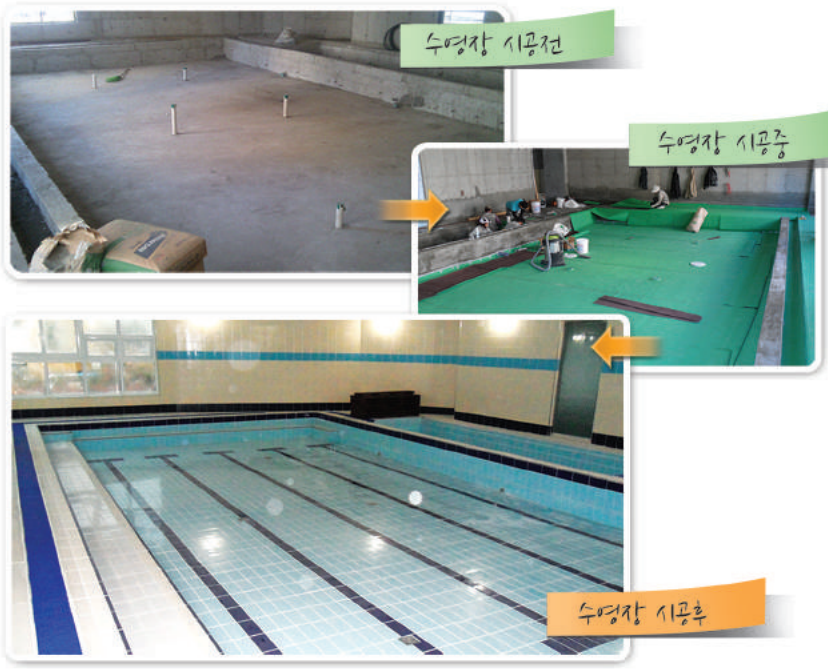
방수층 개요도



총두께 **7.5mm** 단열방수층

(단열 및 보온층을 형성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비를 절감)

시공사례모음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공법 • 신뢰받는 회사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TOTAL & HIGH-TECH WATERPROOFING CO., LTD.

스마트폰으로 QRcode를 스캔해보세요

www.ipalg.co.kr

이파엘지.kr

본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327번길 52 Tel : 032) 471-6020 FAX : 032) 467-1904

CMR 기술연구원(주)
Construction Maintenance Repair/reinforcement
www.cm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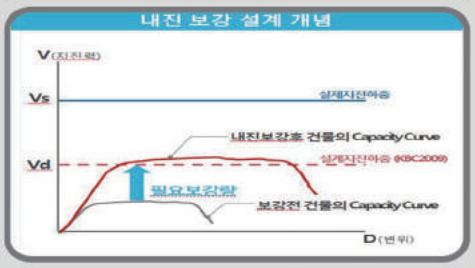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전문가 그룹

비선형정밀해석

을 통한 최적의 건축공간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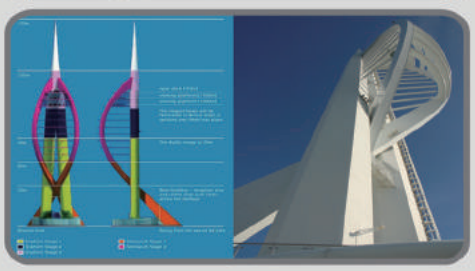
내진성능평가국내최다실적! 댐퍼시스템설계기술확보!
내진보강설계국내최다실적!
비선형해석통한최적구조시스템제안!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설계]



▶ 중 · 저층학교건물 ➡ 교과부기준
▶ 청사및관공서 ➡ 건교부기준

[비선형정밀해석/최적구조설계]



▶ PUSHOVER해석 ➡ FEMA356/MIDAS
▶ TIME HISTORY ANALSYS ➡ PERFORM3D,CANNY OPENSEES...

⊙ 사업분야

1.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설계
   · 국내외최신기준고려 · 비선형성고려한설계
2. 구조설계
   · 신축구조설계 · 구조도면작성
3. 내진/제진/면진장치연구개발
   · 내진기술연구개발 · 내진설계기술개발
4. 구조관련컨설팅
   · VE설계 · 최적시스템제안
5. 구조물안전진단
   · 정기/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6. 비선형정밀해석
   · 비선형정적해석
   · 비선형시간이력해석
7. 시공현장지원
   · 건설현장구조지원 · 구조감리

CMR기술연구원(주)
www.cmr.or.kr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33-16 영풍오피스텔 2층
Tel 02-402-3378 Fax 02-402-4378

Technology for tomorrow

동양실리콘주식회사와 만나면,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와 함께하는 생활공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는 고객의 변함없는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건축용 산업용 실리콘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수준의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및 품질관리로
세계 1등 품질의 건축용 산업용 실리콘을 생산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와 함께 하십시요.

KG DYS 東洋실리콘株式會社

ISO 9001 인증업체

http//WWW.dysilicone.com 대표전화 : 02)350-0000 FAX : 02)303-4777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3 JULY 7

COVER STORY

표지사진 :

김진구 건축사
㈜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발 행 인 김영수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형수
취 재 · 편 집 최락청, 손석원, 백상월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50
인 터 넷 www.kira.or.kr
디 자 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 쇄 (주)미래엔 02_3475_3836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Kim, Hyung-soo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 Baik, Sang-worl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17 칼럼 COLUMN
편집인 칼럼
Editor's Column

018 특별기고 SPECIAL FEATURE
서울시청 신청사는 왜 최악의 건축물이 되었나?
How Did Seoul City Hall Become The Worst Building?
_조성관

024 기획대담 시리즈 Ⅱ DISCUSSION
우리시대의 진정한 슈퍼우먼_여성건축사
Real Superwoman of Our Era_Female Architects

032 空間共感 CONGENIAL SPACE
_한정훈

033 만평 CARTOON
_곽희수

034 회원작품 WORKS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HONGIK IMAGINATION DESIGN CITY
_김진구_KIRA | ㈜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_신창훈_KIRA |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비 타워
B TOWER
_오섬훈_KIRA | ㈜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Contents 531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3년 7월호

서울 글로벌센터
SEOUL GLOBAL CENTER
_김명홍_KIRA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동국제강 사옥
FERRUM TOWER
(DONGKUK STEEL MILL HEADQUARTER OFFICE)
_김태집_KIRA |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_김태성 |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068 연애편지를 읽다 ① READING LOVE LETTER
오겡기데스까?
おけんきですか?

070 건축과 법률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집합건물관리단의 성립 및 권한행사
Establishment and Enforcing Authority of Aggregate Building Management Group
_성승환

071 연재 I SERIAL I / 건축과 함께하는 시의 세계 ③
시로 지은 집
House created by a poem
_장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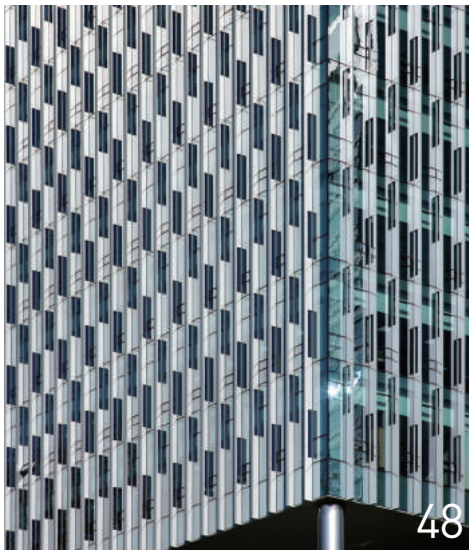
077 기고 I FEATURE I
600여 년의 시간을 잇다
Sungnyemun Gate Reopens
_조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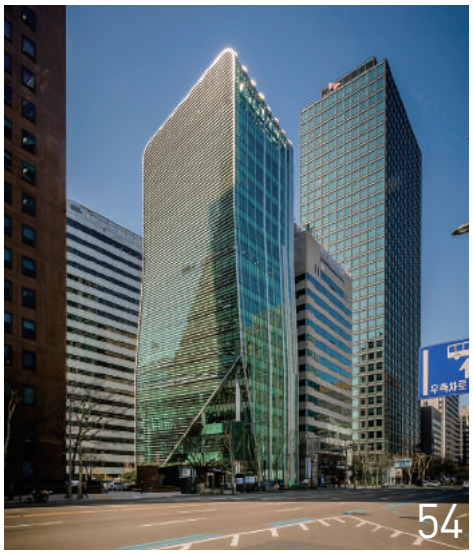
082 연재 Ⅱ SERIAL Ⅱ
한국건축 태동의 주역 – 예산지역 건축사 김세환(I)
Architect, Kim, Se-hwan, From Yesan, Who Pioneered Korean Architecture.
_김득수

087 기고 Ⅱ FEATURE Ⅱ
한국 근 · 현대 건축기술사연표(1/3)
Modern Korean Architectural Technology Chronological Table
_한동수, 정송이

092 공고 NOTICE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 공포
Enact and Proclamation of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

098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타임머신_1969 되돌아 본 건축士 · 건축史
해외건축동향 _김은미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서울시청 신청사는 왜 최악의 건축물이 되었나?

How Did Seoul City Hall Become The Worst Building?

조성관 | Jo, Seong-kwan
주간조선 편집위원, 문화기행작가

얼마 전 100인의 건축전문가가 선정한 최악의 건축물로 서울특별시청사가 선정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언론인이 날카롭게 비평한 서울특별시청사의 문제점에 대해 심층취재한 기고를 소개해보기로 한다.〈편집부〉

"근데 저 잠자리 눈깔 같은 건 뭐할려고 만들었다냐?"

지난 5월 중순 점심을 먹고 덕수궁 돌담길을 산책하던 중 등 뒤에서 이 말이 들렸다. '잠자리 눈깔'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보았다. 40대 남자 두 명이 걸어가면서 서울시청 신청사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광화문에 사무실이 있는 기자는 적어도 하루에 한번은 서울시청 신청사와 마주친다. 바람을 쐬러 옥상에 올라가면 '잠자리 눈깔'이 박혀 있는 측면부를 보게 된다. 너무 익숙했기 때문일까. 어딘가 이상하다고만 느꼈을 뿐 '잠자리 눈깔'의 기능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모르는 사람이 남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내뱉는 말이 진짜 여론이다. 행인이 던진 말은 서울시 신청사를 서울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서울시 신청사에 대한 논란은 2012년 준공 전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결정타는 동아일보와 'SPAC'가 건축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다. 이 조사에서 **서울시 신청사는 '최악의 한국 현대건축물 1위'로 꼽혔다.** 서울시 신청사에 대한 혹평 릴레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유명 건축사 승효상은 서울시 건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승효상 위원장은 지난 4월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방안'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악의 한국 현대건축물 1위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 서울시 신청사다."

서울시 신청사의 형태 디자인은 유걸 씨, 시공은 삼성물산, 실시설계는 삼우설계가 각각 맡았다. 불행하게도 유걸, 삼우설계, 삼성물산은 '최악의 한국현대건축물 1위' 건설에 참여했다는 불명예를 떠 앉게 됐다.

2006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신청사 계획안이 나왔다. 이후 공모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당선된 21층짜리 '항아리'안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덕수궁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후 다섯 차례 설계안이 뒤집혔고 2008년 5인을 상대로 초청공모전을 열었고, 최종적으로 유걸 씨의 설계안이 선택되었다.

기자는 대학 시절 문학을 공부했지만 오래전부터 건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외국 유명도시를 여행할 때마다 따로 시간을 만들어 반드시 그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보러 다닌다. 잘 지어진 건축물 하나가 어떻게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시대를 막론하고 훌륭한 건축물은 장소성, 시대성, 합목적성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서울시 신청사는 왜 '최악의 현대건축물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을까. 서울시 신청사를 이 3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자. 장소성은 그 건물

서울시청 신청사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은 서울시청 신청사 형태가
조선왕조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접합된 '이 곳'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낀다.

이 어느 곳에 세워지느냐를 말한다. 서울로 말하면, 강북 종로에 세워지는 건축물과 강남 테헤란로에 세워지는 건축물은 기본 철학이 같을 수가 없다. 종각에 세워진 '밀레니엄 타워'가 비판을 받는 이유의 하나가 종로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서울시 신청사의 형태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 게 바로 장소성이었다. 서울시청 자리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농축되어 있는 곳이다. 덕수궁과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서울시청 신청사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은 서울시청 신청사 형태가 조선왕조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접합된 '이 곳'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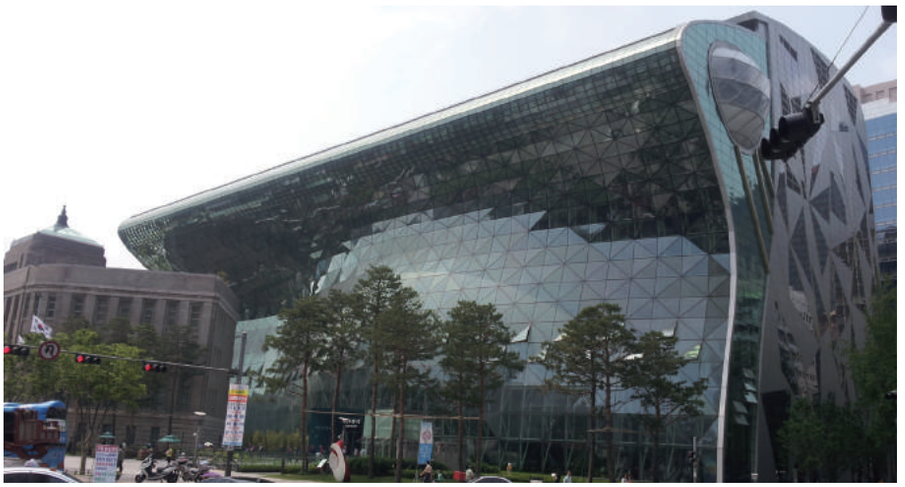
서울시청 신청사의 형태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은 네 곳이 있다. 첫 번째는 서울광장, 그러니까 프라자호텔 정면에서 보는 것이다. 신청사는 마치 파도의 너울처럼 서울광장을 덮치려는 기세다. 유걸 씨는 한옥의 처마를 형상화했다고 설명한다. 서울광장에서 신청사를 보면 형태가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두 번째는 서울시 의회 쪽이나 롯데호텔 쪽에서 신청사의 측면부와 후면부를 관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끔찍하다. 유걸 씨조차 이 측면부와 후면부는 자신의 최초의 디자인에서 변질되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남대문에서 신청사를 바라보는 방법이다. 서울의 상징이자 관문인 남대문에서는 신청사가 서울광장과 서울도서관과 함께 평면으로 펼쳐진다. 신청사는 남대문과 경복궁을 잇는 국가상징도로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여기서 보면 비로소 신청사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확 다가온다.

마지막은 서울시청서소문별관이다. 신청사가 공사 중일 때 서울시장실은 서소문별관으로 옮겨갔다. 서소문별관 13층은 전망대로 꾸며놓았다. 이곳에 서면 비로소 아름다운 덕수궁과 함께 그 주변의 건축물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영국대사관, 성공회빌딩, 조선일보미술관 등은 저마다 건축양식은 다르지만 덕수궁과 조화를 이루며 궁궐의 아름다운 선(線)을 확장시킨다. 그러나 시선을 태평로길 너머 신청사로 돌리면 신청사가 전혀 주변과 어울리지 못한 채 괴기스럽게 박혀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유걸 씨는 왜 이런 형태를 설계했을까. 여기서 유걸 씨의 입장을 들어보자. 유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디자인이든 좋아하는 사람이 반, 싫어하는 사람이 반"이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유 씨는 또 구청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구청사는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대건축의 가치나 아름다움이 거의 없는 건물이다. 보전해야 한다니 전면은 그대로 두고 내부를 변형했다. 그리고 나는 '조화'라는 말보다 '차별화'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둘이 같이 있어야 한다면,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좋다.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한옥으로 꽉 채워졌다고 생각해보라. 한옥이 있으면 양옥도 있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르게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주는가가 중요하다."(2012년 2월21일자)

유걸 씨는 차별화에 방점을 두었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장소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시대성의 관점에서 서울시 신청사를 들여다보자. **시대성은 건축사가 그 시대에 주로 쓰이는 건축공법과 건축자재를 선택해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17~19세기 유럽의 건축물은 석재나 벽돌을 사용했지만 21세기의 건축자재는 철골과 유리다. 유걸 씨는 유리를 선택했다. 유걸 씨는 위에 인용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유리 예찬을 펼쳤다.

"나는 밝고 시원하고 편한 집이 좋다. 유리와 철은 현대의 산물이다. 벽돌도 좋지만 과거의 재료다.… 물론 유리는 춥고 뜨거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걸 해결할 수단도 건축사에게 있어야 한다. 환경건축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게 하려고 완전유리건물을 짓는다. 한국 건축은 좀 더 가벼워져야 한다."

유리 건축물이 석재 건축물과 대비와 조화를 이뤄낸 예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다. 1989년 중국계 미국 건축사 아이오밍 페이는 루브르박물관 입구에 '유리 피라미드'를 세웠다. 건축 당시 '유리 피라미드'가 석재로 된 박물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여론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유리 피라미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아이오밍 페이가 피라미드라는 형태에 구현한 철학에 대중이 비로소 공감한 까닭이다. 아무리 낯선 것도 대부분은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진다. 그렇다면 신청사도 시간이 흐르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합목적성이다. **건축물이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병원은 병원에 맞게, 학교는 학교에 맞게, 박물관은 박물관에 맞게 설계되고 지어져야 하는 게 합목적성이다.

서울시청 신청사는 옛청사가 너무 비좁아 시청 공무원들을 전부 소화하지 못했다. 그 결과 본청 공무원 4,600명이 서소문별관, 남산별관, 을지로별관 등에 흩어져 근무했다. 간부회의 한번 하려면 오고가는데 30~1시간 걸리는 게 예사였다. 신청사는 여기저기 흩어져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진 사무용 건물이다.

4년5개월 동안 약 3,000억 원이 투입된 신청사의 내부 공간은 어떤가. 서울광장에서 신청사 현관문을 거쳐 안으로 들어가 보자. 수직정원이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울광장의 녹색이 자연스럽게 청사 내부로까지 확장된다. 수직정원의 끝을 올려다보면 로비

시울시 본청 공무원 중 신청사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절반도 안 되는 48%(2,200명)에 불과하다.
건물의 연면적 9만788㎡ 중 업무용 공간은 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70%공간은 처마 형태 외벽, 아트리움, 하늘광장 등
'보여주는 디자인'에 다 내어준 결과다.

공간이 10층까지 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시원하고 밝다. 마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온 것 같다. 유걸 씨는 역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설계의 콘셉트를 분명히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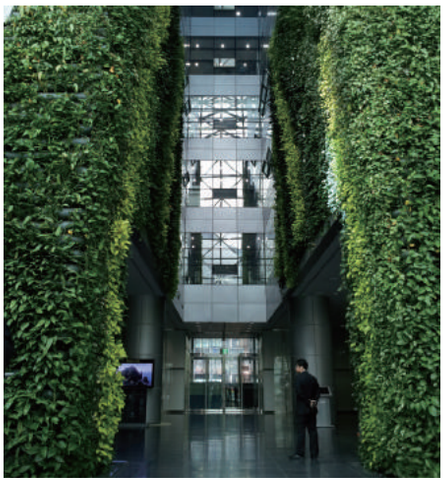
"시청이 광장처럼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 사람들이 새청사에 들어와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이 아트리움(안뜰)과 수직정원이다. 광장의 잔디가 벽을 타고 오르는 듯 한 느낌으로, 1층부터 7층까지 2,000㎡ 벽면에 10만 본의 식물을 심는다. 정원의 꼭대기에 둥그런 공간이 세 개 떠있다. 콘서트홀 · 회의실 등으로 쓰일 다목적홀, 전망대인 하늘정원, 이 둘을 잇는 시민라운지다. 건물의 꼭대기까지 시민들 발길이 미칠 수 있게 하자는 게 설계의 기본 생각이었다."

유걸 씨는 애초에 신청사를 업무 효율이 높은 사무공간이 아닌 미술관 같은 공간으로 설계했고, 실제로 그대로 구현됐다. 신청사 내부의 화려함과 새로움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런 궁금증이 피어오른다. 그럼 공무원들은 어디서 일을 할까? **시울시 본청 공무원 중 신청사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절반도 안 되는 48%(2,200명)에 불과하다. 건물의 연면적 9만788㎡ 중 업무용 공간은 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70%공간은 처마 형태 외벽, 아트리움, 하늘광장 등 '보여주는 디자인'에 다 내어준 결과다.** 건축 전문가들은 동경도청사와 뉴욕시청사를 대표적인 예로 든다. 이들 청사는 로비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시청공무원들이 사무를 보기 편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은 서울시청이 왜 최악의 건물인지를 알기 어렵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합목적성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사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매일 매일 피부로 신청사를 느낀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간에 공무원들은 신청사 안에서 서울광장이나 하늘을 내다볼 수 없다. 외벽이 있고 실제 사무공간은 15m 정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메인 복도를 걷다 보면 이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팀장급 모 직원의 토로를 들어보자.

"공간배치가 정말 비효율적이다. 쓸데없는 공간이 너무 많다. 특히 2~6층 서쪽 부분은 대부분 로비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들어섰으면 작은 과 하나가 들어갈 정도다. 이 공간이 그냥 텅텅 남아도는 셈이다. 이것 말고도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 그냥 신청사 안에 작은 건물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 셈이다."

이 직원의 말은 신청사가 왜 최악의 건물이 되었는지를 핵심을 지적했다. 쉽게 설명하면 온실 같은 유리구조물 안에 별도의 건물을 집어넣은 것 같은 모양이 신청사다. 그 결과 전면부와 양쪽 측면부는 전망이 실종되고 말았다. 서울시장실은 6층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시장실에서도 전망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후면부는 서울프레



스센터와 마주 보고 있다. 후면부에서만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9급 직원의 말을 들어보자.
"창문을 여닫을 수 없어 불편하다. 서소문별관에 있을 때만해도 날씨에 따라 유리 창문을 열 수 있었는데 신청사에서는 이게 완전히 불가능하다. 물론 공기조절 시스템으로 공기 순환이 되고 최신 빌딩 중 이런 곳이 많다고는 하지만 답답하고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외벽이 유리로 되있다보니 유리 바로 옆에 있는 직원들은 덥다는 말을 많이 한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은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다. 그런데 이 서소문 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내색은 하지 않지만 신청사로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한다. 비록 건물은 낡았지만 4면으로 전망이 트였고 어느 위치에서나 창문을 여닫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가장 낡은 건물인 서소문별관에 한번 들어와 보면 신청사가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인지를 실감한다.
기자는 서울시청 총무과를 방문하기 위해 출입증을 바꿔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에서 내려야 하는데 그만 실수로 짝수 층에만 서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8층에 내린 뒤 계단을 통해 내려갈 요량으로 계단실을 찾았다. 그런데 계단실이 보이지 않아 한참을 헤맸다. 엘리베이터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안내판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 가보는 건물에서 비상계단실을 찾지 못해 헤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경우 계단실을 찾아 내려갔지만 이번에는 계단실에서 복도로 통하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 결국 하는 수 없이 1층까지 내려와 홀수 층에 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총무과에 갈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7급 여직원의 말은 현실감이 있다.
"계단 연결이 불편하다. 계단을 이용해 층간 이동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2층에서 6층까지는 서쪽으로 계단 연결이 되어 있지만 동쪽 사무실에서 서쪽까지 가기가 그렇다. 그나마 6층에서 끊겨 버려 6층에서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건물 가운데 부분으로 이동해 비상계단을 이용하거나 하늘정원으로 가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지만 하늘정원 계단은 모든 층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다."

신청사가 아닌 별관에 근무하는 시청공무원 약 2,400명. 이들 직원들에게 신청사는 민원인 못지않게 낯설다. 신청사 내부 구조의 황당함은 화장실 위치에서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어느 빌딩이든 화장실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메인복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야만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청사에서는 메인복도에서 화장실 표시는 찾으려야 찾을 수 없다. 화장실은 사무실로 들어가야만 찾아갈 수 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시추에이션이 있나. 위에 인용한 7급 여직원의 말이다.

"오세훈 시장은 입만 열면 서울시의 랜드마크(landmark)를 주장했다.
눈에 튀는 디자인을 요구했다.
어떤 철학에 바탕을 두었다기 보다는 눈에 띄는 디자인을 요구했다.
서울의 랜드마크에 대한 집착이
결국 신청사 형태를 선택하게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층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화장실 대부분이 사무실 한 가운데 있다. 입구가 사무실 한 가운데 있어 다른 과나 팀 자리를 거쳐 화장실을 가야 한다. 사무실이 막혀 있지 않고 오픈형 사무실로 되어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신청사에서 일반 시민이 출입증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은 하늘정원과 시민청이다. 하늘정원은 시민이 자유롭게 서울의 전망을 즐기며 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다. 하늘정원을 만든 곳은 바로 '처마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하늘정원 전망대는 한번은 호기심에 올라와볼 수 있다. 말은 전망대라고 했지만 전망 제로다. 앞서 말한 대로 유리 온실 속에 건물을 집어넣은 형태이기 때문에 다중(多重) 유리창으로 시야가 희뿌옇다. 하늘정원에 와보면 신청사에 낭비된 공간이 많은지를 실감하게 된다.

유걸 씨는 2005년 배재대 국제교류관으로 '건축가협회상 베스트 7'을 수상했다. 기자는 2005년 가을 배재대 국제교류관, 상상사진관, 무학교회 등 7개 건축물 이야기를 기사화한 적이 있다. 또한 유걸 씨의 대표작 중 하나로 불리는 서울 신문로의 아산정책연구원을 여러 차례 가보았다. 두 건축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유 씨의 디자인 특징은 '공간을 비워두는 설계'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상근하지 않는 배제대 국제교류관이나 아산정책연구원에는 이런 콘셉트가 맞아떨어졌다.
서울시 신청사는 기본적으로 사무용 공간이다. 유 씨의 디자인 스타일은 사무용 건축물에는 잘 맞지 않는다. **결국 2008년 당시 오세훈 시장이 유 씨의 디자인을 선택한 것이 오늘의 결과를 불러온 셈이다.** 그렇다면 '최악의 현대건축물'이라는 오명은 유걸 씨 책임이 아닐까. 익명을 요구한 건축사는 "유걸 씨 역시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말한다. "디자인이 좋고 나쁘고는 심사위원들이 잘못 선정한 탓이지 자기 스타일로 디자인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유걸씨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유걸 씨의 초기 아이디어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렇다면 왜 오세훈 시장은 유 씨의 디자인을 선택했을까. 유 씨의 디자인보다 훨씬 뛰어난 디자인이 있었지만 오시장은 유 씨의 설계안을 집어 들었다. 왜 그랬을까. 서울시청 고위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입만 열면 서울시의 랜드마크(landmark)를 주장했다. 눈에 튀는 디자인을 요구했다. 어떤 철학에 바탕을 두었다기 보다는 눈에 띄는 디자인을 요구했다. 서울의 랜드마크에 대한 집착이 결국 신청사 형태를 선택하게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 말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시장 시절 오세훈은 서울의 랜드마크를 세우기 위해 세빛둥둥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노들섬오페라하우스 등을 추진했다. 세빛둥둥섬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임기 내 끝냈지만 노들섬오페라하우스는 미수에 그쳤다. 오세훈은 유걸과 합작해 '최악'을 건축했던 것이다.

건축사지 기획대담 시리즈 ②

우리시대의 진정한 슈퍼우먼_여성건축사

Real Superwoman of Our Era_Female Architects

이 시대 여성건축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와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을까? 여성이 '직업'이라는 틀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수 만년의 인간의 역사 중, 남자와 대등한 지위로 당당히 맞선기간이 길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최근 건축사지에 작품을 소개하고,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는 등 치열한 작품활동을 하는 여성건축사들과의 대담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축사로서의 삶과 시대정신, 그리고 솔루션들을 알아보고,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한다.

대담자(가나다 순)

- **김형수 건축사**(좌장)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수경 건축사**(진행)
  1965년생 / 엘엔케이 건축사사무소, 편집위원
- **강계숙 건축사**
  1962년생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 **곽은선 건축사**
  1975년생 / 이에스 건축사사무소
- **김규린 건축사**
  1966년생 / 건축사사무소 좋은집
- **서윤주 건축사**
  1966년생 / (주)디안 건축사사무소

김형수 편집국장 건축설계 업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어서 남성의 경우에도 매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육아와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남자건축사와 대등하게 건축사사무소를 꾸려나가시는 여성 건축사분들은 진정한 우리시대의 슈퍼우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월호에서는 여성건축사의 삶과 애환, 그리고 희망을 들어보고 싶어서 여성 건축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선 건축학과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로 대담을 열어가겠습니다.

강계숙 건축사 여고시절(진주여고 인문반) 경북대 사범대에 진학해 교편을 잡고 시를 쓰며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답니다.(웃음) "여자는 사기그릇과 같아서…집에서 다녀야 하고 몸이 약해서 외지에 못나간다"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때 쓰는 식으로 경상대 건축과에 접수한 것이 첫 인연이었습니다.

곽은선 건축사 고등학교시절 수학을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그림이 아닌 사람들이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창작하고, 스케치 할 수 있다는 매력과 함께 전문 기술이 뒷받침 돼야 하는 점에서 건축은 너무 매력적인 학과라 생각했고, 진학 후 저에게 건축공부는 과제나 짐이 아닌 즐거운 삶 자체였습니다.

김규린 건축사 영화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수 없이 많은 꿈을 꾸는데 저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와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전통 한지로 한복 저고리를 만들어 입고는 한복 디자이너가 되겠다한 적도 있었습니다. 건축을 접하기 전 까지요. 여고시절, 그 꿈 많던 내게 수업 시간에 그려보았던 살고 싶은 집은 지금도 또렷이 제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당과 다락이 있는. 그 때는 형제가 여럿인 탓에 꿈조차 꾸기 어려운 나만의 방도 그려 넣으며 꿈을 꿨지요. 그 후로는 한 번도 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 꿈이 지금 바로 여기 제 모습입니다. 마치 영화 속 명장면처럼 또렷한 그 기억이 제 건축의 동기입니다.

서윤주 건축사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진과 여행이 취미였던 아버지 덕에 어린 시절부터 사진에 대한 관심과 여행 그리고 영화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러웠고, 그림그리기나 무언가를 만들거나 글짓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때 학교 교지 사진기자 활동 하면서 사진을 배우며 처음에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수동식 카메라가 무겁더라고요. 그러다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보이는 건축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건축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오브제라는 것에 막연한 동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수경 건축사(편집위원) 오늘 모이신 모든 여성건축사분들은 적어도 떠밀려서 건축과에 입학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만들기를 좋아하고, 사진을 좋아하고… 이 모두 건축과 인연을 맺을 수 밖에 없는 어떤 운명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의 경우도, 한국화를 그리신 아버지 영향으로 그림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 집안에 그림쟁이를 둘 두고 싶지 않다는 엄마의 바람으로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공무원이나 약사가 되기를 바라셨지만, 제 내부의 반항은 건축과로 타협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자유롭게 창작을 하고… 얼마나 멋진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꿈에 부풀어 입학을 했지요.

그러나 꿈은 꿈이고, 건축학과 생활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작업실 선배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고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할 즈음에 "아 건축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 재밌네!"했습니다. 맛을 안 것이지요.(웃음)

김형수 편집국장 건축사를 취득하고 개업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주로 어떤 실무 기간을 보내셨나요?

강계숙

공간사옥에 놀러가 카페와 공연장과 잡지를 보면서
나만의 설계공간 꿈꿔…

1985년도 4월 입사한 희림건축에서 한국은행 강남전산센타, 축산업협동조합 중앙리사옥, 대한투자신탁본사사옥 등 4~5명 팀원이 진행했던 대형프로젝트가 많았습니다. A0도면을 서서 그리기 힘들어 요령피우다가 혼나기도 하면서, 청사진을 굽고 테이프를 떼어내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2년차에 논현동 K카페를 진행하면서 디테일과 법규 책을 끼고 다녔던 기억이 선합니다. 이때 입력된 법규의 수치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가끔 공간사옥에 놀러가 카페와 공연장과 잡지를 보면서 저만의 설계공간을 꿈꾸면서 5~6년을 건축과 더불어 재미있게 지냈지요.

1996년 건축사를 취득하고 가와건축에서 실장으로 있으면서, 덕양구청사와 강동구 노인복지회관 등을 현상설계 했고,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알게 되었지요.

곽은선

다양한 사무실의 경험이
젊은 나이 개인 사무실의 오픈에 큰 도움이…

IMF시절 대학을 졸업하였고, 대형 백화점과 오피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입사해 실시설계실무를 배웠습니다. 80~90년대 대형 건축물을 많이 설계하던 곳이라 실시설계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경기가 어려워 디테일 디자인을 중시하는 작가사무실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는 디테일을 자신의 건물의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 하고, 그 디테일을 1/10, 1/5 스케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4년차쯤 되었을 때 실무의 틀에 갇혀 자유롭게 디자인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한양대 디자인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구조계획 자체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텍토닉(구축의 시학)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디자인 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 건축물의 디자인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조적 개념을 확립하려 노력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대형 설계사에 입사하여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계획과 실시설계와 청주 지방법원 실시설계 등 중, 대형 규모의 프로젝트의 계획, 실시까지 경험하였고, 그 이후도 몇 군데의 회사를 거치며 BTL과 현상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직을 많이 하면 안 좋다 하지만 전 다양한 사무실의 경험이 젊은 나이 개인 사무실의 오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규린

직접 건축주와 시공자를 만날 수 있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졸업 후, 첫 취업은 아트 종합건축사사무소(대전광역시소재,1993.04~1994.04)였습니다. 이미 3명의 여기사가 있었던 터라 좀 쉽게 건축사사무소에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다뤘던 프로젝트는 소규모 주택에서부터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직접 건축주와 시공자를 만날 수 있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런 다음 안면도(1994.05~1995.07)생활을 하게 되었고, 우연히 소규모 관공서 건물의 내역 작업 등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잠시의 경험 이였지만, 이후 관공서와의 일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의 보령시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당시 우림 건축사사무소(1994.09~1998.04)에서 건축사를 취득하기 전까지 지역적 성향을 바탕으로 한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서윤주

아틀리에 규모는 다양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대학원 졸업 무렵 우연히 건축 잡지에 실린 작품을 보고 찾아가서 다니게 된 곳이 중원 건축입니다. 중원건축은 김낙중 건축사님이 건국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시면서 현재는 없어져서 안타까워요.

그 당시 아틀리에 규모였던 중원건축에 다니면서 작게는 주택이나

자자호텔/강계숙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천안 서북구 성정동/2013년 2월

근생 등을 진행하면서 건축사님과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어서 계획과 디자인 파트 일을 빠르게 배울 수 있었고, 큰 규모로는 최초의 씨네 콤플렉스인 씨네 플러스, 지금은 압구정 CGV를 현상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몇 개의 현상설계를 더 진행했었습니다. 아틀리에 규모는 다양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사는 첫 직장인 중원건축에서 95년도에 건축사를 취득하고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스스로 변화와 휴식이 필요해서 스스로에게 안식년을 주러 유럽 여행을 갔죠. 그해가 1997년인데, 제가 영국에 도착하고 약 두 달 뒤에 서울은 IMF가 터진 거죠. 그리고 일 년 동안 영국이랑 파리 그리고 유럽 일대를 한 도시에서 두 달이나 세달 혹은 짧게는 일주일씩 여행 다니면서 스케치도 하고 하루 종일 공원에서 잠도 자고, 미술관에 종일 쳐 박혀 있어보기도 하고… 꼭 일 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IMF가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일 년의 힘이 그 뒤 10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김수경 편집위원 어느 대학을 진학하느냐보다는 졸업 후 첫 직장과의 인연이 평생의 건축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큰 듯 합니다.

저의 경우도 광장건축연구소의 김원 선생님과의 작업이 제일 인상에 남습니다. 해외잡지에 실린 멋진 설계를 카피하며 영혼 없는 디자

인을 해야 하는 것이 건축인가라는 고민을 할 때, 김원 선생님의 콘셉트가 있는 디자인은 저의 머리를 꽝하고 치게 했습니다. 어떤 설계든 콘셉트를 정하고 디자인을 풀어가니 '할 만하네~~'라는 생각을 한거지요. 메모지에 콘셉트와 매스스케치 하나 던져주면, 밤새도록 선생님의 의도를 읽으려고 노력하며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평면을 풀어나갔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처음 디자인 맡은 사람이 실시설계까지 리드하고, 허가를 내고, 건축주 협의까지 다 할 수 있었으니, 1년차에 말이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제가 뭐가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녀원, 종합촬영소 마스터 플랜 등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건축사 취득 후 활동에 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취득 후 개업, 즉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인데 여성건축사로서 사무실을 운영할 때 어려웠던 점이나, 유리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강계숙

여성으로서 공간에 대한 섬세한 감각과
감성을 살릴 수 있었다는 점이…

2000년도 천안에서 개업하면서 서울이나 경상도와 완전히 다른 지역적 정서를 이해하는데 힘들었고 여성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혀 안 돼 있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소통과 이해부분에서, '알겠다'는 말을 승낙이 아니라 '알아들었다'는 정도의 반응인줄 모르고 열심히 설계해드린 도면을 건축주가 다른 사무소에 의뢰해 착공하기도 했습니다. 연유를 따져 물었더니 "일상 있는 일이고 설계비가 저렴한 후배에게 하는 것인데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야단이라니…"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계획설계를 의뢰하고 좋은 안임을 알면서도 주변의 설계비(전화상으로 평당 설계비를 물어본 것)로 해도 충분하다는 식의 인식, 즉 일의 품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거래부동산에서 설계를 발주하고 권한 행사를 하는 점입니다.

지역 13년차로서 유리했던 점은, 꾸준한 사무실운영으로 지역 건축주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됐다는 점과 지역성과 기성건축사의 관점으로부터 자유롭고,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점, 여성으로서 공간에 대한 섬세한 감각과 감성을 살릴 수 있었다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곽은선

야근과 철야를 밥 먹듯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시댁아래층으로,
일을 하려면 불편한 어느 부분에서는 자신이 눈을 감고 받아들여야…

임신과 출산으로 1년 정도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8개월 되었을 때 단기임대로 현상을 하겠다고 박차고 나가면서 육아와 일의 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이 키우며 일이 들어오면 설렁 설렁 해야겠다는 생각에 싼 임대비로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사무실을 오픈하니 정말 일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군요. 남자들도 치열하게 생활해도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 누군가 일을 주면 하고, 안주면 놀지라는 생각으로는 사무실을 오픈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이 그렇듯 야근과 철야를 밥 먹듯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 댁 건물 아래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어머니, 시누이가족들과 함께 살 다가구를 짓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살 생각을 하는지 고개를 절래 흔들지만 건축을 하는 여성에게 육아는 분명 자신이 이일을 계속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하나뿐인 저의 아이에게 시누이의 아이들이 형과 누나가 되어주고, 제가 야근과 철야를 해도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클 수 있다면 이 방법은 분명 매력적인 해답입니다. 건축을 꾸준히 하며 자신을 발전시키고픈 여성이라면 다른 일반 여성의 일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욕심을 해결할 수 없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자신이 눈을 감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누이가 어떠네…, 시어머니가 어떠네… 등의 뒷담화 할 시간에 좀 더 나은 건축을 위한 고민과 협의를 할 시간도 모자라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규린

여성건축사, 일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다르다는 건 곧 경쟁력으로…

1998년 12월에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듬해 1999년 1월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주변의 만류가 많았지요. 여전히 IMF의 어두운 경제 상황이 그러했고,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으니… 당연한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곽은선(이에스 건축사사무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2012년 8월/양천구청장 표창장(2012년),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장(2012년)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늦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을 기다리거나, 뱃속의 아이가 지체의 이유는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렵게 마련한 자금으로 상가건물 1층에 10평 남짓 얻어 한 쪽 벽면 가득 집으로 벽화를 그리면서 보령의 첫 여성 건축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주를 하기 전까지 택지개발 지역을 발이 퉁퉁 붓도록 드나들었고, 결국은 토지대장상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띄워 찾아 온 건축주를 시작으로, 지금은 찾아오는 건축주를 만나고 있습니다.(웃음^^)

특히나 지방에서는 흔치 않은 여성건축사였기에 사무실 운영은 오히려 득을 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디서든 눈에 띄는 것도 그것이며, 기존 건축사들과의 차별화된 여성성을 강조(?)해 일의 진행과정에 건축주를 충분히 개입시켰고 진행상황을 꼼꼼히 짚어 주어 건축사와 같이 만들어 가는 건축물에 건축주의 만족도가 높아지더군요.

2년마다 다가오는 사무실 임대 재계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내부공간의 변화를 다양하게 시도했던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무엇보다 나 아니면 안 되게 하는 여성성을 강조한 마케팅이라면 마케팅을 한 겁니다. 일에 대해서는 더한 정확성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다르다는 건 곧 경쟁력이니까요.

淸虛樓(건하빌딩)/김규린(건축사사무소 좋은집)/충남 보령시 남대천로 21/2007년9월/충청남도 건축상 대상 수상(2008), 보령시 건축상 수상 (2007)

서윤주

건축주와의 미팅, 여성이기 때문에
접대 등의 기대 없이 신뢰를 가져주는…

유럽 여행 다녀와서 약 2년 정도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요, 조직에 소속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IMF이후 건축시장도 변화가 있어서 그전에는 도제 형식의 건축사를 양성하는 분위기였다면 건축이 사업과 맞물린 조직으로 변화하던 시기였어요.

유럽에서 여행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건축과 많은 차이가 생긴 거죠. 그리고 동기였던 남학생들도 가장이 되면서 건축인에서 생활인으로 변해 있었고 그러한 현상에 적응이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마침 전에 알던 건축사님 요청으로 박람회장 TF 팀장으로 수목A&A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쇼핑몰과 호텔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시대 트렌드나 사업과 건축의 조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거기서 팀장에서, 실장으로, 그리고 공동대표로 일을 하다가 2008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접 지명현상이나 건축주와의 업무조율 및 브리핑 프레젠테이션 등을 오랜 시간 진행해서 개업당시에는 어려운 점이 없었고요. 일을 하면서 건축주랑 미팅을 해보니 여성이기 때문에 거꾸로 저희랑 일을 결정한 건축주는 어떤 접대 등의 기대를 안 하시고 신뢰를 가져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건축학과를 졸업한 학생의 98%가 정년까지 일을 한다면 여학생은 그중 약 2% 안 되는 숫자가 건축사로 남는다고 볼 때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거꾸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여성이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게 유리하죠. 사실 제일 어려운건 사무실 직원 관리하는 거랑 수익구조를 맞추는 건데, 그건 아무리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김수경 편집위원 여성건축사로 살아가기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나와서 후배들에게 희망이 되는 듯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장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1995년에 아키플랜 근무하면서 건축사를 취득했고, 1996년 한 해 동안 유럽에 있었습니다. AA스쿨도 기웃거리고, 숙소 옆에 있는 하이드파크에서 종일 빈둥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 1997년에 선배사무실 귀퉁이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없었고,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관공서가 건축주일 때 그들의 선입견을 깨는 것이 힘들었지만, 일단 깨고 나면 신뢰를 받습니다. 여자들은 허튼 일을 잘 안 하잖아요? 금품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일로서 승부를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쌓이지요. 건축주를 만나도 훨씬 섬세하게 공간을 다루어 준다는 인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건축업은 분명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혼 한 여성은 당연히 육아문제가 생기고, 이의 문제를 곽은선 건축사님은 지혜롭게 해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릴 때는 단순히 보육의 개념이니까, 시부모님의 도움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만, 자라면서 학교 공부 문제가 대두가 되면

또 다른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직업인으로서의 여성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건축설계를 하면서 가장 보람차고 만족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또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기억되는 건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울러 가장 기억에 남는 건축주와 혹시 공무원에 관한 기억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선

작은 디테일의 고민으로 며칠을 보낸 후,
건물의 표정이 바뀔 때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양천구 입찰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울시 심의에 통과 되었을 때도 발주부서 담당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박스형 건물에 창 뚫은 디자인으로 가져오길 희망했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했으나 결국 준공 후 양천구청장 표창장과,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청하기보다 구청에서 신청해서 주신 상들인데요. 진심으로 그 지역을 고민하고, 디자인을 고민했던 것들을 많은 이들이 이해해 주어 행복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건축을 하며 작은 디테일의 고민으로 며칠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누가 알아줄까 싶다가도 지어지고 난 후 고민했던 것으로 인해 건물의 표정이 바뀌어 있는 것에 고생했던 날들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규린

보령의 장날! 장판지 속의 꼬깃꼬깃한 설계비.
집이라는 명사를 따뜻한 형용사로.

언젠가… 이 곳 보령의 장날!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가 찾아 오셨습니다. 섬에 사시는 할머니는 장애인 아들이 한명 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아들이 기거할 집을 등기부등본에 올리려다 건축물대장 생성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섬에 들어가 사는 집을 본 순간 가슴 먹먹함에 장판지 속에서 꺼낸 꼬깃꼬깃한 설계비를 차마 가져 올 수 없었고, 슬그머니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 제게 할머니는 장날이면 마늘이며, 바지락을 연신 갖다 주셨습니다. 지금은 소식이 끊겼지만 내게 할머니는 건축사로서 집이라는 명사를 따뜻한 형용사로 바꾸게 해 준 최고의 건축주이셨습니다.

조금은 엉뚱하게도 나는 스스로가 건축주이기를 결심하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수 없는 건축주의 설득에 지쳤고, 설계만 하다 보니 직접 집을 짓고도 싶었지요. 그래서 사무소 개업 후 2년마다 옮겨가며 보여주던 건축적 언어들을 직접 내 것으로 지어 보고 싶은 생각에 사옥(淸虛樓;건하빌딩)을 짓게 되었으며, 다행히도 조금씩 건축주들은 제 건축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호기심은 관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늘 시작은 아슬아슬한 모험이었으나, 결과는 조금씩 자라 있음에 오늘도 모험 하나 추가 하려 준비 중입니다.

서윤주

가장 보람찬 건 완공한 그 순간이 아니라,
그 건축물이 의도대로 사용되고 사람들이 만족하며 삶을 즐길 때…

아무래도 가장 기억나는 작품은, 첫 작품하고 사무실을 개업하게 된 이유가 되었던 청도 솔리움이죠. 그 작품이 현상에서 당선되고 나서 얼마 후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건축주가 메인 디자이너가 교체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해서 결국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개업하게 된 것이고, 믿어준 건축주 덕분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가장 보람찬 건 완공한 그 순간이 아니라 그 건축물이 사용되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그 공간이 제 의도대로 사용되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삶을 즐길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주거 건축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하지만요. 주거는 확실히 사용자의 평가가 즉각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건축은 준공된 순간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DNA와 어머니의 태교를 통해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동안 병치레하는데 돈 적게 들고 학원비 적게 들고 사회와 잘 소통하는 건강하고 이 땅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수명을 다하는 것처럼, 건축도 좋은 자재로 좋은 공간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어서 완공되면 그때부터 사람들과 소통하며 관리비용 적게 들고 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수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니 준공까지만 해놓으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건축사는 계획에서 설계 준공 까지가 책임이 아니라 그 건축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의 시간까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즉 무조건 멋진 건물이 아니라 건강한 건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처음 접할 때는 롱샹교회나 가우디의 건축처럼 멋진 오브제로서의 건축에 대한 동경으로 시작했는데 일을 하면서 건축은 사람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건축이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건축사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주와 시대와 소통하지 않는 다면 건축은 때론 폭력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수경 편집위원 저도 서윤주 건축사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오브제로서의 건축, 소통하지 않는 건축은 사실은 생명력이 없는 구조물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소통하지 못하는 건축은 그 속에 삶을 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사들은 마음과 생각이 트인 건축주를 만나 자신의 건축을 이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1992년 아키플랜 근무할 때, 미래산업 사장님의 개인 주택을 설계하면서 설계비를 6천만 원 받았습니다. 4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다세대주택을 계획해서 브리핑 한 적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너무 흡족해 하셨는데, 브리핑 후 설계비가 얼마냐고 물으셔서 답을 드렸더니, "사실 이미 허가를 받았다. 설계가 맘에 안 들어서 의뢰한 것인데 설계비가…" 얼마를 주고 허가를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한 달 이상을 이 나라 건축시장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일도 손에 놓고요. 너무 갭이 큽니다. 동네를 걸어보세요. 다 똑 같습니다. 건축사들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브제적인 작품을 하는 건축과, 그리고 아무나 소규모주택을 짓는 그 사이에서….

다음으로, 건축계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 또는 문화로서의 건축을 이끌어 가기 위해 우리 건축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탄 청도솔리움 타운하우스/서윤주(주.디안 건축사사무소)/화성시 동탄신도시/2009년5월/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일반주거부분 대상 수상

강계숙

건축사로서 윤리와 사회성, 문화예술분야로써의 인식과 자긍심 높은 폭넓은 교육이 필요

먼저 건축사로서 윤리와 사회성, 문화예술분야로서의 인식과 자긍심 높은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금융에 대한 교육과 공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건축교육의 다양한 보완이 절실합니다.

또 '건축=문화'라는 인식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착공과 준공식에 건축사가 반드시 참석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고, 아울러 머리돌과 현관의 정면에 건축사의 실명을 표기해야합니다. 또 건축사가 공공행사에 참여하여 주민과 함께하며 좋아하는 건축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협회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전국행사에도 주민과 공감하고 즐기고 나누는 건축문화를 만들어 인식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고 방송채널 도입으로 대중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곽은선

더 나은 도시의 표정과 소신 있는 디자인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은 설계 단가에 높은 인건비로 인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점이 현재 건축사사무소 운영자들이 당면한 공통의 문제임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디자인을 며칠 더 고민한다거나 디테일을 연구한다거나, 납품 전까지 변하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계하고 지은 건축물이 비전문가인 건축주들에게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좀 더 나은 건축 공간 제시와 30년 이상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리모델링되기 전까지 거리와 도시의 표정을 결정지운다는 점에서 건축 디자인이 쉽게 납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기에 좋은 점이 있다면 남편의 사회생활로 가정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남성보다 가볍다는 것이 강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도시의 표정과 소신 있는 디자인으로 사무실을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좀 더 자신의 회사의 강점이 되고, 어려운 시기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무실 운영의 비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김규린

건축문화란 그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생활양식의 패턴입니다.

강남의 초고층 빌딩도 어느 작은 마을의 경로당도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의 생활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거창하고 화려한 건물에서만 유독 건축문화를 논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질 높은 건축물을 위해서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작업이 시대의 건축 문화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수경 편집위원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을 정도로 여기 오신 건축사님들의 생각들이 유사합니다. 시대의 흐름일까요? 거창한 오브제건축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도시 속에 같이 호흡하며 더 나은 건축의 공간을 작은 배려로 선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건축의 겉멋을 벗어 던진 듯합니다.

말씀 드렸던 거처럼, 소규모 건축을 무자격자들이 지을 수 있는 건축현실에서 저희 건축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저는 건축사가 업역을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누군가 알아서 나를 찾아오리라고 기다리기 보다는, 내가 주체가 되는 일을 서슴없이 해야 된다고요. 4년 전 이후 저는 수많은 대지와 만남을 갖습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설계를 하고 집을 짓습니다. 제가 건축주가 되어 내 입김을 불어넣고, 내 상상력을 불어 넣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리 없이 말합니다. "이렇게도 건축을 할 수 있답니다."

문화로서의 건축을 홍보하는 것은 엄청난 파도를 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인식이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요. 지금 열심히 홍보해도 사람들 마음이 바뀌는 데는 한 세대가 걸립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여주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하

나하나,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현재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나, 자녀가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선배건축사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강계숙 그 땅과 건물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자연과 도시를 함께 아우르고 철학을 담아 시공과 관리를 하는 금융까지 폭 넓은 시선으로 접근할 때 종합건축예술로 공감할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과 만남을 통해 사고와 지식의 폭을 넓히고, 경제와 금융 등을 공부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좋은 습관을 갖는 것.

설계실에 갇혀 건축을 보기보다는 자연과 도시 속으로 나와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건축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김규린 무엇이 나를 정말 기쁜 맘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지 생각하기를 권해 봅니다. 건축이 가지는 다양한 사고의 범위처럼 다양한 분야의 건축일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건축에 대한 호기심도 좋고, 예술적 자질도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이 정말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건축은 고된 길입니다. 고되기 때문에 더 없이 행복합니다. 그러니 진정 가슴 뛰는 일이여야겠지요?

서윤주 여성건축사들 대담을 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이시대의 슈퍼우먼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 했었는데요. 사회가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슈퍼우먼이길 강요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같은데, 사회생활과 가정 육아를 병행하는데 그것이 가정과 육아는 의무이고 사회생활은 선택이니 슈퍼우먼이 돼서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스스로 슈퍼우먼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과 육아를 병행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어떤 편의를 봐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의 생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랑 병행 할 경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행복하게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로 하자면 남성들의 군대 복무기간만큼 그 시간을 길게 나눠 쓰면 되지 않을까요? 건축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니 얼마나 즐겁게 오래 발전하면서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사실 직업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매우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여학생들에게 평생 좋은 직업이라고 용기를 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의 벽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벽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통일이 아니라 통합이나 소통이죠.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CEO가 감성 경영을 주장 하듯이 건축계에서도 역시 여성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일들과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을 포기하고 싸우면 당연히 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김수경 편집위원 슈퍼우먼을 은연 중 강요하는 거… 맞습니다. 여성건축사들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아이가 아프면 밤새는 거 엄마의 몫이니까요. 저는 저를 슈퍼우먼이라기보다는 소방수로 표현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건축도 아이 키우는 거와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이면 좋은 건축물이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성장시키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시기에 따뜻한 손길이 부족하면 사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힘듭니다. 건축사냐 엄마냐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엄마라는 거, 하나도 이미 슈퍼우먼인데…) 아이가 원하는 시기에는 일을 줄이고, 손 나둬도 굴러갈 듯싶은 시기에는 들어오는 일을 정신없이 해치우고… 그러니 일이 더 즐겁습니다. 일을 굶으니까요. 어느 시기에 아이 돌보는 일에 집중할 때는 또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주문을 거둔 거지요. 대신 난 70대에 정말 멋진 건축을 완성할 거라는 꿈을 갖습니다.(웃음)

Bronnie Ware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중에
죽음을 앞 둔 후회 중의 하나가,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다.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었다.'라는
글귀처럼. 어떤 삶의 길이든 본인의
선택사항인 듯합니다.

앞의 건축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그때 내 가슴이 뛰는 일, 내가 해서 즐거운 일을 찾는 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길을 가든 후회를 할 수 밖에 없다면,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요? Bronnie Ware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중에 죽음을 앞 둔 후회 중의 하나가,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다.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었다.'라는 글귀처럼. 어떤 삶의 길이든 본인의 선택사항인 듯합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여성건축사로 활발히 활동하시는 점에 대하여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건축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섬세함이 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임신과 육아는 어성에게 분명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오늘 만난 여성건축사분들은 이를 슬기롭게 관리하고,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지 않고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 건축의 새로운 희망을 보는 듯 합니다.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ORKS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HONGIK IMAGINATION DESIGN CITY

외부 전경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설계자 | 김진구_KIRA | ㈜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IBS 인증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건축위원('05~'07)을 지낸바 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서울시건축상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주요작품으로는 중국심양롯데월드, 국립중앙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서울 SQUARE, 국립공주박물관, 애경그룹 종합연구소, SK 종합기술원 등 많은 작품이 있다.

설계자 | 신창훈_KIRA |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건축가 그룹 운생동의 공동대표,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아르텍건축, 범건축,MARU2, 힘마건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장윤규와 함께 실험건축, 개념적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가 그룹 운생동을 결성하여 예화랑, 서울시립대 종합강의동 ,KRING ,청심물문화관 등 다각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설계팀 : 김복수, 손병찬, 정연두, 이병호, 백승용, 박문학, 유병민, 신주용, 김해진, 전윤철_정림건축 김경태, 김봉균, 고영동, 김정섭_운생동건축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크로스구조연구소
  - 기계분야 : 삼원엠이씨
  - 전기분야 : 정우종합기술
  - 소방분야 : 창우FE&C
  - 토목분야 : (주)세광엔지니어링

건축주 | 홍익대학교

감리자 | (주)정림건축 + 운생동

시공사 | (주)서희건설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1, 212-1, 213-1

주요용도 | 교육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대지면적(Site Area) | 6,457.60㎡

건축면적(Building Area) | 3,701.97㎡

연면적(Gross Floor Area) | 57,098.1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7.55%

용적률(Floor Area Ratio) | 416.33%

규모(Building Scope) | B6 – 15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주요마감재 | 알루미늄 패널, THK24 투명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6. 05.~2011. 1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8. 08.~2012. 11.

사진(Photographer) | Nam, Goong-sun

Client | HONGIK Univ.

Architect | Kim, Jin-goo / Shin, Chang-hoon

Project team | Kim, Bok-su / Son, Byeong-chan / Jeong, Yeon-du / Lee, Byeong-ho
Baek, Seung-yong / Park, Mun-hak / Yu, Byeong-min / Sin, Ju-yong
Kim, Hae-jin / Jeon, Yun-cheol_JUNGLIM
Kim, Kyeong-tae / Kim, Bong-gyun / Ko, Yeong-dong /
Kim, Jeong-sub_UNSANGDONG

General Contractor | Seohee Construction Ltd;

Location | 128-1, Yeongeon-dong, Jongno-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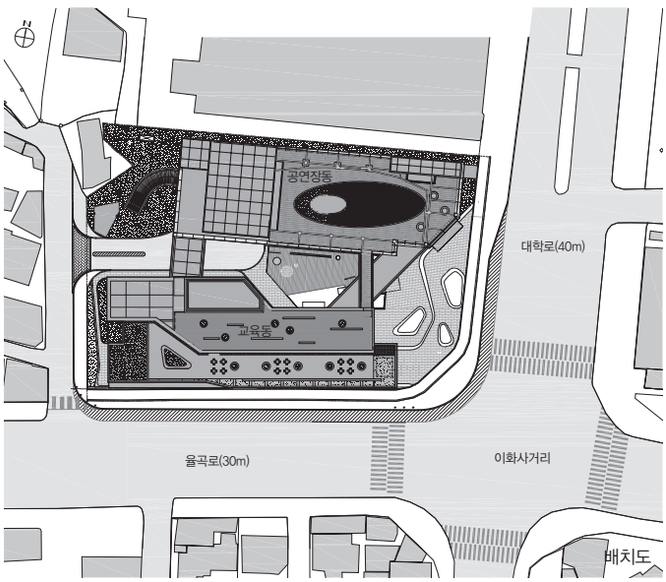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 | CROSS STRUCTUAL CONSULTANT

HVAC Engineer | Samwon MEC

Electrical Engineer | Jungwoo Engineering

Civil Engineer | Sekwang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Alumimium panel, THK24 Pairglass



배치도

야경

대학로 가로변

전면광장

전면광장

대학로 초입인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는 남북의 대학로와 동서의 율곡로의 결절점으로서 마로니에 공원의 문화 및 녹지흐름과 창경궁과 낙산의 Eco-Bridge로서 위치한다. 대학로의 문화거리 성격과 율곡로의 보행 흐름에 연속성을 이어주는 대학로의 시작을 강조하는 장으로서, 대학로에서의 교육, 연구, 문화, 전시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Interactive Street를 형성함으로써 홍익대의 교육공간과 대학로의 문화공간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복합 문화공간이 될 것이다.

Design Spetrium

디자인 인프라의 핵심기관으로서 교육의 최첨단을 수용하며,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도심형 캠퍼스의 새로운 비전을 요구에 발맞추어 대학로 젊음의 문화를 적극수용하며, 홍익대의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디자인 정신을 다이내믹한 건물의 매스 속에서 수직적 레이어로 형상화하였으며, 외관은 홍익대 디자인 학교의 자유로운 창의성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이는 다이내믹한 외관과 절제된 디자인 형태로 프로그램의 성격에 적합한 입면형태로서, 그 적층구조와 외관은 대학로의 통합된 문화의 스펙트럼으로 대학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대학로 문화거리의 입구이며, 이화사거리에 면한 상징적으로 열린 대지이미지를 구현하고자 전면에 공개공지 및 조경공간을 배치하고,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문화거리를 연계한 대지 내부의 선큰을 계획하여 문화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구성하였고, 대학로와 율곡로의 보행흐름에 연속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대학로의 문화와 율곡로를 이어주는 저층부 스트리트 및 전면광장을 구성하였다.

교육동과 공연장동의 독립적 공간배치로 보행동선 체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전면 광장을 통한 각 동으로 최대한 편리한 출입을 유도하였으며, 지하 전시장 및 후생복지시설 동선은 대지중앙에 넓은 선큰가든을 두어 외부에서 안마당을 들어가듯 편안한 공간이다. 차량 동선에서는 주차출입은 후면 서측도로에 설치하여 보행자 동선과 혼선을 최소화 하고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다.

교육동과 공연장은 별도의 수직 코어로 동선을 분리하였고, 특히 공연장으로 진입하는 저층부의 별도 내부계단설치로 원활한 수직동선과 communication을 위한 브리지를 통해 공연장 메인 홀과 교육시설의 연계를 계획하여 공연장 이용 편리성에 극대화를 꾀하였다. 지하 선큰을 통하여 교육 및 전시시설을 연계하였고, 지상 6.7층에는 공연장 7층 옥상정원과 연계되는 브리지를 통한 외부공간의 이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연구시설 및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분리를 통한 단면 기능의 합리성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층부는 전시장, 공연장 등 사회 문화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공간, 고층부는 교육시설로서 지원시설과 함께 집약 설치하였으며, 최상층부는 스카이라운지를 계획하여 대학로와 창경궁의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전면부 15층 강의를 위한 교육동을 배치하고, 후면 6층 공연장을 배치하여 매스분리를 통한 프로그램의 분리를 통하여 시간별, 행태별 분리를 하였다.

지하 1~2층은 전시장 위주 공간을 계획하여, 선큰가든과 더불어 편안한 관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교육연구시설 6층과 7층에서 후면 공연장 옥상조경으로 이어지는 브리지를 통한 입체적 캠퍼스를 조성하였으며, 공연장 7층은 이용객을 위한 테마가 있는 옥상정원으로 조성하였다. 10층 외부공간 및 옥상에 조경 공간 설치로 교육환경의 쾌적함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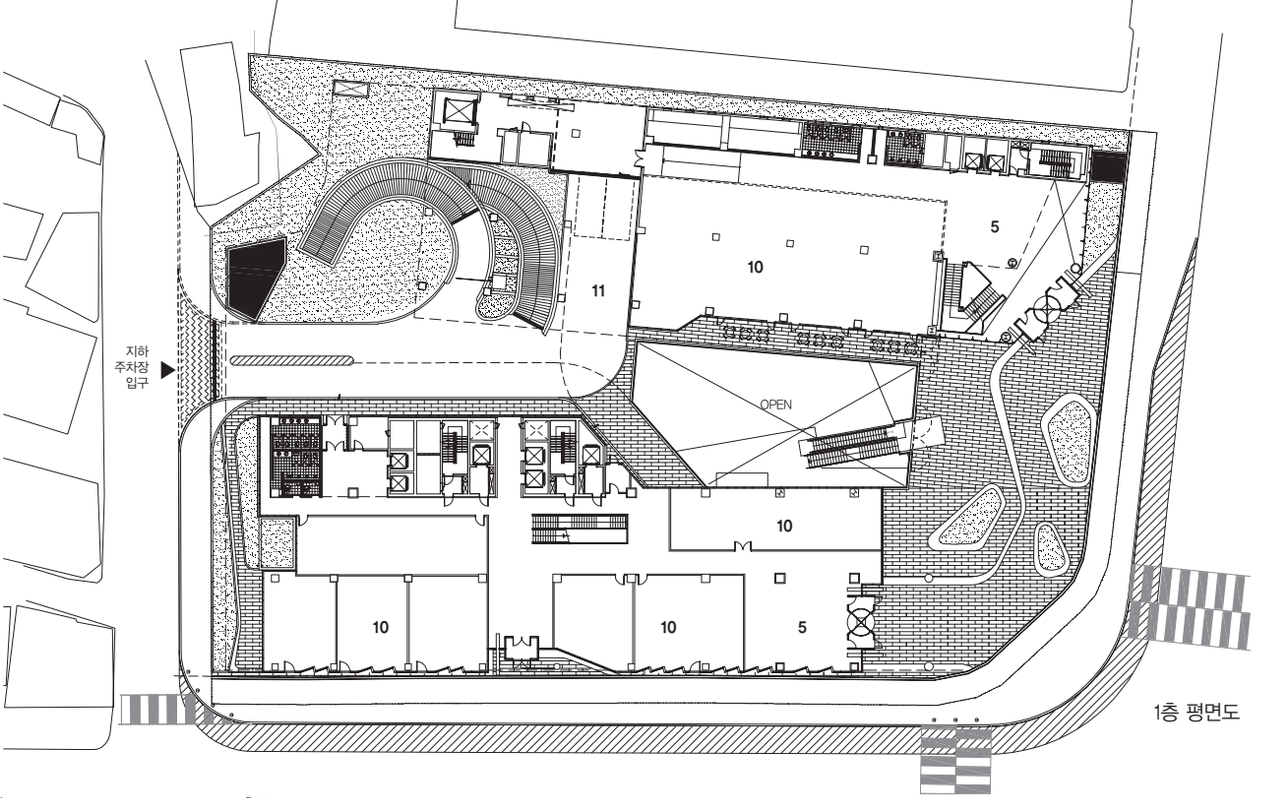
세부시설계획으로는 지하의 전시장은 대형조형물 전시, 기획전시 등 다양한 전시행태를 충족할 수 있으며, 선큰과 연계함으로써 전시장으로서의 편안한 관람과 휴식, 야외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동과 분리된 공연장은 독립적 공간배치로 보행동선 체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전면 광장을 통하여 출입이 편리하고, 전용의 수직동선 설치로 동선의 독립성 확보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하였다. 공연장은 600석 이상 규모의 중규모 뮤지컬공연장을 배치하여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객석, 무대를 설치하여 대학로 문화의 거리에 부합하는 공연시설을 계획하였다.

지하에 약 600㎡ 이상의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공연장과는 별도로 이용 및 공연기간 또는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사용자를 고려하여 기타시설과는 독립된 공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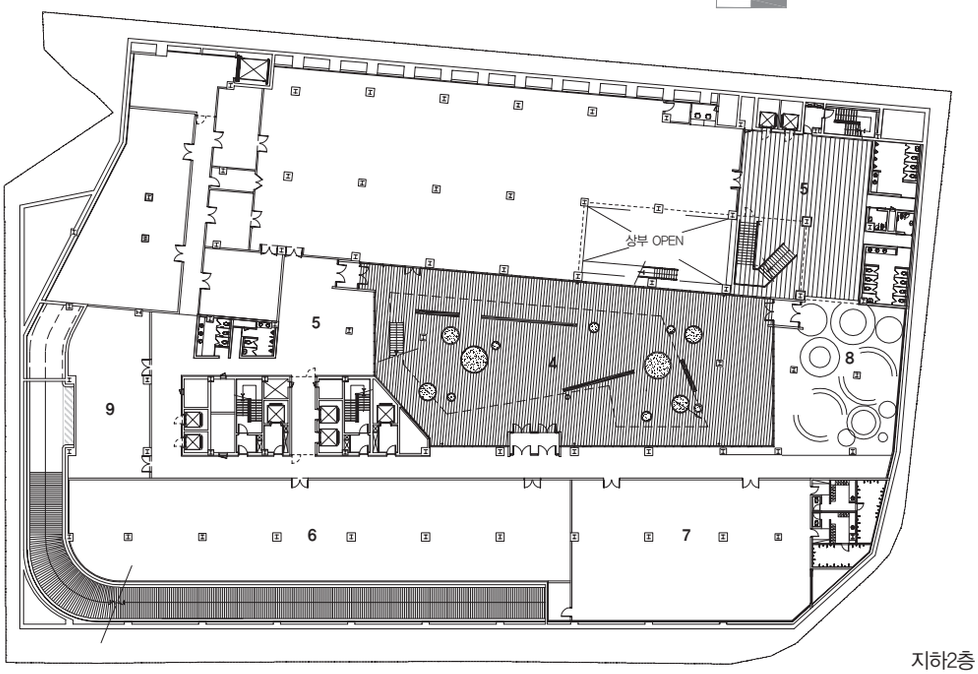
홍익대 대학로 캠퍼스는 대학로 젊음의 문화와 첨단디자인센터로서의 대학로의 landmark로 도시의 쉼터를 제공하는 친환경적 디자인 캠퍼스로 거듭 발전되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선큰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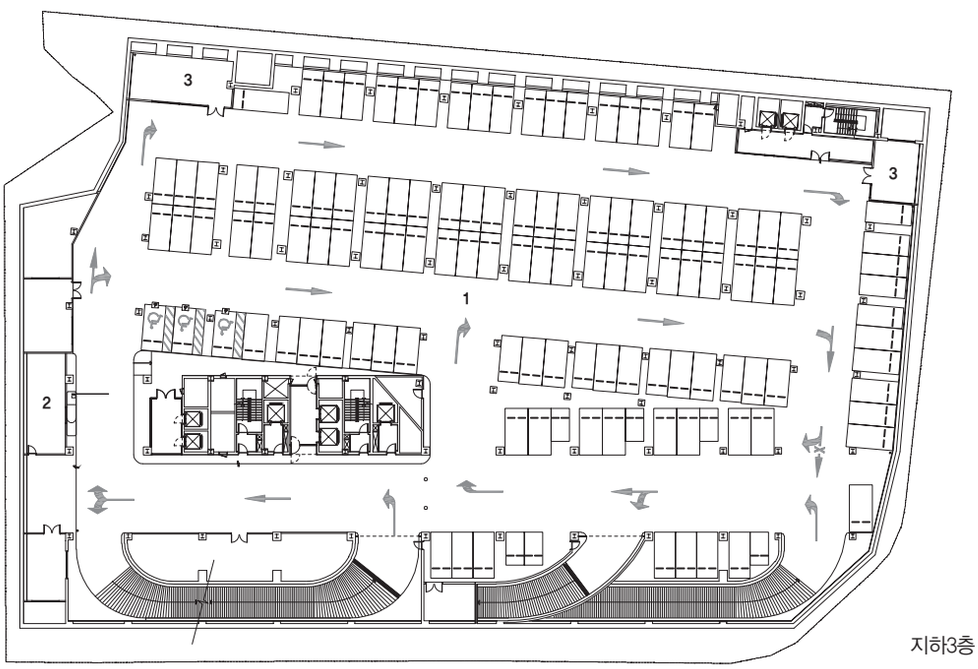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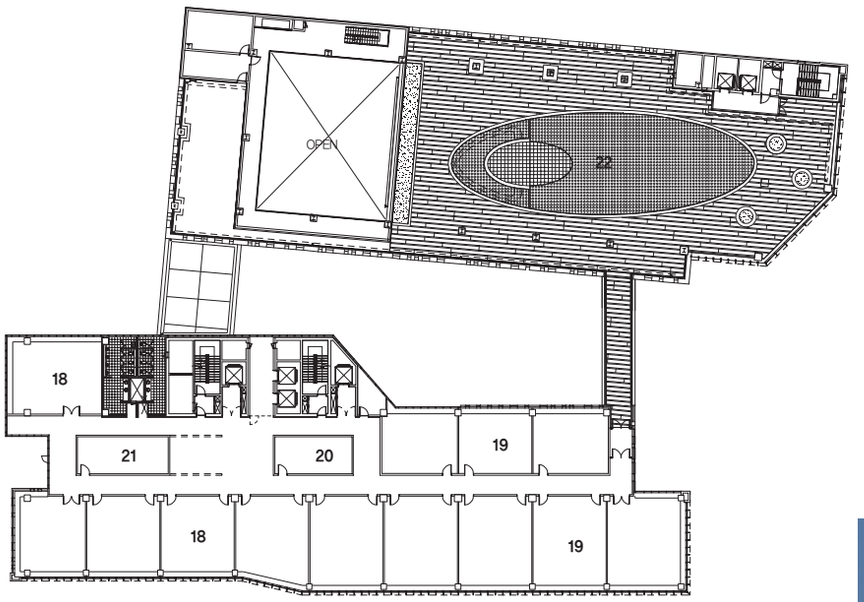
1. 주차장
2. 주차관리실
3. 배풍실
4. 선큰
5. 홀
6. 전시장
7. 공연연습장
8. 뮤지엄숍
9. 공조실
10. 지원시설
11. 하역장
12. 연결통로
13. 공연장홀
14. 조정실
15. 공연장(객석)
16. 공연장(무대)
17. 분장실
18. 실기실
19. 강의실
20. 피티룸
21. 비주얼룸
22. 옥상정원
23. 휴게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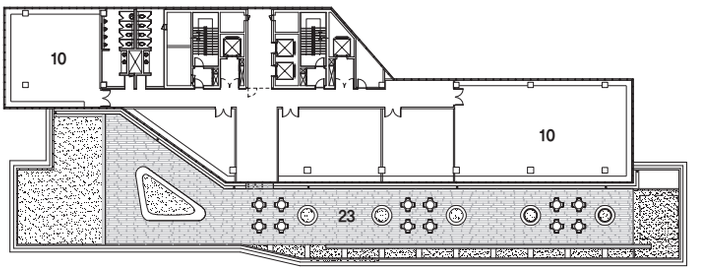
지하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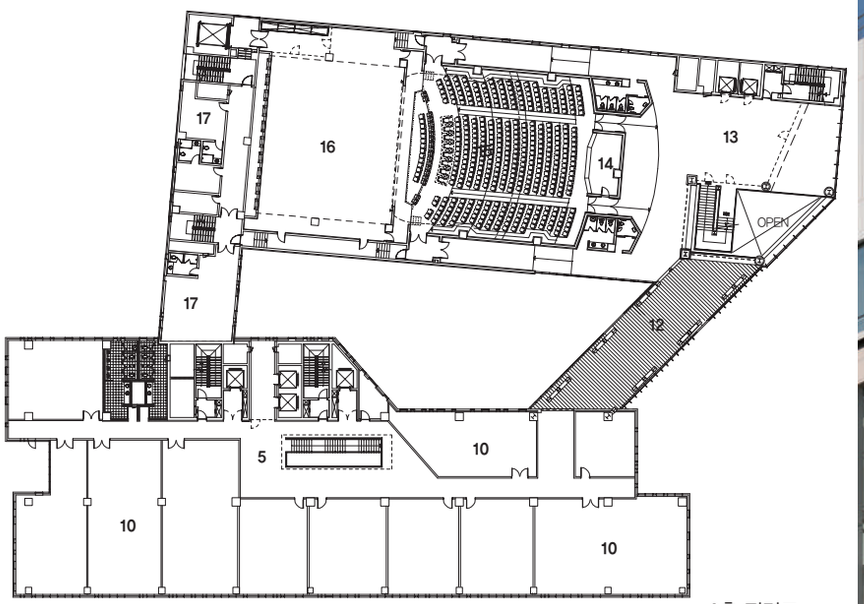
지하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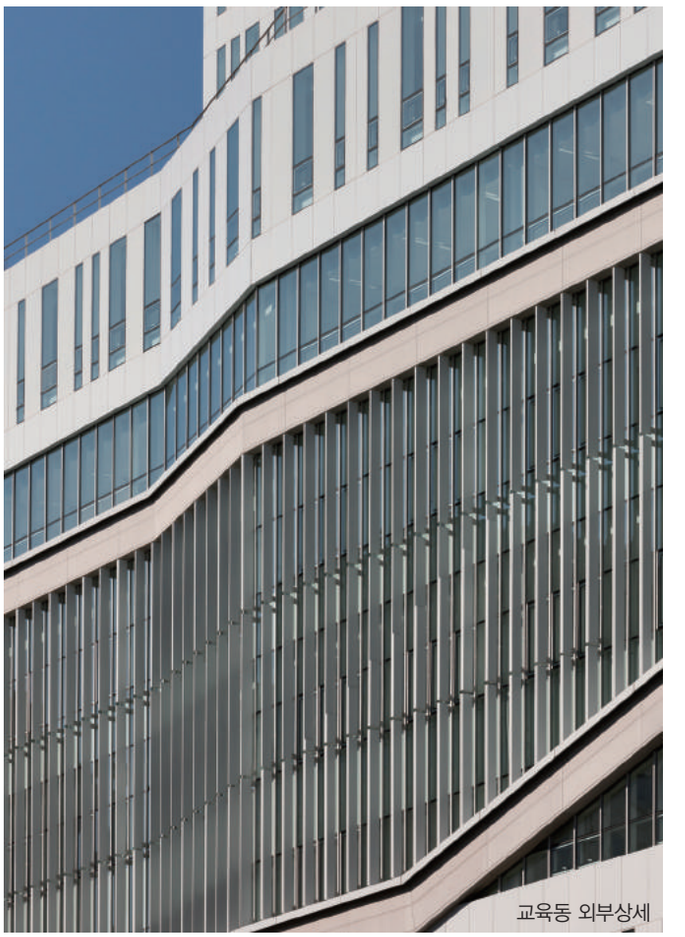
7층 평면도



1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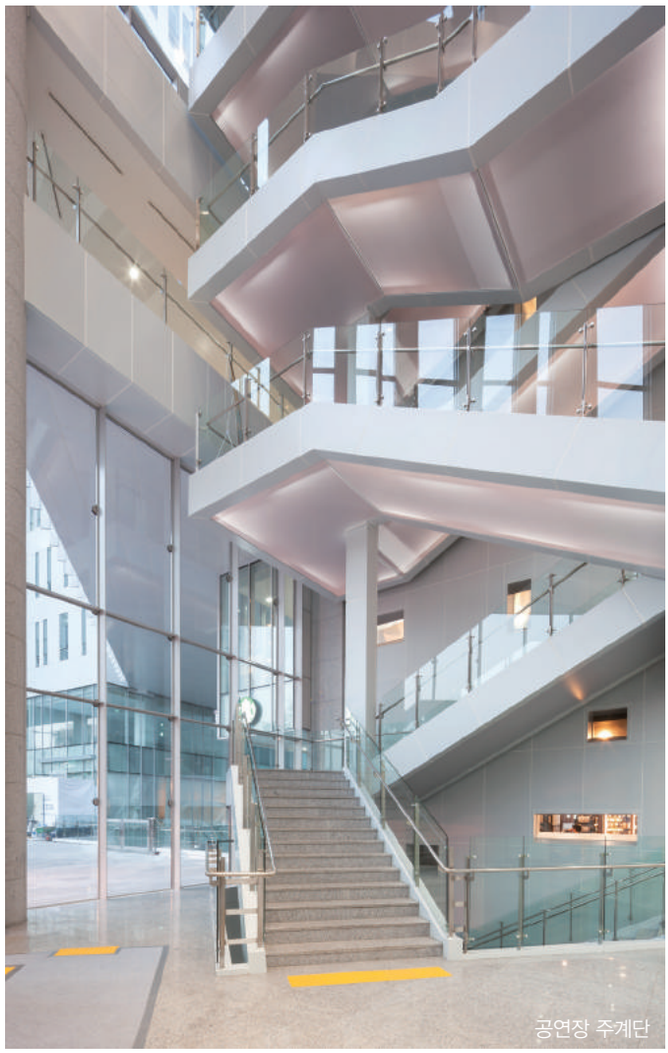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교육동 외부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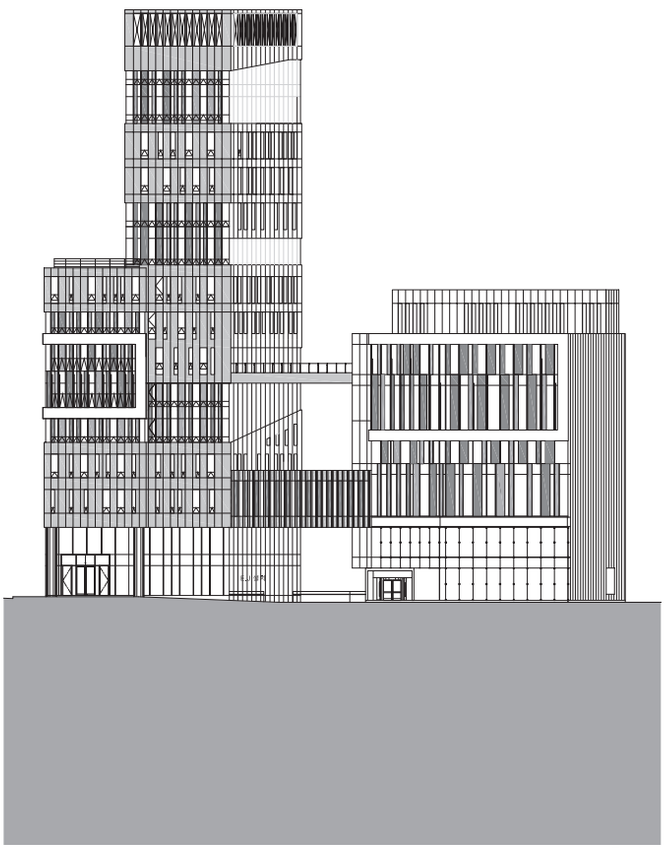
대학로 가로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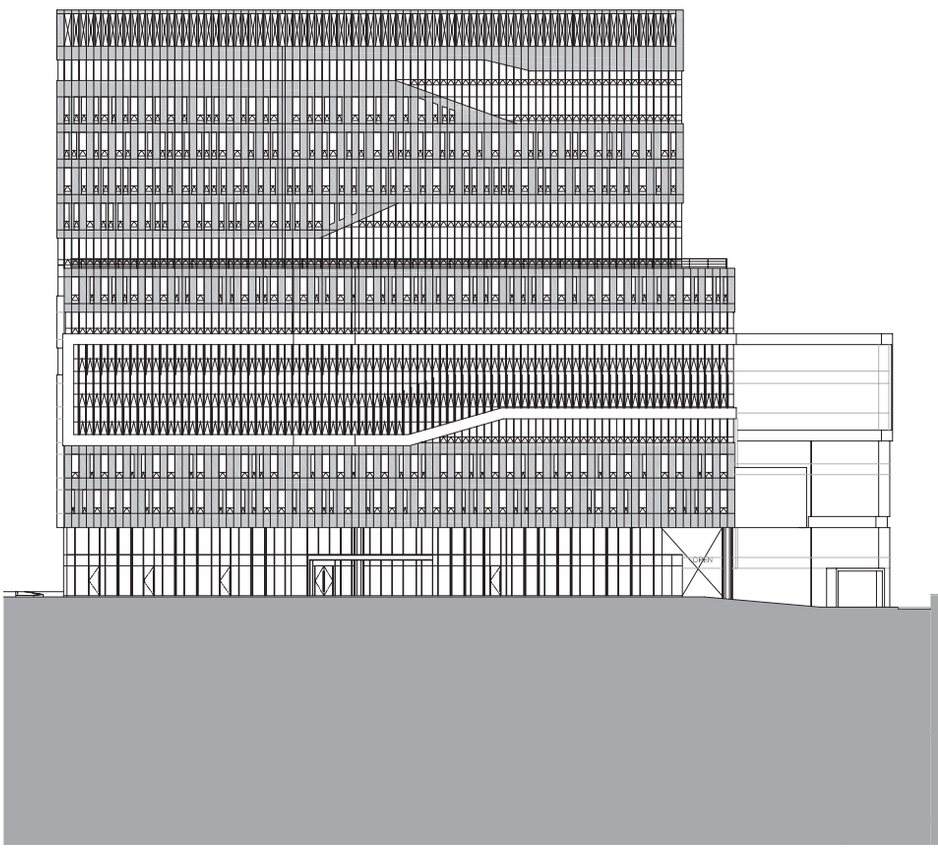
공연장 주계단

교육동14~15층 내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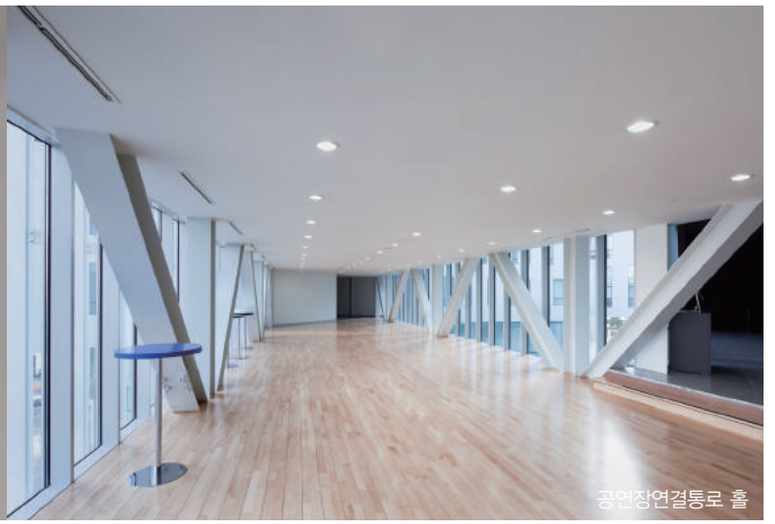
교육동14~15층 내부전경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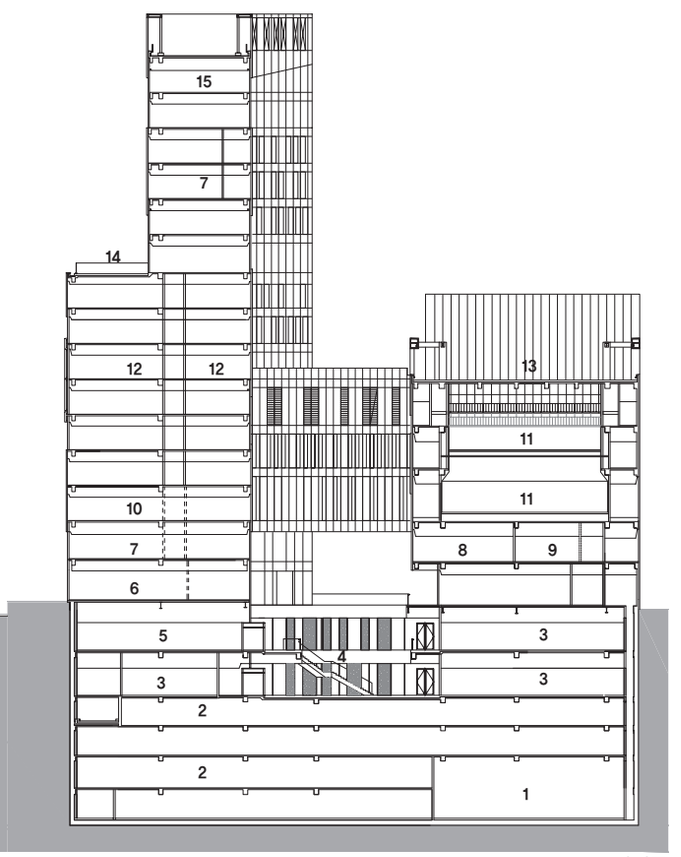
북측면도


공연장연결통로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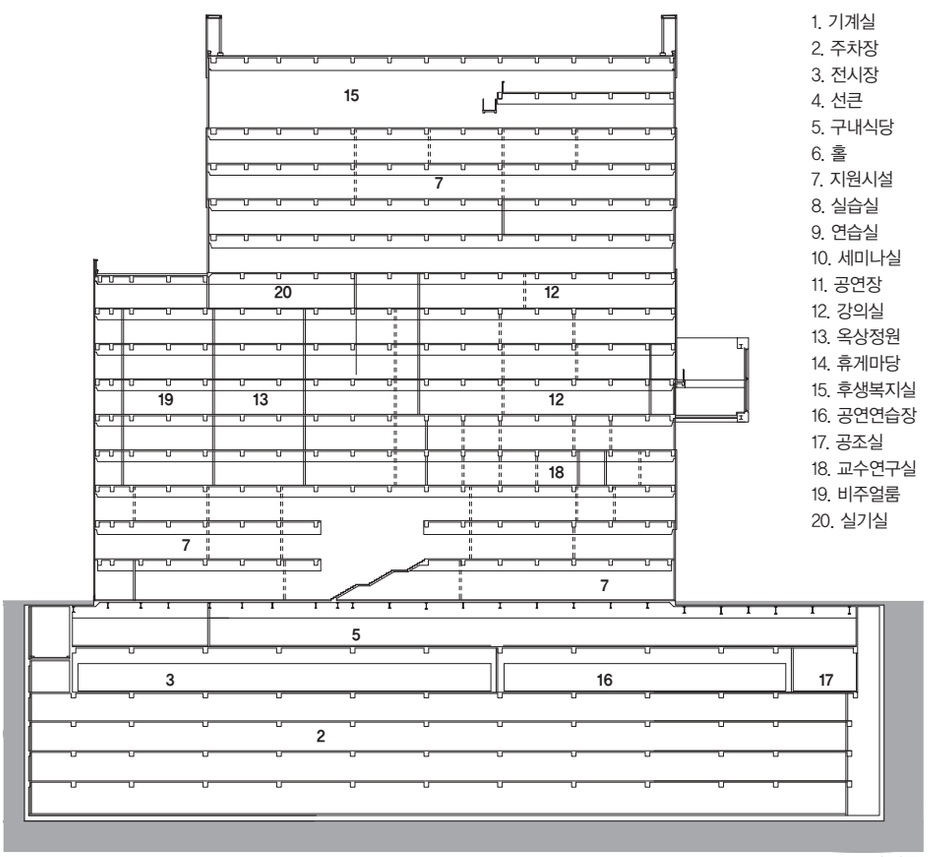
공연장 홀

공연장 복도

공연장



단면도



단면도

1. 기계실
2. 주차장
3. 전시장
4. 선큰
5. 구내식당
6. 홀
7. 지원시설
8. 실습실
9. 연습실
10. 세미나실
11. 공연장
12. 강의실
13. 옥상정원
14. 휴게마당
15. 후생복지실
16. 공연연습장
17. 공조실
18. 교수연구실
19. 비주얼룸
20. 실기실

비 타워
B TOWER

설계자 | 오섬훈_KIRA | ㈜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AA스쿨에서 수학했다. 공간건축 설계부문을 역임하였고, 현재 (주)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urbanEx) 대표이사다. 주요 작품으로는 송도산업기술연구집적센터, 송도산업기술문화Complex, 대치동빌딩과 경춘선 에코갤러리, 한성대 도서관, 비-타워 등이 있다.

- 설계팀 : 김기웅, 강승현, 김양미, 유위철, 석영, 박상언, 김선화, 박성훈, 김태완, 김진영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선구조엔지니어링
  - 설비분야 : ㈜융도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공간이엔지
  - 토목분야 : ㈜한국지오컨설턴트

건축주 | (주)신동진

감리자 | (주)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시공사 | (주)효성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3-7

주요용도 | 업무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6,804.2㎡

건축면적(Building Area) | 2,421.58㎡

연면적(Gross Floor Area) | 44,301.7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5.59%

용적률(Floor Area Ratio) | 358.77%

규모(Building Scope) | B5 – 20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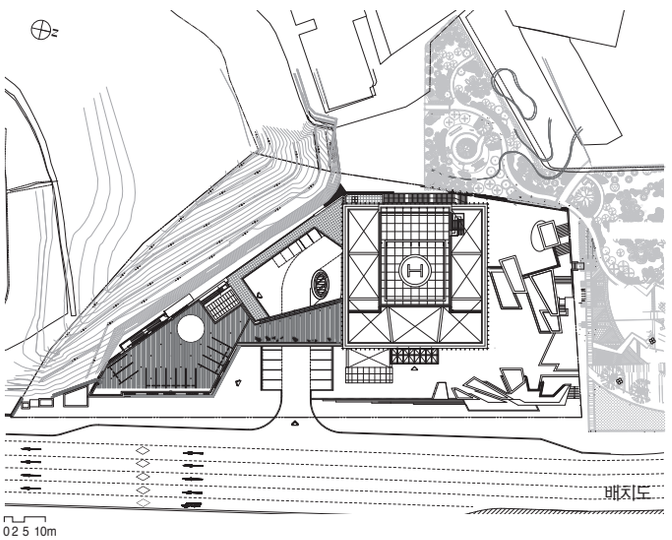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시트, 불소수지코팅, 알루미늄루버
내부마감_석고보드, 폴리싱타일, 대리석, 무늬폭패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8. 초~ 2009. 말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9. 초~2011. 8

사진(Photographer) | Park, Yeong-chae



Client | Shin Dong Jin Co., Ltd.

Architect | Oh, Seom-hoon

Project team | Kim, Ki-ung / Kang, Seung-hyeon / Kim, Yang-mi / Yu, Wi-cheol
Seok, Yeong / Park, Sang-eon / Kim, Seon-hwa / Park, Seong-hun
Kim, Tae-wan / Kim, Jin-yeong

General Contractor | Hyosung corporation

Location | 63-7, Banpo-dong, Seocho-gu, Seoul, Korea

Structure | S.R.C

Structural Engineer | Sun Structural Engineering

HVAC & Electrical Engineer | Yungdo Engineers & Consultants

Electrical Engineer | Space Engineering.Co.,Ltd.

Civil Engineer | Korean Geo-Consultants Co.,Ltd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 Plaster board, Polishing tile, Marble, Sliced veneer panel
Exterior_ Low-e glass, Aluminium sheet, Aluminium louver

서리골공원에서 바라본 전경

Day

전면 도로(반포대로)에서 바라본 전경

루버패턴의 변주

루버패턴의 변주

고속터미널역 사거리에 위치한 B-Tower는 반포대교를 건널 때부터 나타나는 타워부분의 Simplicity & Complexity 한 정사각형의 단순매스를 통해 기업의 신뢰감, 정직함의 굳건한 상징성을 보여준다.
또한 인접 환경의 레벨차를 이용하여 옛 지형의 흔적을 암시하는 옥상정원, 주변의 서래공원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친환경적으로 계획된 저층부, 동서향의 일사량을 조절하고 표피의 변화를 생성시키는 루버로 Surface, Mass, Context 안에서 기본방향을 구현한다.

SURFACE

기업이미지의 상징적 표현의 하나로서 소통네트워크를 패턴화하여 계획에 반영코자 하였다. 좀 더 심플한 이미지를 갖길 원하여 최종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패턴을 갖게 되었으나 계획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였고 또한 어떤 형식으로든 구현시키려 했다.

DEPTH & GAP

Surface 구현 전략의 하나로서 초기 안에서 시도되었다. 두 개의 다른 매스를 설정하고 그 틈새와 서로 다른 두 표면사이를 넘나드는 제스쳐를 계획했다. 이 틈으로 형성된 아트리움의 삭제로 깊이감의 표현은 다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했다.

SIMPLICITY & COMPLEXITY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Envelope을 만들어 Simplicity를 갖되, 상부 surface와 하부 surface의 전략과 깊이를 달리하여 다양성(Complexity)을 갖는다.
상층부는 루버패턴의 변주로서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하층부는 내부의 장치(moving elevator, 노출계단, floating object)와 외부의 landscape, 해프닝성 이벤트 등이 단일 표피 위에서 다양성을 갖게 하고 외피유리는 단순한 경계로 있다.

DAY&NIGHT VARIATION

건물 전체를 감싸는 루버에는 LED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낮과 밤의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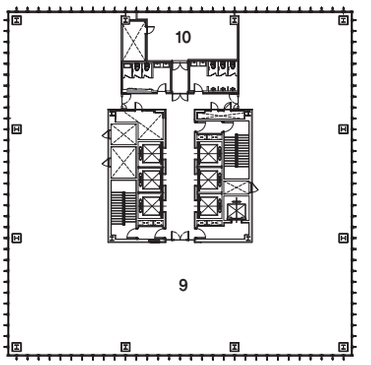
MASS 두 매스의 대비

크게 이형의 전시장과 정형의 타워형 오피스로 구분되는 매스는 대비되지만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브리지를 통해 저층부를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를 형성했다.
연결된 저층부 매스 위에 타워는 띄움으로 타워부분의 Simplicity를 강조하였고 타워를 띄워 비워진 공간은 한강을 넘어 남산의 풍경까지 담을 수 있는 옥상정원으로 이용자들의 쉼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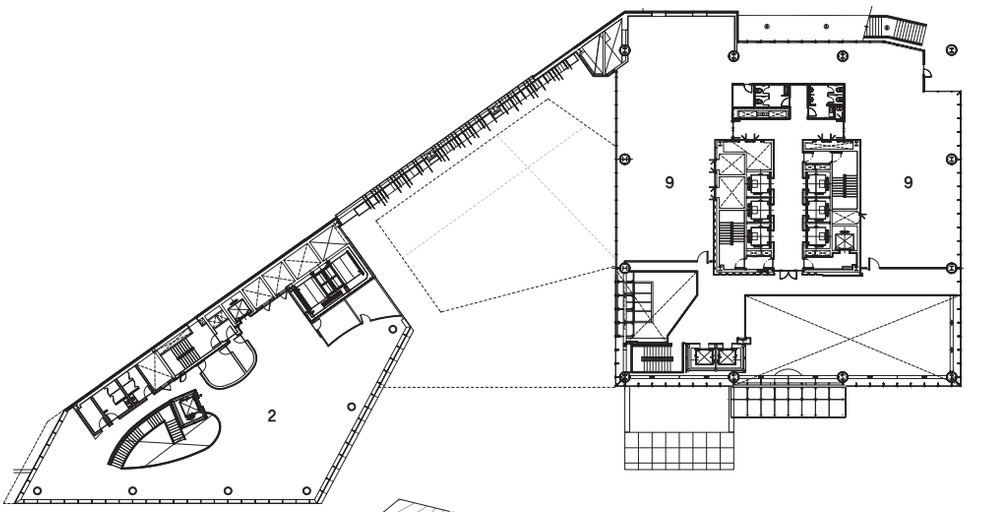
CONTEXT

대지주변은 경사지로 형성되어있는데 이는 과거에 현재 대지도 경사로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그 레벨차를 이용하여 경사지, 옥상정원, 그리고 서래공원까지 연결하고 과거의 지형을 회복하는 Green space를 삽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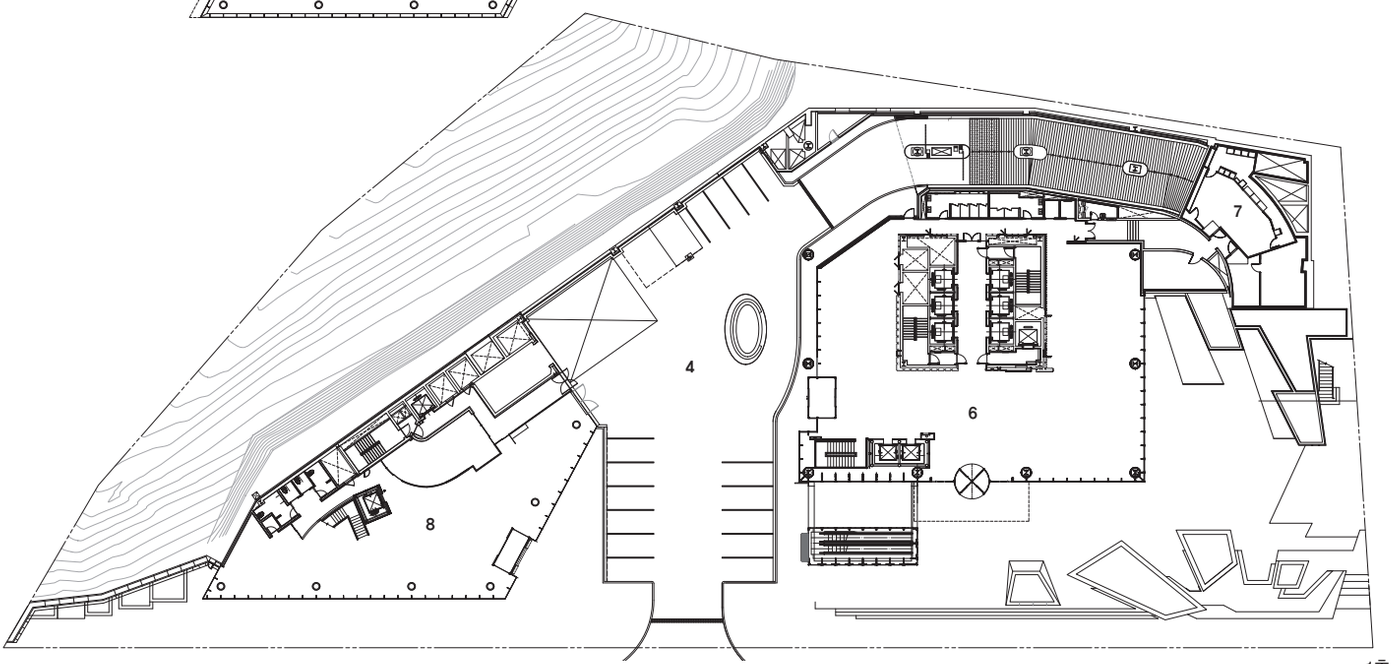
1. 근린생활시설
2. 판매시설
3. 창고
4. 주차장
5. 세차장
6. 로비
7. 방재실
8. 판매시설
9. 업무시설
10. 공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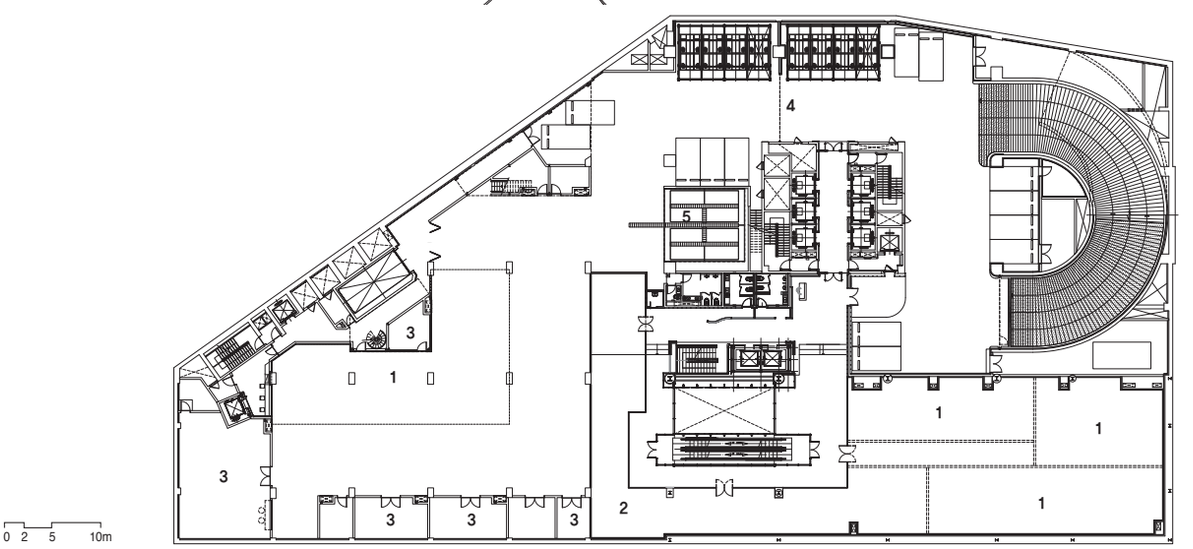
5~1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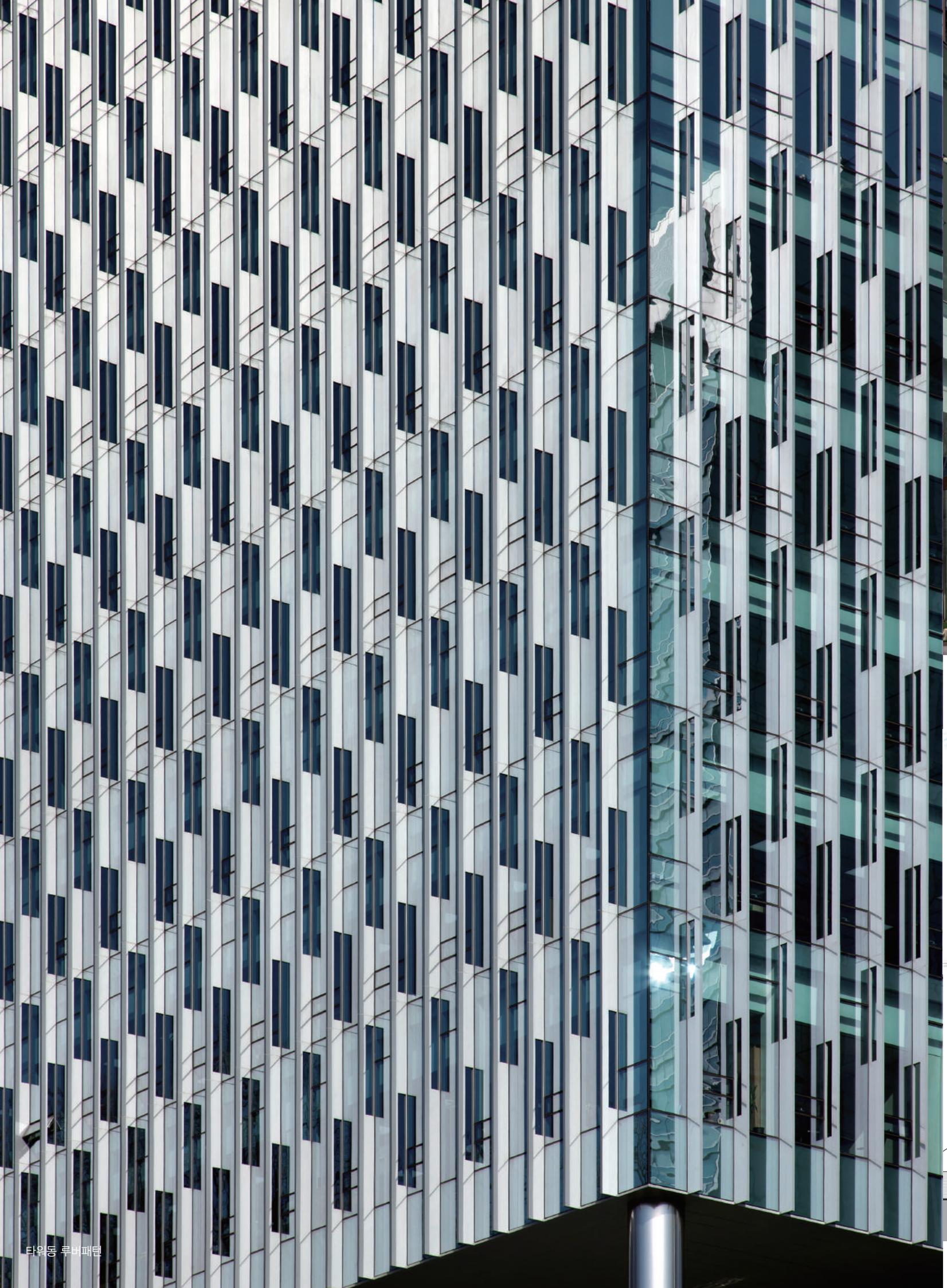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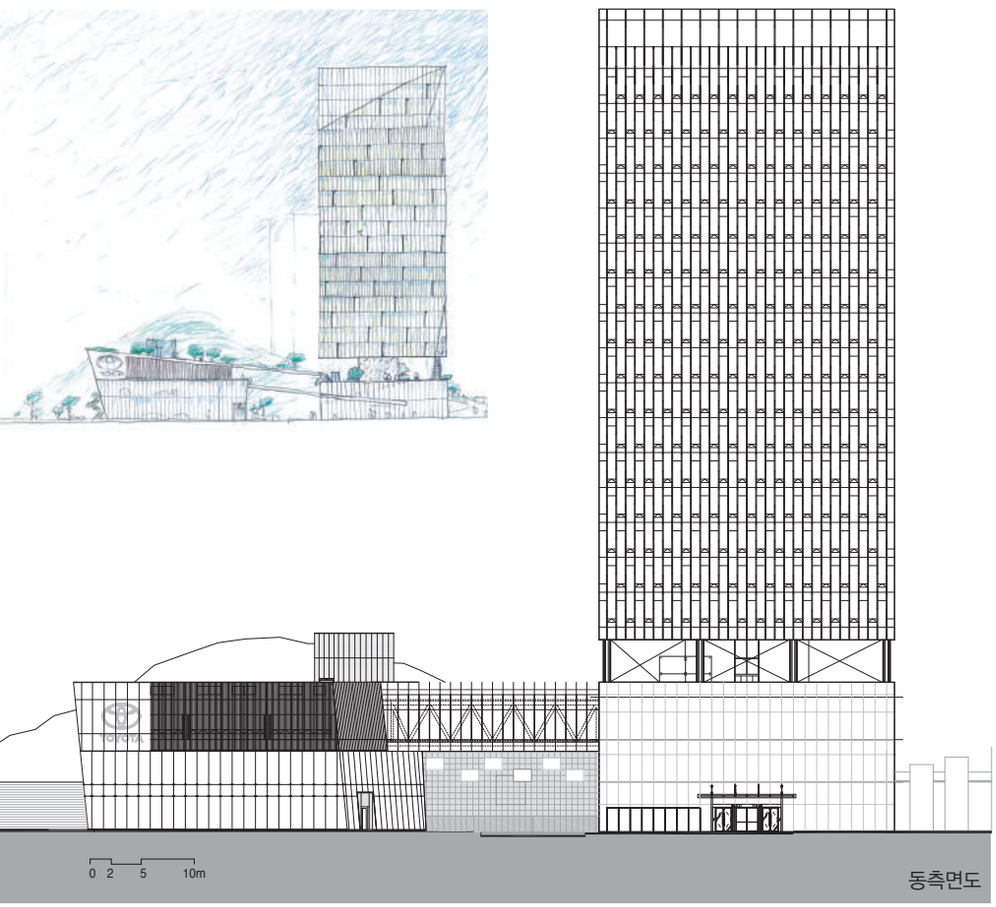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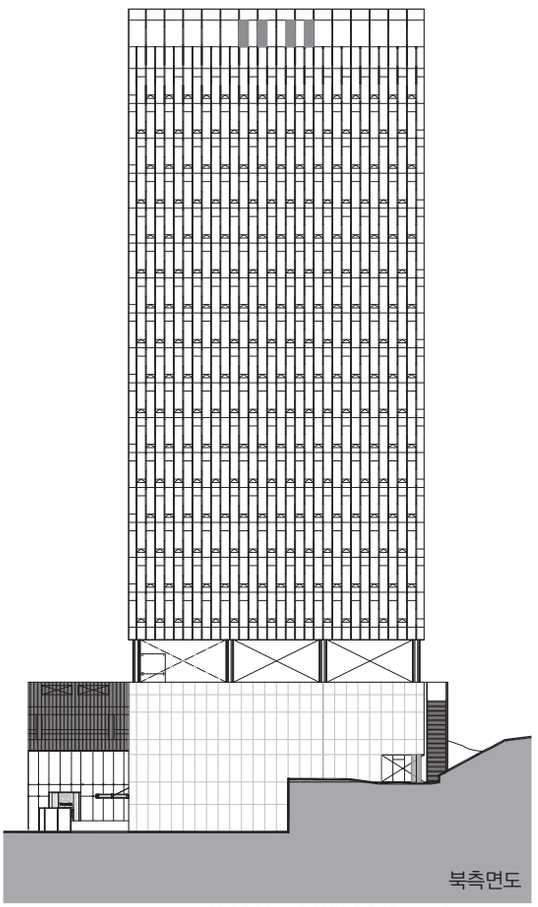
타워동 루버패턴

저층부 매스의 통합

연결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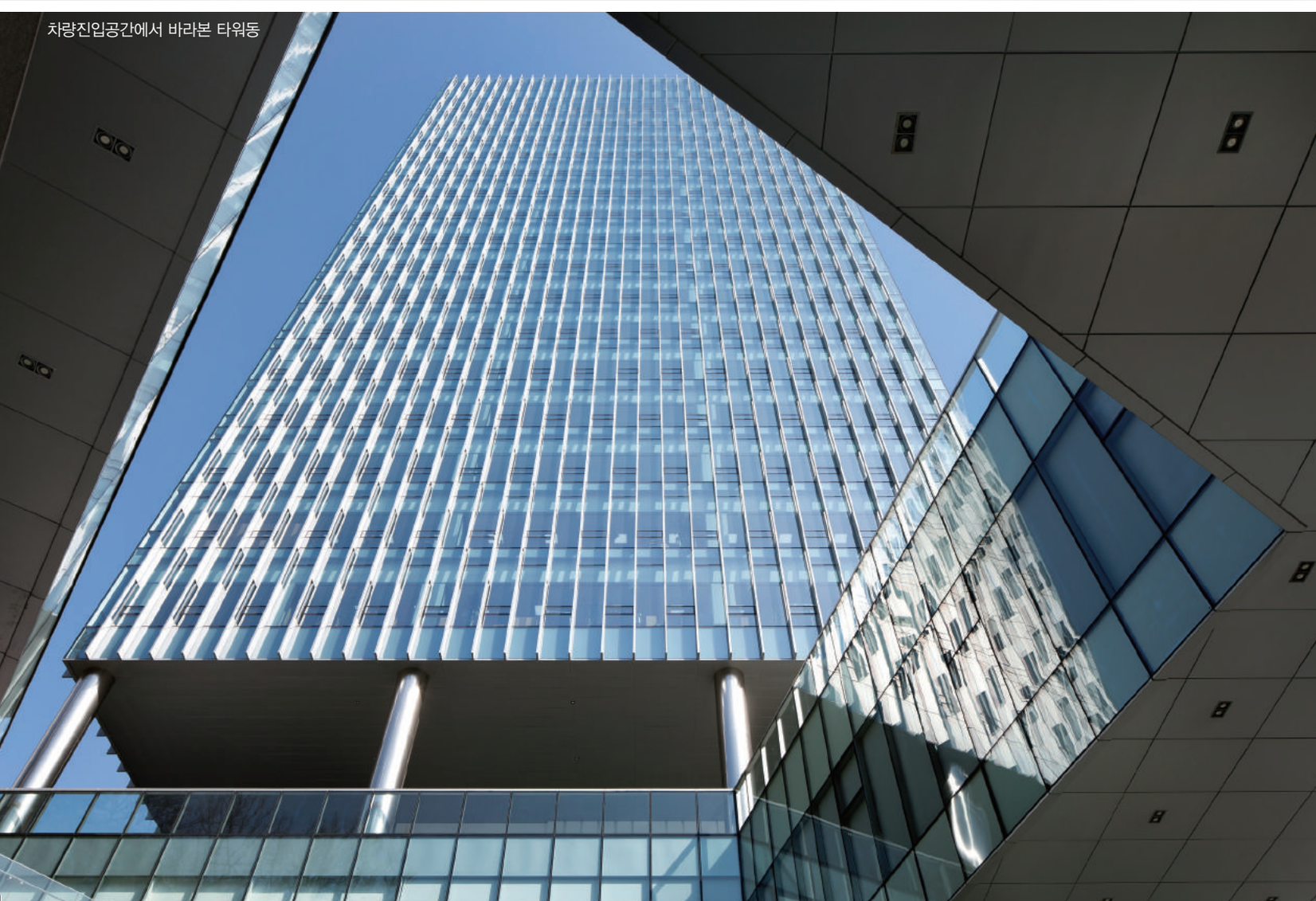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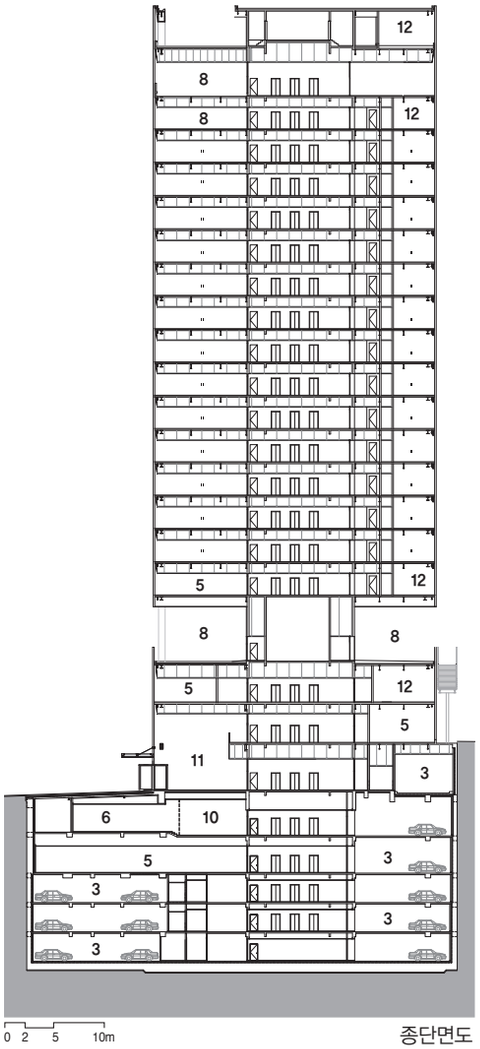


북측면도

차량진입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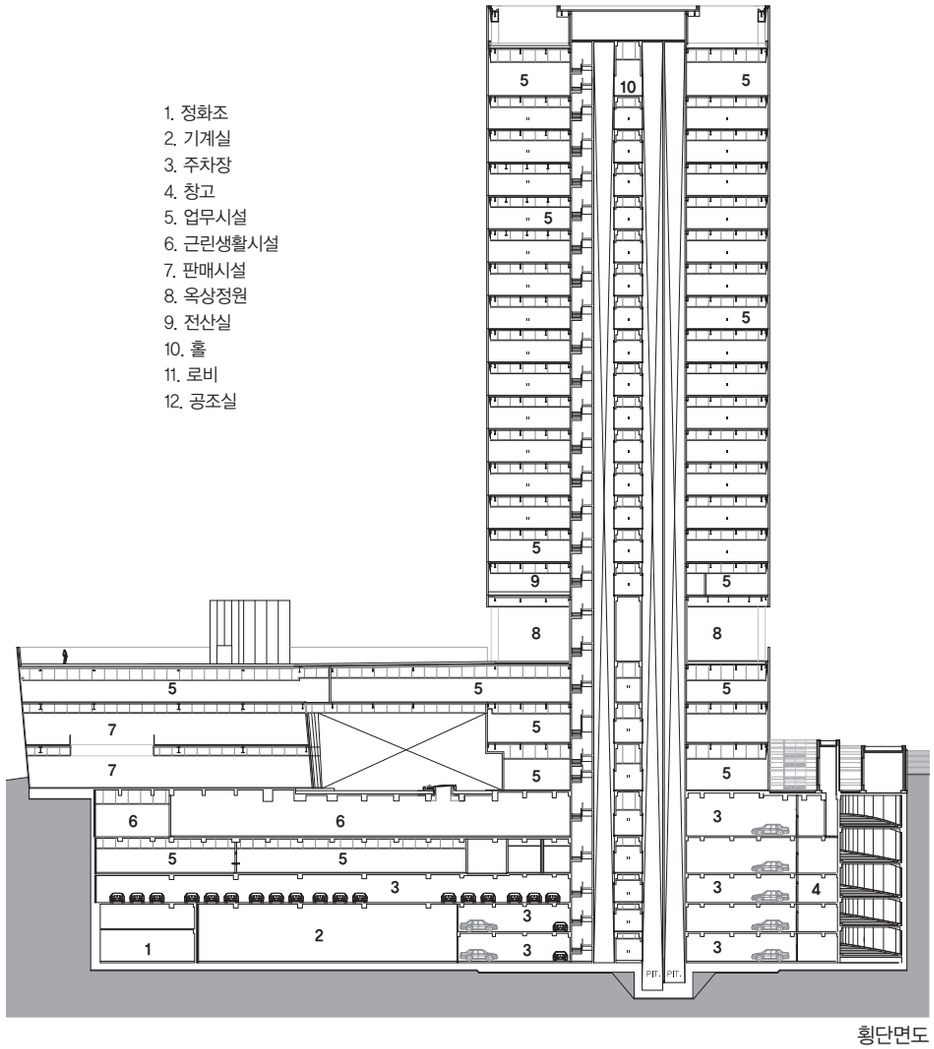


차량진입공간에서 바라본 타워동



종단면도

1. 정화조
2. 기계실
3. 주차장
4. 창고
5. 업무시설
6. 근린생활시설
7. 판매시설
8. 옥상정원
9. 전산실
10. 홀
11. 로비
12. 공조실



횡단면도

이형의 전시장

전시장 1층

서울 글로벌센터
SEOUL GLOBAL CENTER

설계자 | 김명홍_KIRA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범건축 부설연구소 책임 소장이며 주요 작품은 웅상문화체육센터, 행정도시정부청사 1-2구역, 서울글로벌센터 등이 있다. 10년 '강원애니고등학교'로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굿디자인 우수교육시설 우수상을 받았고, 11년에는 '경원대 비전타워'로 경기도건축문화대상 금상을 받았다.

- 설계팀 : 박소형, 윤영로, 고봉석, 김덕현, 정영규, 조진우, 김정수, 김창원, 정진호, 이우길, 김현빈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창민우구조컨설턴트
  - 전기설비분야 : 한일엠이씨
  - 토목분야 : (주)청아엔지니어링

건축주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감리자 |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STX건설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64-1번지 외 10필지

주요용도 | 공공업무시설, 공영주차장

대지면적(Site Area) | 1,070.60㎡

건축면적(Building Area) | 638.70㎡

연면적(Gross Floor Area) | 11,751.6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66%

용적률(Floor Area Ratio) | 788.51%

규모(Building Scope) | B4 – 15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THK6.0 알루미늄 퍼니컴패널, THK24 일면반강화 로이복층유리, THK30 대리석(그린마블)
내부마감_내부마감: THK30 화강석, 수성페인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9. 05. ~ 2009.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06. ~ 2013. 02

사진(Photographer) | Kim, Won-yang(BAUM Architects, Inc.)

Client | Seoul Metropolitan Infrastructure

Architect | Kim, Myung-hong

Project team | Park, So-hyeong / Yun, Yeong-ro / Ko, Bong-seok / Kim, Deok-hyeon / Jeong, Yeong-Kyu / Jo, Jin-u / Kim, Jeon-su / Kim, Chang-won Jeong, Jin-ho / Lee, U-kil / Kim, Hyeon-bin

General Contractor | STX Construction

Location | 64-1, Seorin-dong, Jongno-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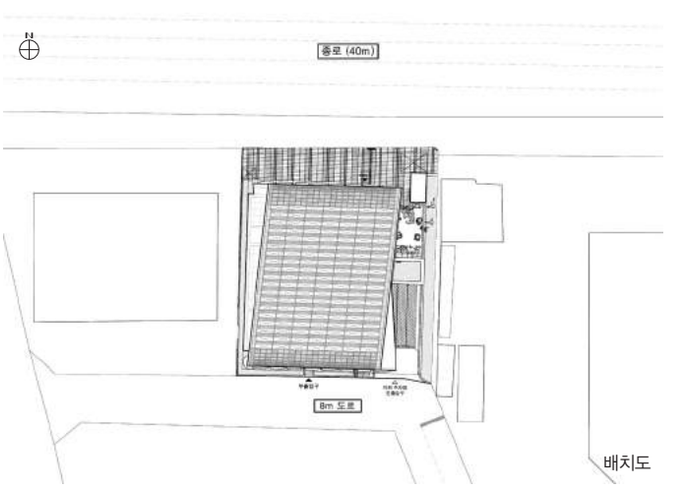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 | Changminwoo Structural Consultants

Electrical Engineer | Han-il MEC

Civil Engineer | Chungah Engineering co., Ltd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 Granite, Water paint
Exterior_ AL, Low-E glass, Green Mar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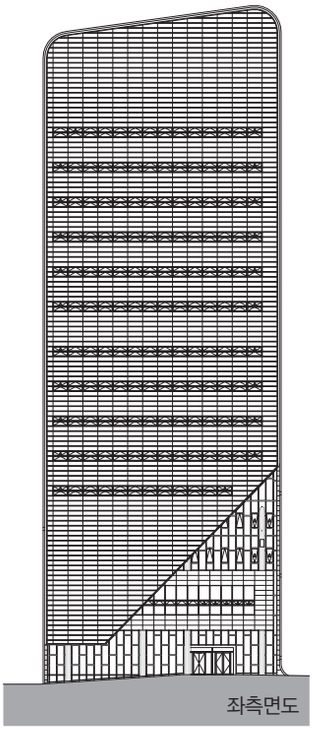
행정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춘 한국 거주 외국인 종합기관인 글로벌클러스터링 빌딩의 계획은 급변하는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 구성과 함께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수용하는 기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에 주목하였다.
건물의 전체 형상은 자연과 도시, 인간과 문화의 소통을 상징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종로와 청계천로 사이의 입지를 고려하여 보행자들에게 개방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합리적인 외피시스템의 도입과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은 건물의 경제적인 관리와 지속성을 보장한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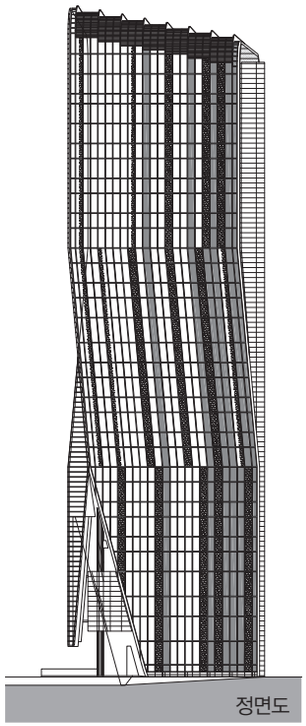
대로에서 바라본 전경

우측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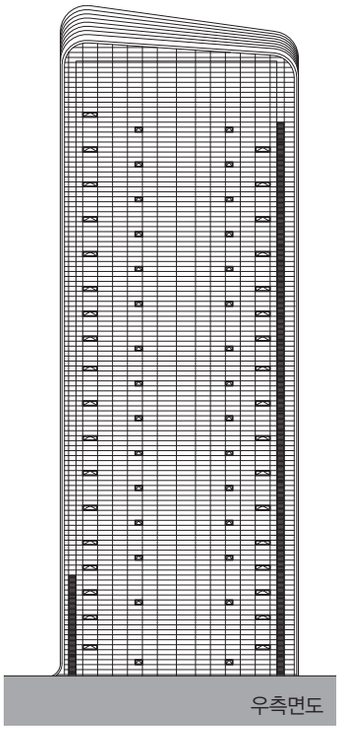


좌측면도

0 2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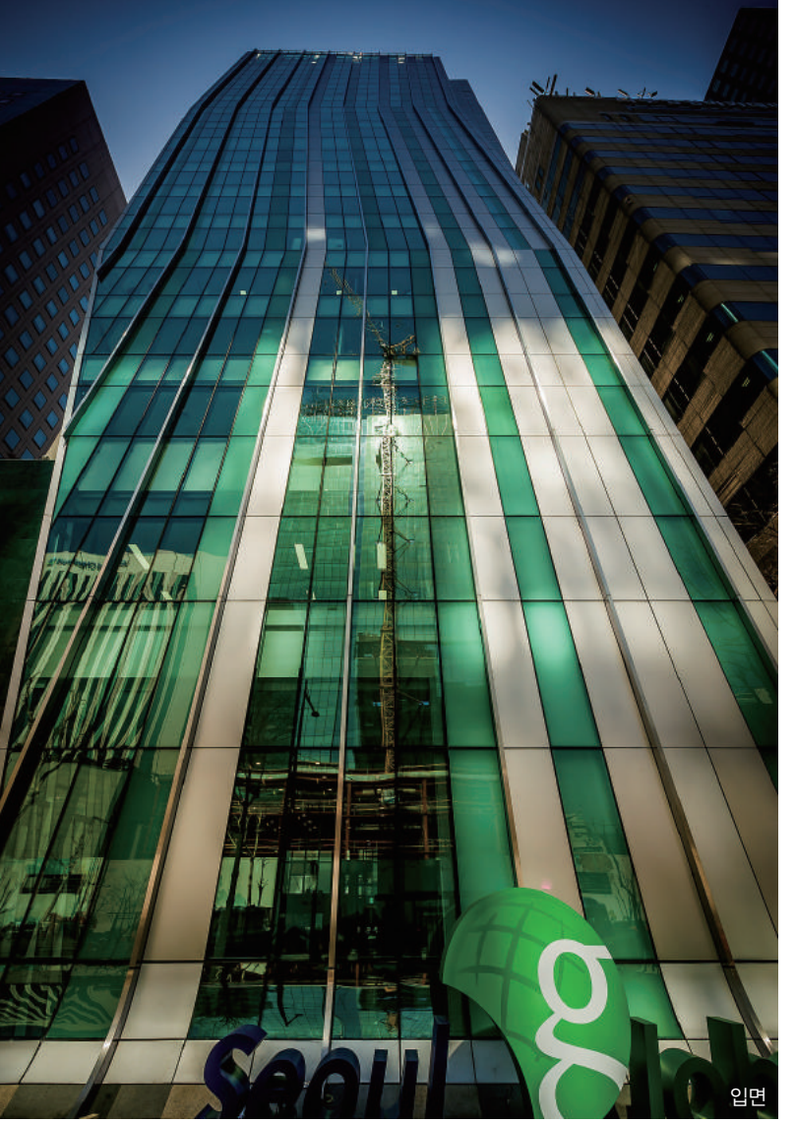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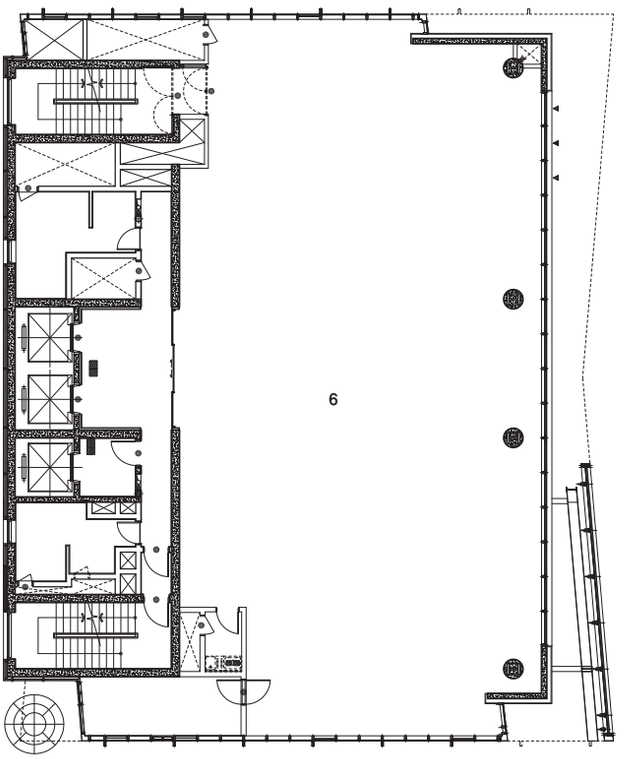
로비

현관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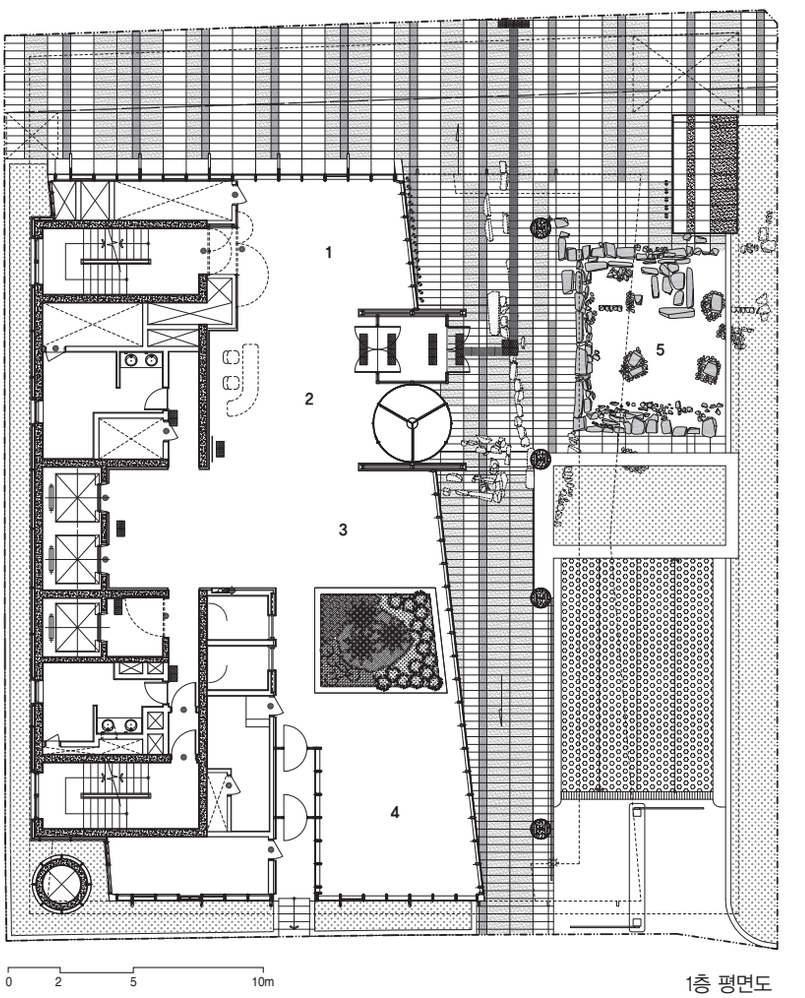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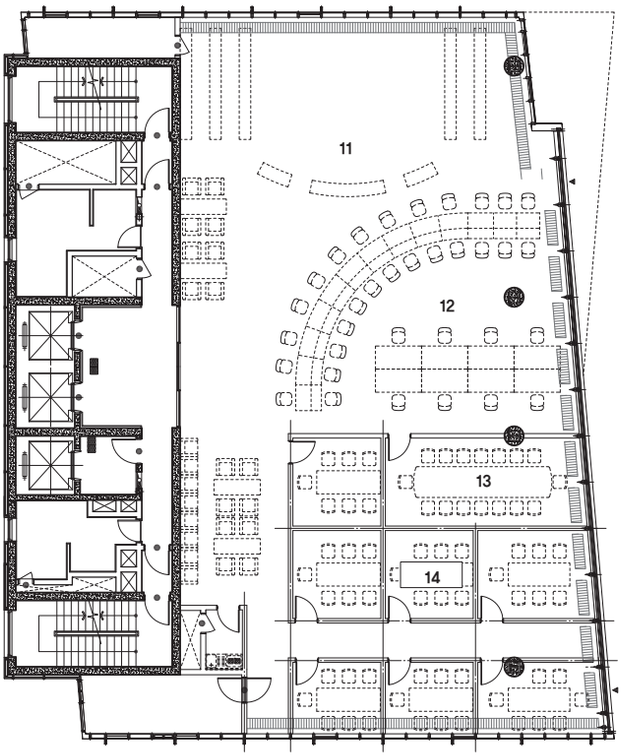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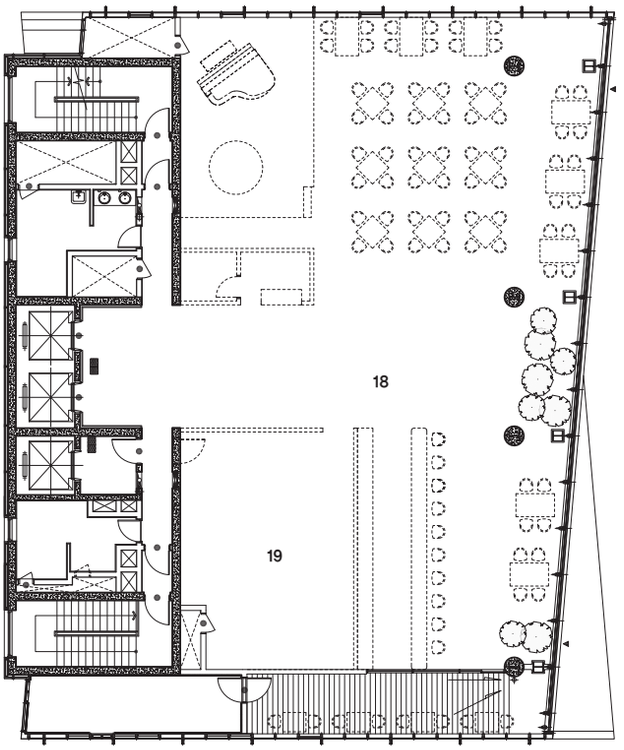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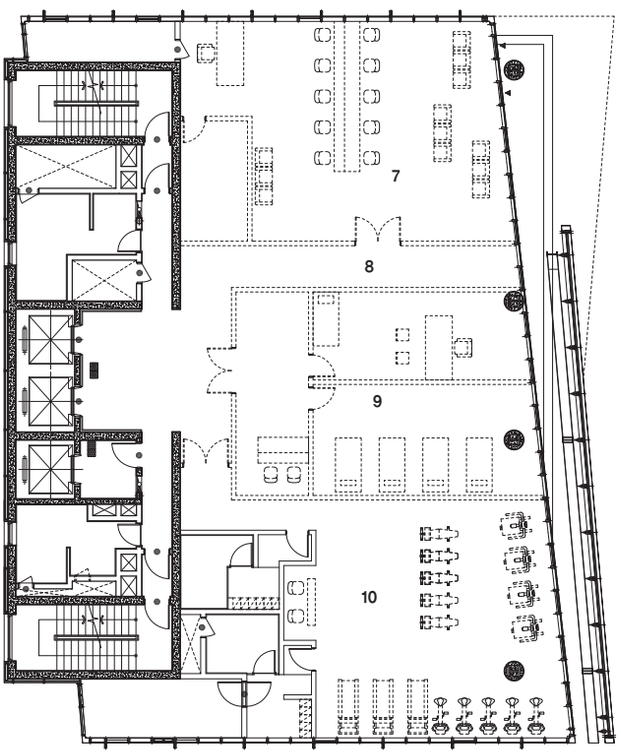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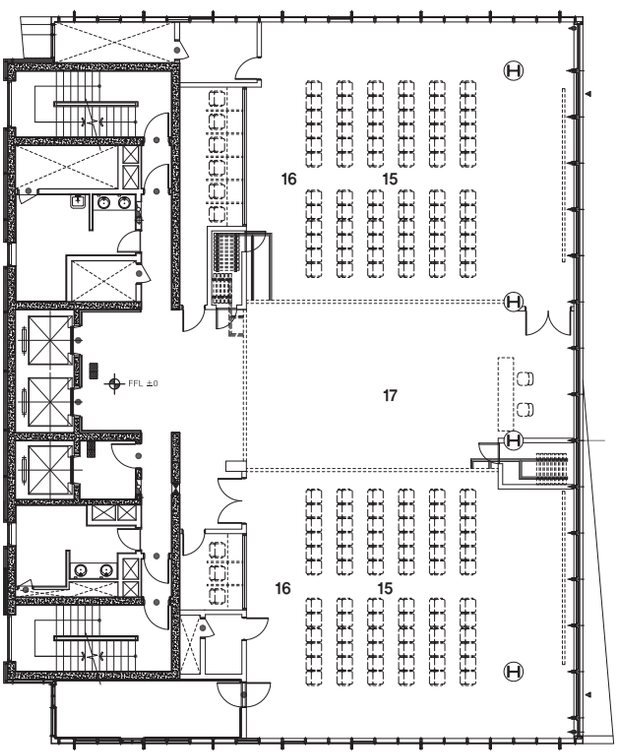


15층 평면도

1. 전시실
2. 로비
3. 관광정보센터
4. 어린이 놀이공간
5. 주거지 터 이전설치
6. 출입국 관리사무소
7. 은행
8. 복도
9. 메디컬센터
10. 체육시설
11. 글로벌센터 홀
12. 사무공간
13. 회의실
14. 상담실
15. 국제회의실
16. 통역실
17. 국제회의실 홀
18. 스카이라운지
19.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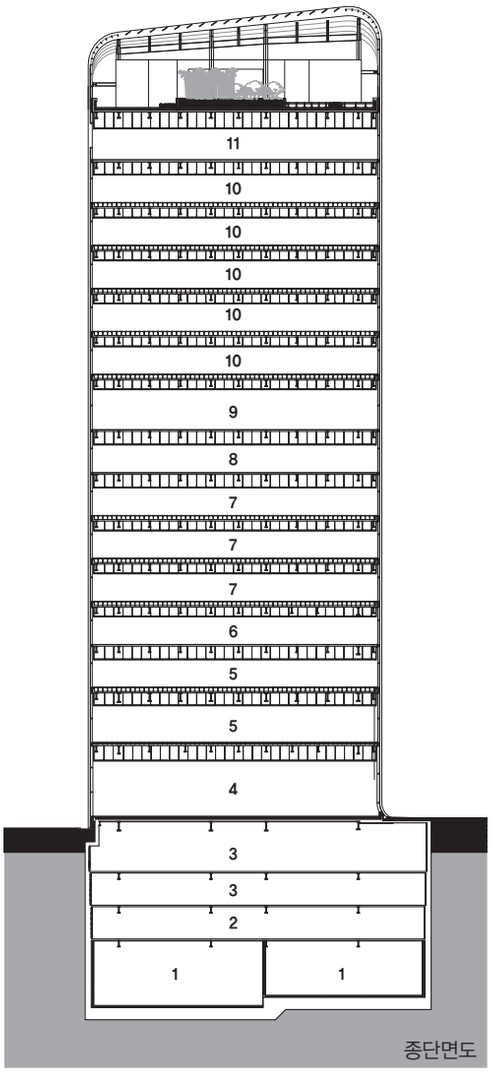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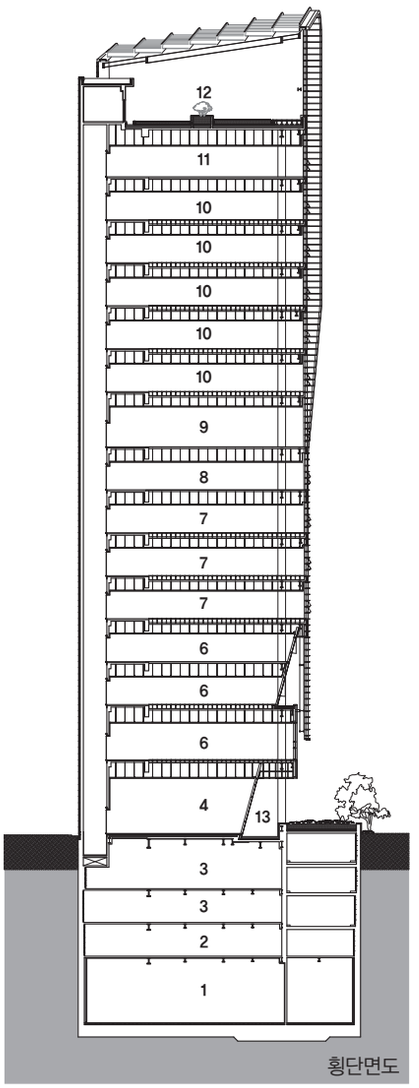
9층 평면도

옥상정원

강연실



1. 기계, 전기실
2. 부설주차장
3. 공영주차장
4. 로비&관광정보센터
5. 출입국관리사무소
6. 편의시설/상업공간
7. 글로벌센터
8. 도서관
9. 국제회의실
10. 상공회의소
11. 스카이라운지
12. 옥상정원
13. 옥외보행로



동국제강 사옥
FERRUM TOWER(DONGKUK STEEL MILL HEADQUARTER OFFICE)

설계자 | 김태집_KIRA |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간삼건축을 이끌고 있는 건축사이자 경영인이다. 오랜 경험과 뛰어난 감성,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김태집 사장의 철학은 간삼건축을 최고의 건축 디자인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 LIG 사천연수원,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 동국제강 페럼타워 등의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설계자 | 김태성 |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김태성 본부장은 창의적 디자인으로 다양한 조건에 대응하는 Value Creator로서 늘 새롭고 실험적인 설계를 추구한다. LIG 사천연수원, 춘천창작개발센터, KAIST KI 빌딩, 한국교직원 공제회관, 대구EXCO, 한화골든베이 골프 앤 리조트 등의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 설계팀 : 임은규, 김철균, 정치순, 박상수, 장성문, 김효준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우람구조엔지니어링, ㈜ 한빛구조엔지니어링
  - 기계분야 : ㈜노스타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세진전기연구소
  - 토목분야 : 시지이엔씨㈜

건축주 | 동국제강

시공사 | ㈜GS건설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66번지(을지로 2가구역 12지구)

주요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3,749.4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069.81㎡

연면적(Gross Floor Area) | 55,694.6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5.20%

용적률(Floor Area Ratio) | 1,00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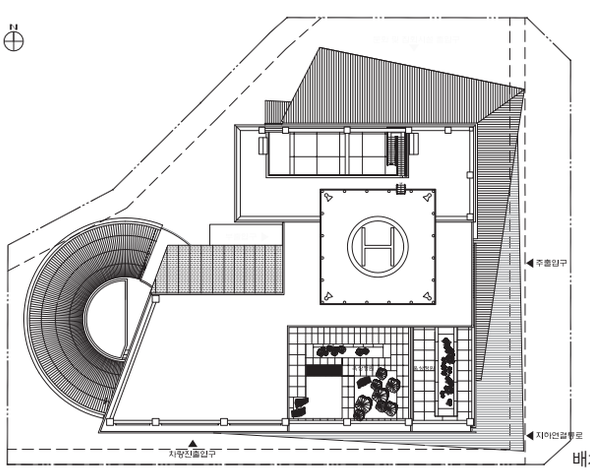
규모(Building Scope) | B6 – 28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T24 파스텔로이복층유리(고층부), T34 투명로이복층유리(저층부),
T3 알루미늄 쉬트/알루미늄 루버
내부마감_바닥–OA FLOOR / 카펫타일, 벽– 석고보드 / 유니온스틸패널(Luxteel),
천장–경량철골천정틀(T&H BAR) / T15 암면흡음텍스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6. 11. ~ 2008. 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8. 5. ~ 2010. 7.



배치도

Client | Dongkuk Still Mill Co., Ltd.

Architect | Kim, Tai-jip / Kim, Tae-sung

Project team | Lim, Eun-gyu / Kim, Cheol-gyun / Jung, Chi-sun
Park, Sang-su / Jang, Sung-mun / Kim, Hyo-jun

General Contractor | GS Construction

Location | 66, Suha-dong, Jung-gu, Seoul (Euljiro-2-ga zone, sector 12)

Structure | R.C, S.C

Structural Engineer | Wooram Engineering, HANBIT Engineering

HVAC & Electrical Engineer | Northstar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Sejin ELEC.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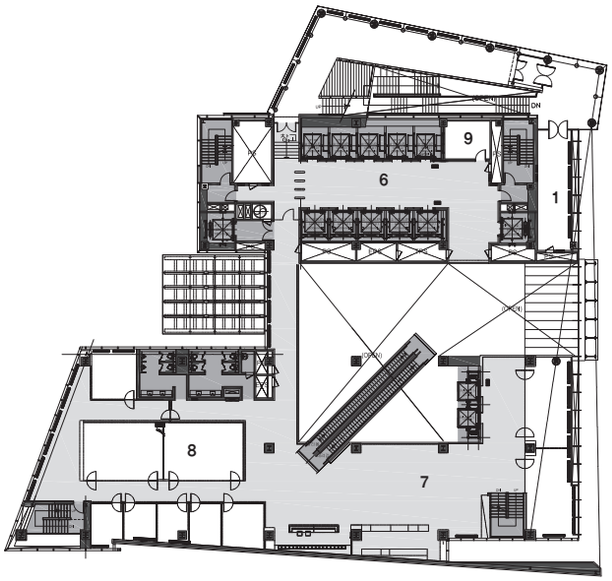
Civil Engineer | C.G. Engineering & Consulting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 Floor-OA FLOOR/ carpet tiles, wall- common gypsum boards / Union Panel, ceiling-lightweight steel structure ceiling frame (T&H BAR) / T15 rock wool sound absorption tex
Exterior_ wall-T24 pastel low-E double layered glass (upper levels), T34 transparent double layered glass (lower levels), T3 aluminum sheets/ aluminum louver

을지로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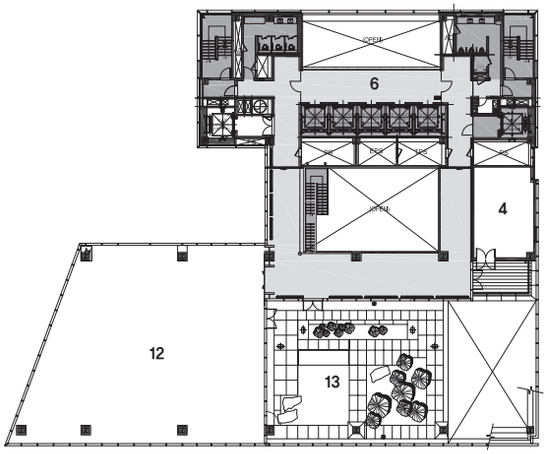
저층부 야경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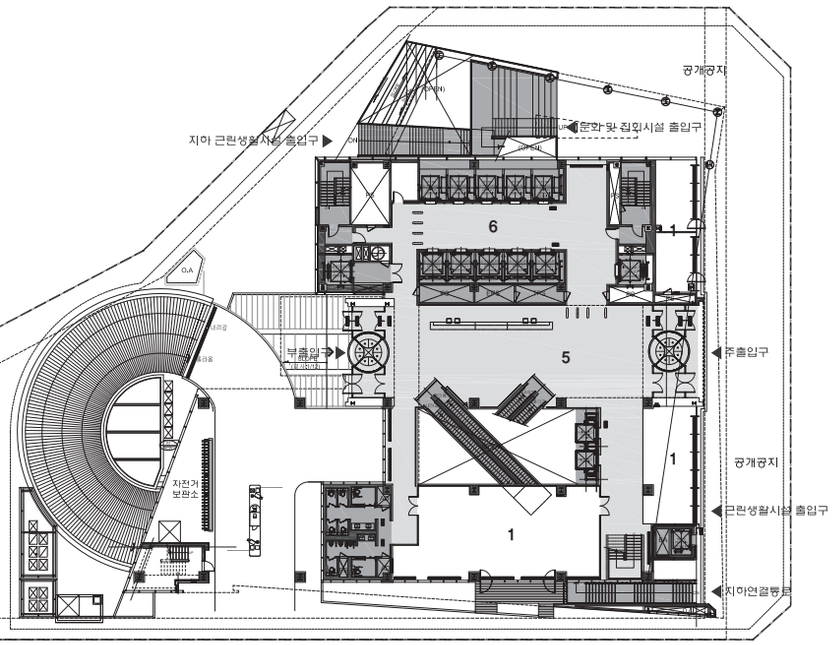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 근린생활시설
2. 방재센터
3. 선큰
4. 공조실
5. 로비
6. ELEV. 홀
7. 홀
8. 제2종근린생활시설
9. 전시실
10. 강당
11. 문화 및 집회시설
12. 업무시설
13.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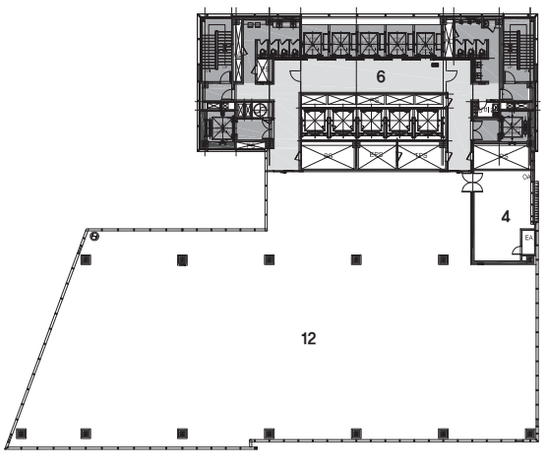
2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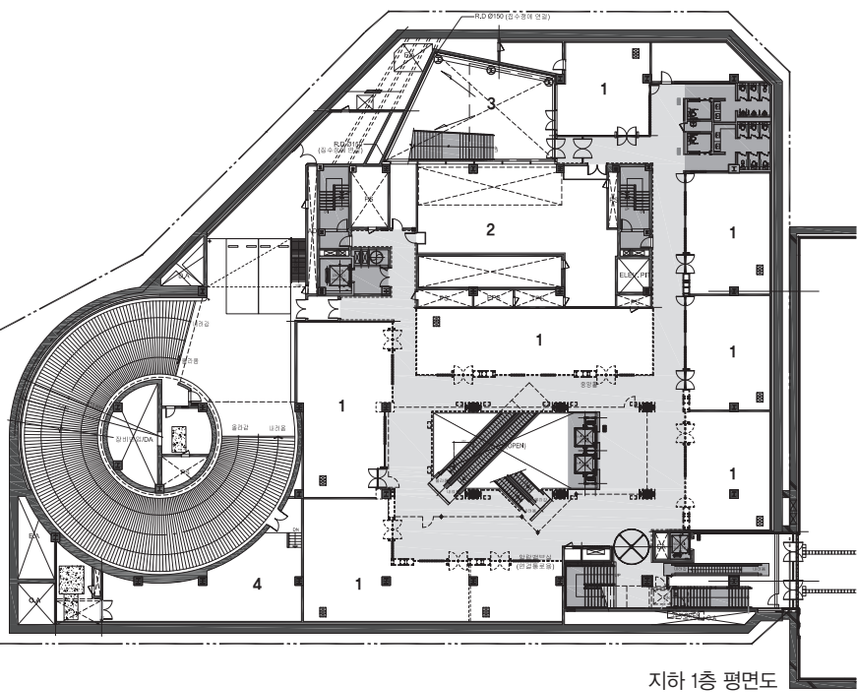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8M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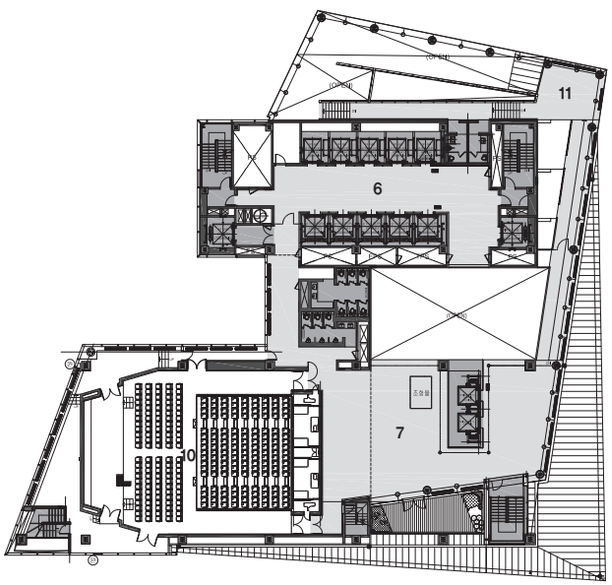
15M 도로



5~1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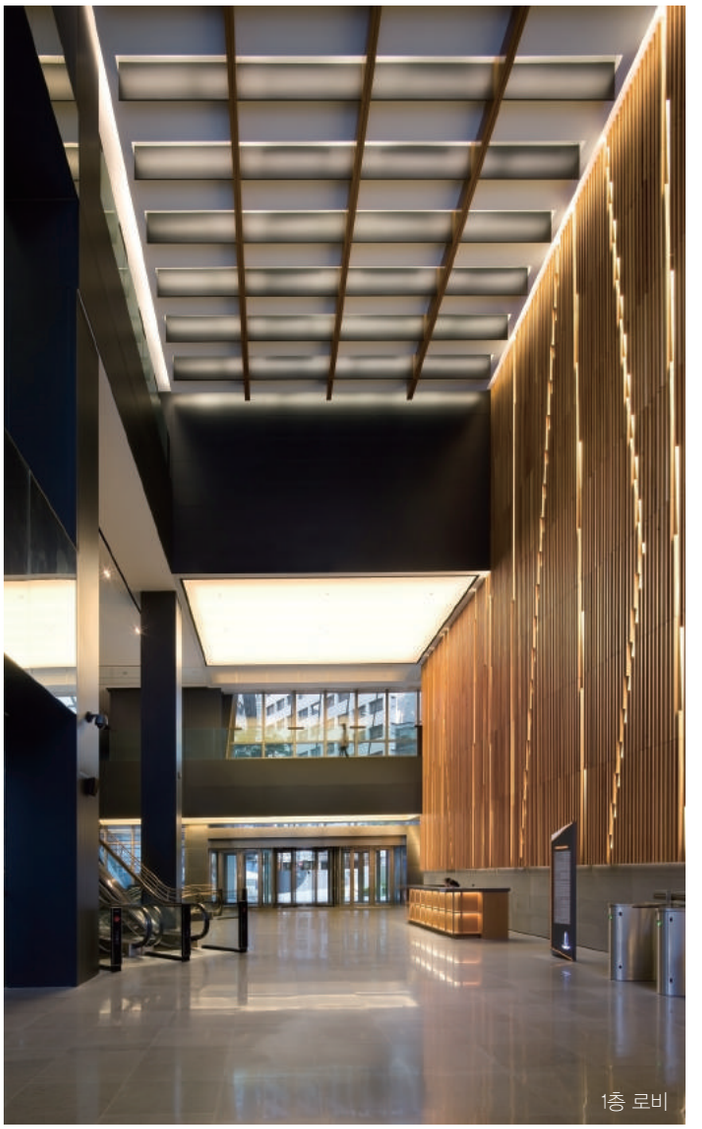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종로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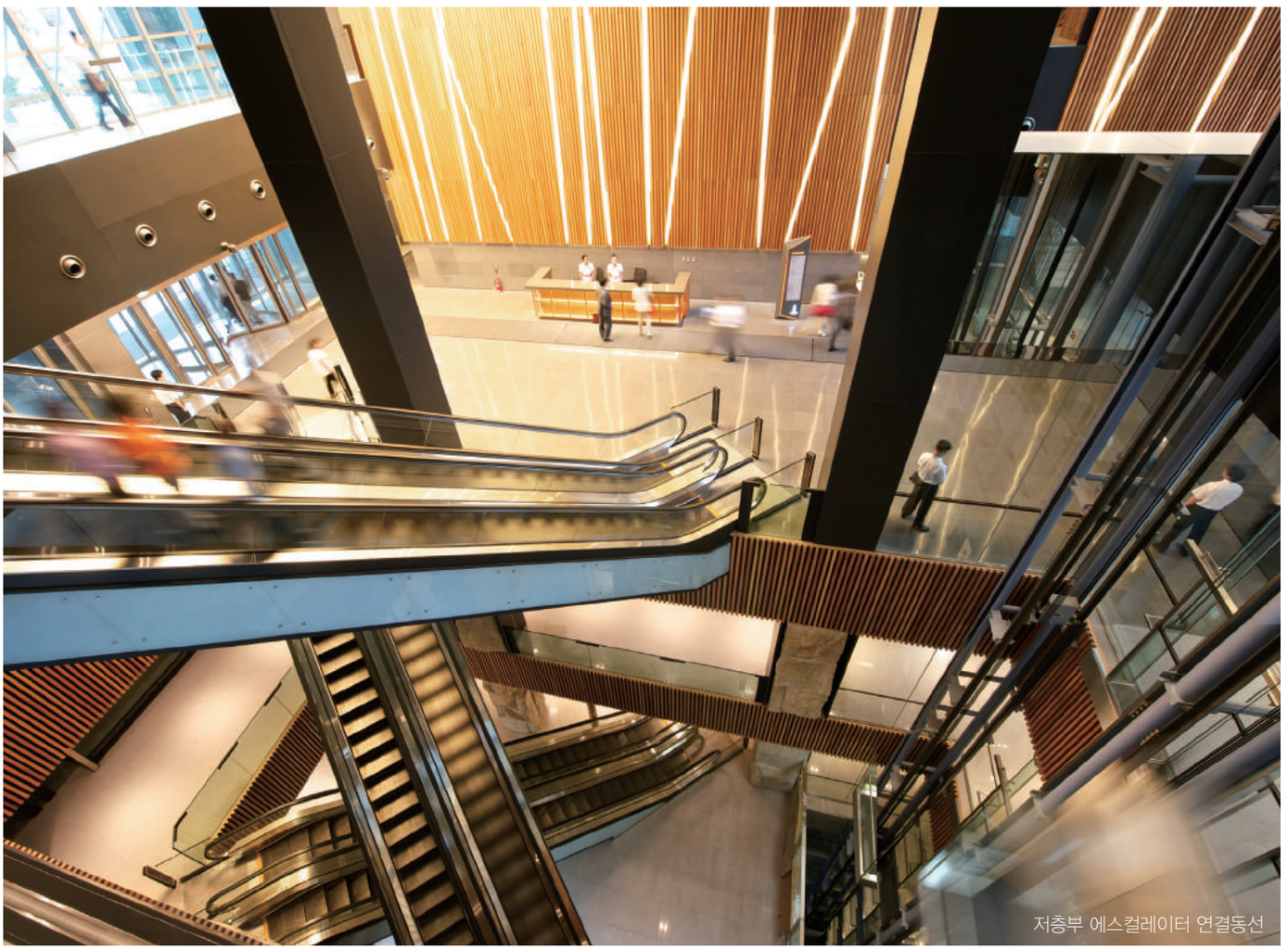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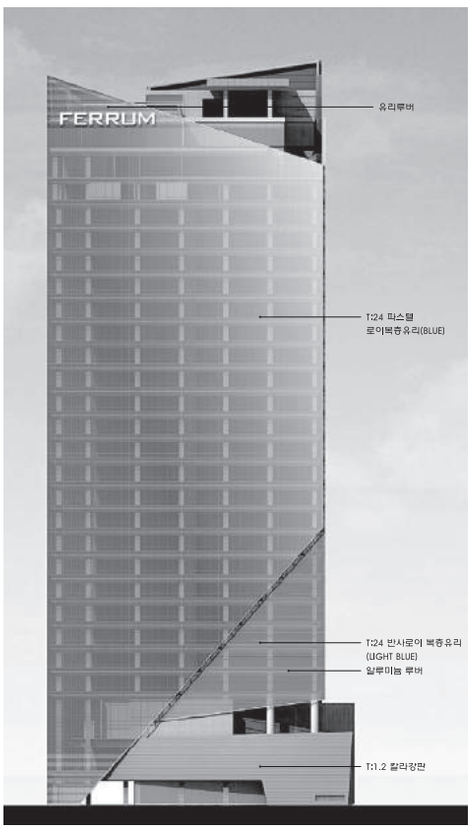
Ferrum Tower가 들어선 을지로 부지는 1974년부터 줄곧 동국제강의 구사옥이 서 있던 곳이다. 동국제강은 그 자리에 있던 초등학교 건물을 단 한차례의 리모델링만 한 뒤 33년 동안 본사 사옥으로 사용해 왔다. 동국제강은 2007년 청계천 복원과 함께 을지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마침내 사옥의 신축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국제강은 대치동 유니온스틸 사옥으로 이주하였고, 3년 후 2010년 6월 신사옥인 Ferrum Tower가 완공되어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이 함께 신사옥에 입주하게 된 것이다.

페럼타워는 공사비 약 1천200억 원을 들여 지상 28층, 지하 6층 규모로 세워진 첨단빌딩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 성장을 상징하는 수정체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되었다. 이 건물의 외형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형상을 가짐으로써 다양하고 역동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그 형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빌딩명칭 페럼타워의 '페럼(Ferrum)'은 라틴어로 '철'을 의미하며, 원소기호 'Fe'는 여기서 유래되었다.

오피스건축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의 효율성 못지않게 내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간삼건축의 디자인 철학은 Ferrum Tower의 설계에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오피스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이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쾌적하고 자연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건물 설계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었다. 페럼타워는 일반적으로 2.7m인 천정고를 2.8m로 높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했으며 건물의 외장에는 동국제강 계열사인 유니온스틸이 만드는 최첨단 자기세정 불소수지강판이 외장에 적용돼 스스로 먼지를 씻어내는 기능을 갖춤으로써 사시사철 잘 정돈된 건물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용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좀더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층용 5대(분당 180m), 고층용 5대(분당 300m) 등 15대의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층용과 고층용 승강기는 16층에서 환승이 가능하고, 지상 19층 이상은 외부조망이 가능한 쉼터를 설계하여 빼어난 북한산 전망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간삼건축의 건축철학은 지하 2층~지상 3층을 공용공간으로 개방하고 건물 진입통로를 4곳으로 해 다양한 진입 동선으로 부터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내부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지하 1~2층에 고급화, 차별화된 전문식당가를 구성하고 내부 직원이 외부인을 접견할 경우에는 2층 마련된 별도의 비즈니스센터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3층 페럼홀(강당)은 270석 규모에 동시통역시스템, 수납식 전동의자 등을 구비하여 웬만한 규모의 국제회의도 수용가능토록 계획되었다. 또한, Ferrum Tower는 2호선 을지로입구 지하철역에서 바로 지하 연결통로로 연결되며, 대규모 자전거 보관소와 샤워 시설을 지하 2층에 설치하여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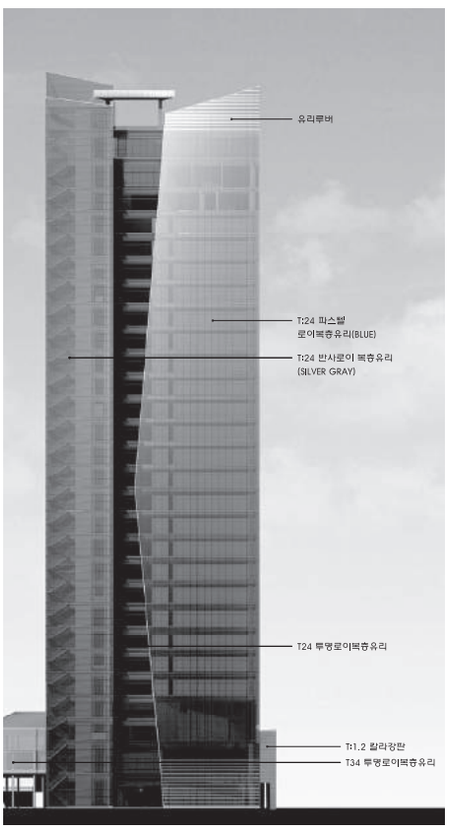


저층부 에스컬레이터 연결동선



남측면도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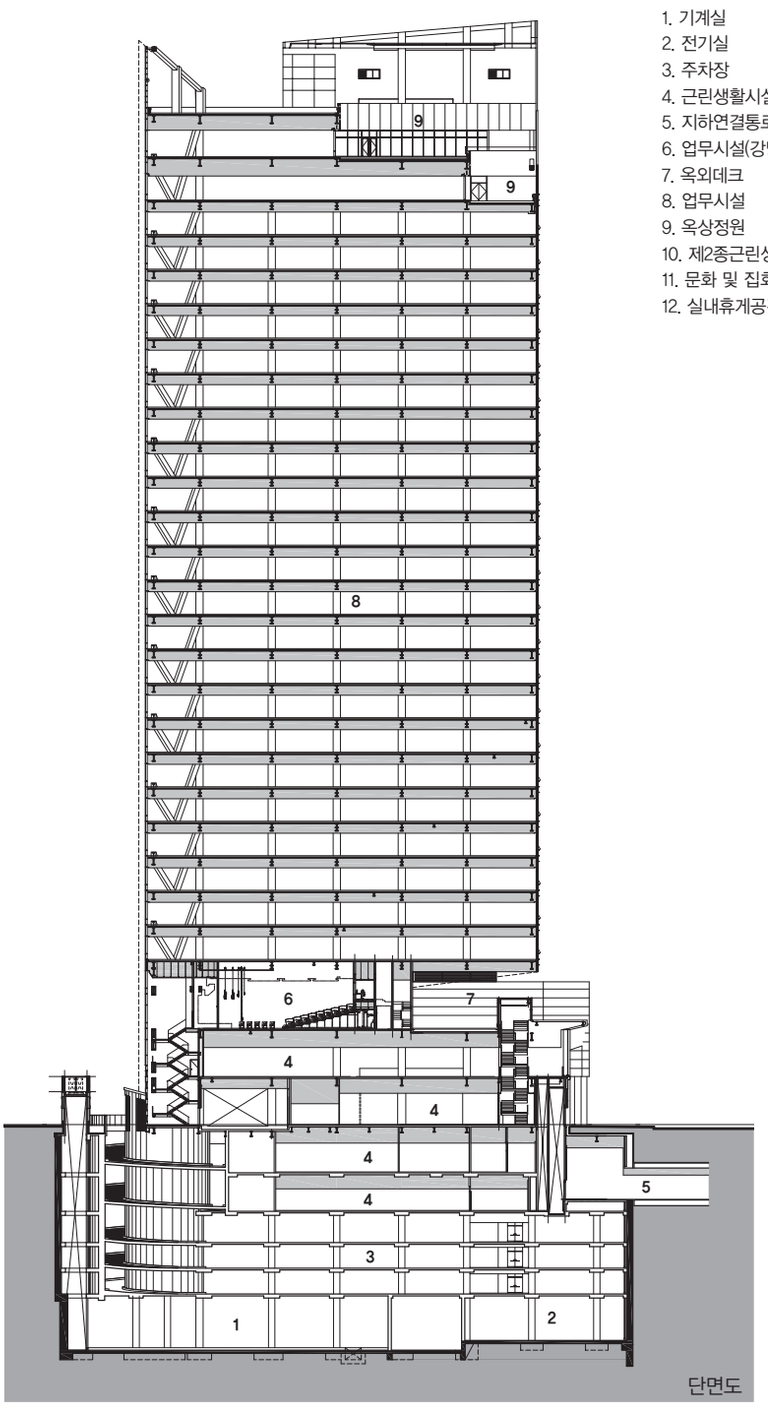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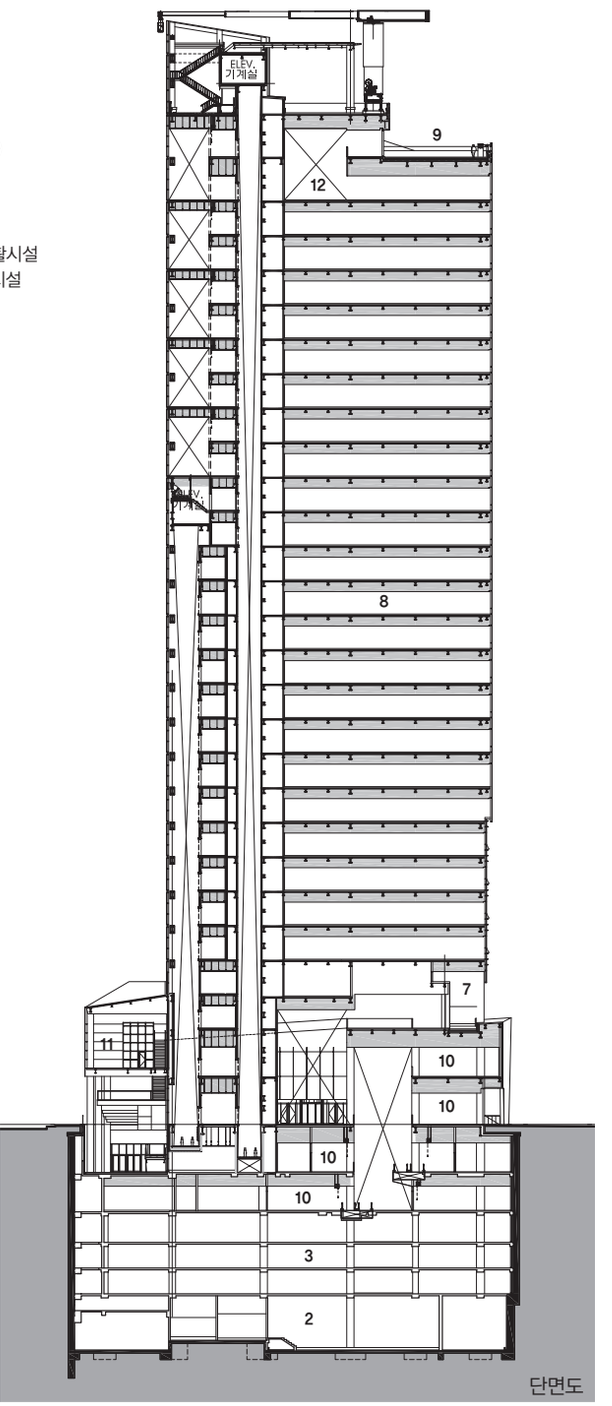
2층 전시공간

27층 휴게공간

1. 기계실
2. 전기실
3. 주차장
4. 근린생활시설
5. 지하연결통로
6. 업무시설(강당)
7. 옥외데크
8. 업무시설
9. 옥상정원
10. 제2종근린생활시설
11. 문화 및 집회시설
12. 실내휴게공간



단면도



단면도

3층 강당 전면홀

3층 대강당

집합건물관리단의 성립 및 권한행사

Establishment and Enforcing Authority of Aggregate Building Management Group

성승환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1) C상가의 지하층부터 3층까지는 각각 구분된 호실별로, 4층과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각각 등기를 마쳤는바, 지하층 및 1, 2층에 관하여는 그 안에 있던 구분건물들을 나누는 격벽이나 구분시설이 철거되었다.

(2) C상가의 소유자들은 층별 소유자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6개 층별로 선정된 대표자들이 C상가의 유지 · 관리를 담당하는 C상가번영회(이하 '원고')를 구성하였고, 회칙 및 관리규약을 작성한 후 그 회칙에서 각 층별 대표자들로 상가번영 임원회의를 구성하여 건물관리에 대한 모든 안건을 심의 · 의결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C상가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바, C상가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원고가 C상가의 유지 · 보수를 비롯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의 요지

(1)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다(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법 부칙 제5조 참조). 마찬가지로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위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37조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제1항),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3. 판례 평석

대법원은 이 사건 지하층 및 1, 2층 부분 안에 있던 구분건물들을 나누는 격벽이나 구분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구분건물별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어 구분소유권이 소멸되고 공유관계로 변경될 것이지만 이에 불구하고 3층 내지 5층에 위치한 구분건물들과 이 사건 지하층 및 1, 2층 부분을 포함한 C상가는 집합건물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지하층 및 1, 2층 부분의 경우 다른 구분건물들과 달리 공유관계에 있는데 위와 같이 층별로 구분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서는 그와 같은 구분의사 하에 층별 공유관계를 대표하는 층별 대표자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에서 본 공유인 구분건물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정한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부합되며, 3층 내지 5층 부분의 경우에도 층별로 선정된 대표자들에 의하여 원고를 구성하는 방식의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층별로 구분해서 C상가를 관리하고 있던 C상가의 구분소유권자 및 공유지분권자들에 의하여 정하여진 층별 대표자들의 합의에 따라 회칙 및 관리규약을 정하여 C상가의 관리방법을 조직화하는 것도 구분소유권자 및 공유지분권자의 총의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층별 대표자들이 층별 구분소유권자나 공유지분권자들에 의해 선출되었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 층별 대표자가 되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구성되어 C상가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는 C상가의 유지보수를 비롯한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다41078, 원고 패소)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건축과 함께하는 시로 지은 집

House created by a poem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한서대 겸임교수

게재순서

총론
집터
고향집(生家)
집짓기
집과 가정
일상과 회상
빈집
동물의 집, 식물의 집
상상의 집, 영혼의 집
아파트

각론
지붕
기둥
벽
문
창
방
마루
처마
굴뚝
계단
담장

※주기 : 시에 있어서 /는 줄바꾸기, //는 연바꾸기, ///는 전략, 중략, 후략 시 사용.

동물의 집, 식물의 집

알껍질을 뜯어 먹는다 방금 나온 애벌레가 껍질을 깨고 나오자마자 놀라운 식욕으로, 그동안 나를 품어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품어주마. 자신이 뛰쳐나온 집을 하나도 빠짐없이 오물오물 뜯어 먹는다 / 애벌레의 몸속으로 통째로 들어간 집, 애벌레의 몸속으로 곰실곰실 기어 다니다가, 더듬이를 쭉 내밀어보고, 양 날개를 활짝 펴보는 집, 알집 속에 수많은 새끼집을 짓고 눈을 감으리라 그렇게 집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는 집의 처소가 되어 살다 가리라 ///

–손택수[62]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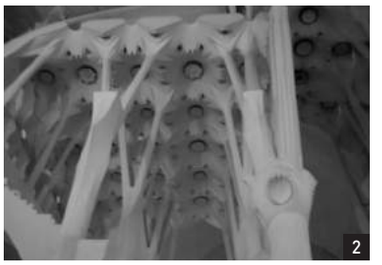
어서 어서 자라라 애벌레야 / 걸리적거리는 저 잎사귀들 어서 먹어치워 / 사랑은 잎사귀란다 /// 어서 어서 날개를 달아라 애벌레야 /// 내 애인의 집은 너무 높단다 / 그러니 너는 날개를 달아야 해 날아올라야만 해 / 저 구름 위의 집, 말랑말랑한 내 애인의 집에 / 나는 언제쯤 당도할까 /// 나는 상상한다 애인의 집에, 구름 위에 / 꽃밭을 만들어 놓을까 / 나비 한 마리 날려 보낼가 ///

–이나명[63] '구름 위의 집'

텃새들은 물론 제비 같은 철새도 나뭇가지와 풀로 집을 짓는다. 나비도 날개를 달기 전에는 고치란 집 속에 있다. 처음 알에서 부화하여 자신이 나온 알껍질을 먹는 애벌레를 보며, 시인은 '그렇게 집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는 집의 처소가 되어 살다가련다'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애벌레가 나비되고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한다. 부조리한 인간 사회를 거미집을 빗대 파헤치기도 하고 사과상자가 사과의 집이 되어, 부조리로 짓밟힌 꿈에 아우성을 치기도 한다.

건축사들도 동물과 식물을 소재로 한 집들을 설계한다.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에 있는 쿤트하우스는 외계인의 집이란 별명이 붙기도 하지만 복어 같기도 하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외관도 그렇지만 특히 내부는 가지가 있는 나무와 꽃을 그대로 구조와 마감에 응용하였다. 적당히 쌓아놓은 사과상자를 연상하게 되는 건축도 있다.

62) 담양. 「호랑이 발자국」
63) 강원 원주. 「그 나무는 새들을 품고 있다」, 「왜가리는 왜 몸이 가벼운가」



1. 쿤스트하우스 그라츠(Kunsthaus Graz) 오스트리아. 해삼이나 복어 같기도 한 피터 쿡의 작품. 예술회관으로 쓰인다. 사진출처:건축콘서트(박영태)에서 전사
2. 가우디(Gaudi)의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ilia) 내부. 가지가 있는 나무와 꽃. 가지는 장식이 아닌 구조재다.
3. 새둥지 모양의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4. 외구로카와 기쇼의 나가킨 캡슐타워. 사과상자를 쌓아놓은 것 같다.

거미는 몸을 풀어 선을 만들고 / 발자국도 없이 선 위를 오가지만 / 한 번도 줄에 걸리지 않는데 / 나는 아니었다 / 내가 만든 인연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 거미는 가로세로 선을 엮어 / 소리 없이 면을 만들지만 / 사각형의 함정에 빠진 적이 없는데 / 나는 아니었다 / 내가 만든 벽 안에 머무는 시간이 / 지난밤 울부짖던 태풍에 / 콘크리트 전봇대가 한쪽으로 쓰러졌어도 / 가늘게 떨리던 거미의 집은 / 무너지지 않았다

–송종찬[64] '거미의집'

어느 저문 날 / 어느 후미진 뒷거리를 지나다가 /// 잘 익은 사과의 금빛 나는 시간을 쏟아버린 / 빈 사과상자의 벽을 보았다. / 한 백 개나 이 백 개쯤으로 쌓아올린 / 빈 사과상자들의 / 허기진 아우성을 들었다 / 속을 다 빼앗긴 껍데기들의 아우성이 / 속을 다 빼앗긴 내 속을 울리고 / 상한 사과들이 내 속에서 / 독하게 발효하여 / 내 생을 산화(酸化)시키고 있었다 /// 아직 덜 익은 꿈도 상자에 갇혀와 / 헐값으로 팔려나갔으리 / 온전한 꿈도 꿈끼리 부딪혀 상해서 버려졌으리 / 와중에서도 끝까지 온전한 꿈들은 / 또 어느 탐욕스런 이빨들에 / 아삭아삭 씹혔으리 ///

–김여정[65] '사과들이 사는집'

상상의 집

저녁의 목수인 별이 집을 짓는다 / 송글송글 맺힌 이마의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 거미처럼 착 달라붙은 채 제 몸의 황금빛 실을 / 뽑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린다 // 기둥하나 세울 한 평의 흙도 없는 허공에 / 저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있다니 // 그러나 그 집은 입주를 희망하는 자의 눈빛 속에 지어진다 / 눈빛은 저녁의 목수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토지이다 /// 저녁의 목수인 별이 또다시 집을 짓는다 / 입주를 희망하는 자의 귀에만 들려오는 / 저 뚝딱 뚝딱 못 박는 소리 / 저 쓱싹 쓱삭 톱질하는 소리.

–함명춘[66] '저녁의 목수인 별'

울산바위 꼭대기에는 / 별들의 집이 있다 /// 어느 날 집 떠나/ 해지고 어두우면 // 그곳에 가 자고 싶다

–이상국[67] '민박'

어릴 적 여름방학 때, 모깃불 피워 놓고 밀짚방석에 누어 하늘을 보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이 철렁대는 별들, 그 별들을 연결하다보면 북두칠성은 국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오각형 집이 되기도 하였다. 그 아름다운 정경을 보고, 그리는 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눈빛 속의 집, 설악산 울산 바위에 별들의 집이 있다면 건축사는 바위 틈새에 집을 짓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낭만 속에 머물고 싶은 것은 마음뿐, 오늘과 같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겪는 정신적 혼란은 현대인에게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오기에 이도 저도 아닌 사이 속 막막한 허공에 집을 세운다.

비어 있는 곳에(空間) 비어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건축이다. 노자(老子)는 말한다. '문과 창으로 만든 방은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방으로 쓸모가 있다.'

맥주병과 오프너 사이, 깡통과 깡통 따개 사이, 대구와 대구포 사이, 땅콩과 땅콩 껍질 사이, 거기가 내 자리일까. /// 신념과 타협, 정의와 불의, 진실과 허위, 그리고 양심과 훼절 사이, 거기 웅크리고 있는 남루 하나.

그리고, 다시 image와 symbol, metaphor와 irony, alegory와 paradox 사이, 시와 시론 사이, 백묵과 지우개 사이, 컴퓨터와 프린터 사이, 온라인 통장과 급여 명세서, 윤군과 김군 사이, 그 막막한 허공에 세운 작은 집 하나.

–이건청[68] '境界人의 집'

내 귓속에는 막다른 골목이 있고, / 사람 사는 세상에서 밀려난 작은 소리들이 / 따각따각 걸어 들어와 / 어둡고 찬 바닥에 몸을 누이는 슬픈 골목이 있고, /// 얼어터진 배추를 녹이기 위해 / 제

64) 1966. 고흥. 「그리운 막차」
65) 1933. 진주 「바다에 내린 햇살」, 「사과들이 사는집」 외
66) 1966. 강원 춘성.
67) 1946. 강원 양양. 「동해별곡」, 「뿔을 적시며」, 「국수가 먹고싶다」 외
68) 1942. 경기 이천. 「굴참나무 숲에서」, 「반구대 암각화 앞에」

1. 카사 도 페네도의 바위집–포르투갈
2. 바하이교의 연꽃 사원(Lotus Church)– F.Sahba 인도. 뉴델리
3. 달팽이집–불가리아소피아
4. 내려앉는 새 모양의 밀워키 예술관(Milwaukee ArtMuseum)–미국 위스컨신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S.Calatrava
5. 돌고래 모양의 이나 소피아 예술궁전 –스페인 발렌시아
6. 타지마할은 죽은자의 안식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다

한 몸 기꺼이 태우는 / 새벽 농수산 시장의 장작불 소리가 있고 /리어카 바퀴를 붙들고 늘어지는 / 빌어먹을 첫눈의 신음소리가 있고 / (약) 한 땀 한 땀 나를 꿰어내던 / 겨울비의 따가운 박음질 소리가 있고 /// 내 귓 속 막다른 골목에는 / 소리들을 보호해주는 작고 아름다운 / 달팽이 집이 있고, / 아주 가끔 / 따뜻한 기도 소리가 들어와 묵기도하는 / 작지만 큰 세상이 있고.

–고영[69] '달팽이집이 있는 골목'

시인들에겐 귓속 달팽이관도 집이 되고 골목이 된다. 삶의 고달픈 소리뿐 아니라 따사로운 기도소리로 삶을 북돋우는 집 그리고 정차하지 않는 간이역은 지나치고 잊혀지는 시간 위의 집이다. 기차는 이 간이역에서 서지 않는다 / 오직 지나쳐지기 위해서 있는 낡은 역사 / 무언가 우리 생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표시 / 시간 위의 집

–김진경[70] '시간 위의 집'

영혼의 집

그대 떠날 때 / 내 가슴 반은 무너지고 / 남은 가슴 반에 그대를 묻었으니 / 나는 그대의 집이노라 / 살아서는 멀리 헤어져 서로 떠돌고 / 한구석 문고리 잠겼던 마음 / 죽어서 남김없이 다 풀어 놓았으니 / 무시로 빈 가슴 문 열고 들어와 편히 쉬어라 / 그 산골짜기 외진 길 굽이 돌아가면 / 그대 먼저 가서 터 닦아 세운 집 / 우리 생애 마지막 집 한 채 거기 있으니 / 내 희망 또한 거기 쉬리라 / 무너진 가슴 반은 이미 그곳에 있으니

–홍윤숙[71] '가을 이별'

경복궁 경회루 –외진, 내진, 내내진의 3중 구획으로 된 2층, 문을 열면 모두 한 공간이 된다.

삶은 언제나 죽음을 동반한다. 죽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은 '한구석 문고리 잠겼던 마음'까지 풀어 놓는다. 마치 분합문을 열어 올리면 분리되었던 방과 대청마루가 한공간이 되는 한옥과 같다.

사랑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이다. 연인을 그리며 그와 함께 하고픈 애절한 노래들이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진다.

이 넓은 세상 / 우주 한 가운데에 / 수많은 무리가운데서 / 그대라는 이름의/ 마음하나 새겨두고 / 이토록 가슴 아파하는 것은? / 하늘의 별, 아득하기 때문인가 / 지상의 바람, 흔들림 때문인가 / 아, 신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 내 슬픈 영혼의 집이여!

–이영춘[72] '영혼의 집'

너는 빈집 같다 / 한 번도 사람이 살아본 적 없는 / 이제 막 허공중에 세워진 아파트의 방 한 칸 / 나는 거기에 도배를 하고 / 아름다운 가구를 들이고 싶다 / 벽에는 가득히 수족관을 세우고 / 바다를 띄우리라 / 베란다에는 망원경을 놓아 / 날마다 별들을 불러도 보리라 / 어느 먼별에 선 듯 / 너는 생각이 깊은 눈으로 / 나를 바라본다 / 거기서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 오라

–김용길[73] '너와 나 사이의 빈집'

너를 두고 나온다 /// 이제는 내가 나가고 없는 집 /// 이제야 비로소 나와 더불어 이불을 / 들쑤시며 뜬 눈으로 지새지 않아도 되는 집 / 몸에 마음까지 켜진 불 다 끄고 / 잠들 수 있는 집

–함명춘 '집'

먼 옛날 강화도에 살았던 어느 족장은 / 돌 세 개를 지상에 세워두고 사라졌다 / 두개의 굄돌 위에 수 십 톤의 넓적돌로 지붕을 올린 / 시간의 집 / 우직한 석공이 단단한 구릉에 돌을 심어 / 수천 년, 땅속깊이 뿌리를 내린 / 오래된 돌집에서 / 그를 만난다

69) 1966. 안양.
70) 1953. 충남 당진. 「갈무리의 아이들」, 「광화문을 지나며」, 「그림동화–목수들의 전쟁」
71) 1925. 평북 정주. 「마지막 공부」, 「내안의 광야」
72) 1941. 강원 평창. 「봉평 장날」, 「들풀」
73) 제주 서귀포. 「빛과 바람의 올레」

/// 들개처럼 벌판을 쏘다닌 다리 / 완강한 근육이 불거져있다 / 작살을 움켜 쥔 손가락, 물갈퀴가 돋아있다 / 짐승털을 두른 여문 어깨에 / 어둠을 노려보는 짐승의 눈알이 박혀있다.///토기와 석촉을 빚으며 돌이 된 손 / 벌판을 달리던 / 다급한 북소리, 뿔나팔 소리 / 개펄 위에 쓰러진 숱한 죽음도 헤아려 본다 /// 고분의 벽화 속에 살던 / 한 사내 / 수 천 년을 건너와 / 문짝 떨어진 돌무덤에 누워있다.

–마경덕[74] '강화 고인돌'

강화 고인돌

한국은 세계적인 고인돌 국가이다. 옛사람의 무덤인 고인돌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간다. 큰 고인돌일수록 세력이 큰 족장의 무덤. 이는 사자를 위한 건축물로 발전했다. 이집트의 피라밋, 고구려 장군총, 인도의 타지마할, 이 모든 것들이 무덤 건축이다. 하지만 빚에 쪼들려 한 가족이 모두 투신한 영랑호에는 시인이 지어준 물 속의 집도 있다. 석유부국의 수도 두바이에 건축한 수중호텔보다 더 아름다우리라.

두바이의 수중호텔 하이드로 폴리스 객실 투시도–아랍 에미리트

그해 겨울 영랑호 속으로 / 빚에 쫓겨 온 세른세살의 남자가 / 그의 아내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가던 날 / 미시령 넘어온 장엄한 눈보라가 / 네 켤레의 신발을 이내 묻어주었다 // 고니나 청둥오리들은 / 겨우내 하늘 어디선가 결 고운 물무늬를 물고 와서는 / 뒤뚱거리며 내렸으며 / 때로 조용한 별빛을 흔들며 / 부채를 청산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 인근마을까지 들리고는 했다 /// 그러나 그 애들이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하면 / 지금도 눈물이 나의 뺨을 적신다 // 그래도 저녁마다 / 설악이 물속의 집 뜨락에 / 아름다운 놀빛을 두고 가거나 / 산 그림자 속 화암사 중들이 / 일부러 기웃거리다 늦게 돌아가는 날이면 / 영랑호는 문를 닫지 않는 날이 많았다 // 그런 날 물속의 집이 너무 환하게 들여다보였다

–이상국 '물 속의 집'

아파트

서양 사람들은 한국의 아파트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들 한다. 삶의 질로 볼 때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제일 좋다. 다음이 2호나 4호 등 연립주택이고 아파트는 가장 열악한 형태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아래위층간의 소음이나, 공동정원 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행동의 제약을 감수하고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언제나 틀기만 하면 온수를 쓸 수 있고, 문만 잠그면 온가족이 해외여행을 하여도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우리의 단독주택지 면적은 넓은 땅을 가진 그네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기에 그들의 잣대로 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개발은 **'멀쩡한 집을 때려 부수고 / 빌라를 짓고 오피스텔을 짓는 서교동 '옛길'에서도'어떻게 용케 살아남은 벽오동 한그루'가 안쓰럽고 '담 모퉁이에 안쪽 옹색하게 서서/담벼락위에 꽂힌 쇠꼬챙이에 찔리며 / 가지는 얼마쯤 전 깃줄에 걸쳤지만 / 그래도 제빛갈로 푸른 벽오동**[75]'이 새삼 대견하여, 상처받은 인생도 이 벽오동에서 위로와 희망을 본다. 그렇지만 계획적인 재개발도 서민들의 아픔으로 다가온다.

/// 북아현동에는 천개의 빈집이 있다 / 천개의 지붕 위로 천개의 달이 지고 천개의 해가 떨어진다 / 천개의 낮과 밤이 생겼다가 무너져 내린다 / 천개의 하루가 하루아침에 살지고 천개의 아름다운 도착이 /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천개의 바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 이웃은 소식을 끊은 지 오래 누구도 이곳을 즐기지 못한다 / 가슴을 천갈래로 찢어놓았기 때문이다 / 한때 누구보다 이 골목을 잘 알던 개와 고양이 / 그림자도 얼씬하지 못한다 다리달린 것들은 모두 쫓겨났다 / 까치와 라일락과 천 개의 구름, 날개 있는 것들은 모두 쫓겨났다 / 어둠에 휩싸인 언덕이 순한 가축처럼 엎드린다 /중 장비가 그 언덕머리를 베어낸다 / 모가지를 단칼에 날리지 않고 천 번을 내리친다 / 천개의 관이 비탈길에 널려 있다.

–박지웅[76] '천개의 빈집'

인부들이 몰려와 땅을 파고 아파트나무를 심은 것은 / 고교입학 때였다 맨 먼저 커다란 파일이 내려가 / 지하 깊은 곳에 뿌리를 박았다 / 모세혈관 같은 철근들이 묶이고 / 제법 단단한 각질이 덧대어지기도 했다 / 시끄러운 소음과 분진을 광합성하여 /자고나면 조금씩 높아지는 아파트, / 그 위를 크레인이 내려다보며 키를 재곤 했다 /건물 층층마다 유리가 끼워지자 가끔씩/저녁 해가 모서리에서 붉게 터졌다 / 어느 날부터는 커다란 광고가 이파리처럼 매달렸다 /분양사무실 칠판은 곧 수확할 열매를 위해 / 씨방의 규모를 세세하게 적어두었다 / 이웃학교 녀석들과 패싸움을 하다가 / 공사 중인 아파트로 도망쳐 숨은 적이 있었다 / 미로 같은 곳을 빠져나와 돌아보니 /아직 꽃피지 않은 아파트는 외로워보였다 / 너무 큰 꽃은 그늘이 깊다고 하는 것 같았다 / 주먹의 상처가 가리워질 무렵 / 아파트 외벽에 밝은 색이 입혀졌다 / 고

74) 전남 여수. 「글러브 중독자」, 「신발론」　75) 윤재철. 「벽오동2」　76) 1951. 부산. 「너의 반은 꽃이다」

층 사다리차가 올라가 해바라기씨 같은 짐들을 / 들여 놓았고, 그 날부터 엘리베이터가 바르게 펌프질되기 시작했다 그런 밤마다 / 밝고 노란 열매들이 매달렸다 단지 둘레는 낙과처럼 기로들이 즐비했다 // 아파트가 해를 가린 즈음부터 나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우리가족은 아파트가 자라지 않는 외곽으로 / 이삿짐트럭을 몰고 꽃피러 떠났다.

–윤성택[77] '아파트나무'

베란다 너머 신축 중인 공사장을 내려다본다. / 지리한 공사도 얼마 후면 끝장을 보게 될 것이다 / 봄이면 싹 내밀던 저곳 수천의 방들은 층층마다 / 사각의 얼굴로 들어설 것이고 새로운 입주자들의 생활은 / 보람으로 분주해질 것이다 그 곳에 별, 바람, 햇볕, 구름 / 비 눈 신문과 광고지와 인터넷과 삐삐와 드라마와 비디오 / 등속이 다녀갈 것이고 크고 작은 인연들이 다녀갈 것이다 / 농작지였던 저곳 아파트가 들어서면 시작은 새롭되 / 끝은 지리멸렬한 삶이 낙서처럼 어지러울 것이다 / 방 은 그렇게 추하게 늙어가면서 무수한 흔적들 / 그 무슨 훈장처럼 주렁주렁 온 몸에 달고 있을 것이다.

–이재무[78] '아파트 신축공사장'

위의 시들은 새로운 아파트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과 이로 인하여 생업터를 떠나 도시 외곽으로 떠나야만 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건축사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물이란 설계될 때 임신하고, 지어질 때 태어나고, 서 있을 때 살아있고, 나이 들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것이 사람과 같은 이치이다. 건축물은 창문이라는 입으로, 공기조화시스템이라는 폐를 통하여 숨을 쉬는 것이다. 건축물은 또 파이프라는 핏줄과 정맥을 통하여 액체를 순환시키고, 전선이라는 신경시스템을 통하여 신체의 모든 부분에 메시지를 보낸다. 건축물이란 피드 백 시스템feed back system이라는 두뇌를 통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조건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파사드facade라는 피부에 의해 보호되고, 이 파사드는 기둥 보 슬래브라는 뼈대에 의지해 지지되고, 이 건축물의 뼈대는 그 기초위에 얹혀 의지하고 있다. 마치 인간의 신체 같아서 대부분의 건축물은 나름대로 자기네의 생을 실컷 즐기고 나서 죽게된다.[79]"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 마포아파트. 연탄으로 난방하였다.(1970년)

한국에 아파트가 처음 건립된 것은 일제치하였으나 본격적인 아파트시대는 1960년대이고, 서울시장은 서민들에게도 편리한 아파트를 제공하고 판잣집으로 뒤덮인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기를 잡기위하여 시민아파트를 의욕적으로 지어 분양하였다, 그러나 졸속으로 지은 시민아파트는 지은 지 3개월 만에 33명이 죽고 38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픔을 시민에게 안겨줬다. 김정환[80]의 시 '와우 아파트' 그대로이다.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 희망이 산산 박살난 듯 / 와우아파트는 무너져 내린 다음에도 / 와르르 소리를 여전히 외치고 / 와르르 소리는 그 밑에 다닥다닥 붙어 있던 / 판잣집들을 아직도 덮치고 있었다 ///"

미루나무 꼭대기에 / 까치부부가 /얼기설기 지은 / 막대기 집 // 별들이 /설계도 없이 /어림짐작으로 지은 / 육각형 집 // 태풍에 떨어졌다는 소식 없다 / 장맛비에 떠내려갔다는 소식 없다 ///[81] 까치는 바람 부는 날에만 집을 짓는다. 가장 악 조건에서 집을 지음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이다. 인간의 안전 불감증과 욕심을 별과 까치를 빗대어 비웃고 있다.

황순원은 빌딩을 보고 **'하모니카를 / 불고 / 싶다'**고 했지만 그보다 더 획일화된 아파트에 60%의 한국인들이 좋든 싫든 살아가고 있다. 시인들이라고 뾰족한 수 없다보니 **"1층 2층 3층 / 맨 꼭대기 20층까지 // 사람들이 / 아침마다 / 서랍장을 열고 나왔다가 //밤이면 / 다시 서랍장 안으로 들어가서 / 차곡차곡 쌓인다 / 층층이 쌓여 잠드는 곳**[82]**"**

"굴뚝같은 디지털 골목, 엘리베이터를 타고" "21층에서 12층에서 내려오는 동안 / 거의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나날이죠 / 굴뚝을 달리는 / 굴뚝 연기 같은 나를 / 굴뚝 연기 같은 그들이 / 알아챌 수 없으니까요 // 그러니 나, 굴뚝으로 오르내리는 다락방의 천사이거나 / B1 B2 B3 지하동굴의 순교사랍니다 / 실체 없는 2106 / 6012 독방 수인(囚人)[83]**"**으로 살고 있다.

이런 아파트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들이기에, 가엽고 안타깝다. 그렇기에 문득 문득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어머니 / 이 높고 높은 아파트 꼭대기에서 / 조심조심 살아가시는 당신을 보면 / 슬픈 생각이 듭니다 /// 무덤처럼 고요한 14층 7호 / 당신은 창을 열고 숨을 쉬어보지만 / 저 낯선 하늘 구름조각 말고는 / 아무도 당신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 어디 나가 걸어보려 해도 / 깨끗한 낭하 아래론 까마득한 낭떠러지 /// 오늘은 이 도시 고층아파트의 꼭대기가 / 당신을 새처럼 가둘 줄이야 어찌 아셨겠습니까 ///

–이시영 '어머니'

77) 1972. 보령.
78) 1958. 부여. 「섣달그믐」
79) Mario Salvadori(1907–97)황주영 역
80) 「백두산으로 날아간 된장잠자리」
81) 정진숙. 「튼튼한 집」–아동문
82) 김은영. 1964. 「아파트1」–아동문
83) 이사라. 1953. 서울. 서울산업대 문창과 교수. 「수직골목」, 「시간이 지나간 자리」, 「생가」–카타콤베 수록. 「히브리인의 마을 앞에서」, 「미학적 슬픔」, 「숲속에 묻는다」

벌써 오래 되었다. / 부엌 옆에 마구간 달린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당도 굴뚝도 없는 아파트에 와 살며 / 나는 그게 자랑인 줄 알았다 // 이제는 그 부드러운 풀이름들도 거반 잊었지만 / 봄 둑길에서 새 풀이 무성할 때면/우리 소가 생각 난다 / 어떤 날 저녁에는 / 꼴 짐 지고 돌아오는 아버지가 늦는다고 / 동네가 떠나갈 듯이 우는 소 울음소리도 들었다 // 이제는 그 소도 아버지도 다 졸업했다고 / 이 도시의 서민이 되어 산 지 오래인데도 / 우리 소가 잘 먹던 풀밭을 만나면 / 한 짐 베어지고 / 그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상국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다'

"너의 좁은 아파트 한 구석 / 시든 꽃잎 하나 헉! 소리를 내며 / 우글쭈글해진 모노륨 마루 위에 눕는 소리 들린다.
—땅에 내려가고 싶다 / 누가 흑흑 흐느끼기 시작한다."

–강은교[84] '꽃잎'

돌아가고 싶은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꽃이나 나무에게도 아파트는 떠나고 싶은 곳이다. 그래서 꽃잎은 떨어져 울고, 나무는 서서히 죽어간다.

결국 고무나무는 죽었다 /// 그 어린 열대 식물은 아파트의 공기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잎이 누렇게 뜨면서 나무는 살결마저 검게 변해갔다 그 나무를 통해 내가 꿈꿀 수 있는 인도차이나는 없었다 먼저 아이들이 못 견뎌했다 새벽이면 잠깐 생기를 찾는 듯했으나 퇴근 무렵이면 어김없이 잎들이 졌다 그 나무가 완전히 죽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

–송재학[85] '별을 찾아 몸을 별로 바꾸는 이야기가 있다'

아래의 시는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야 집에 오는 직장인들, 특히 문만 닫으면 이웃과 단절되는 아파트족에게는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의 경험이라 여길만하다. 마치 전후문학전집에서, 술에 취해 똑 같이 지어진 연립주택의 자기 집 대신 남의 집에 들어가 남의 아내를 품는 실수를 하는 것과 같이.

/// 나 대낮에 꿈길인듯 따라갔네 / 점심시간이 벌써 끝난 것도/사무실로 돌아갈 일도 모두 잊은 채 / 희고 아름다운 그녀의 다리만 쫓아갔네 / 나 대낮에 여우에 홀린 듯이 따라갔네 / 어느 덧 그녀의 흰 다리는 버스를 타고 강을 건너 / 공동묘지 같은 변두리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네 / 나 대낮에 꼬리 감춘 여우가 사는 듯한 / 그녀의 어둑한 아파트 구멍으로 따라 들어갔네 / 그 동네는 바로 내가 사는 동네 / 바로 내가 사는 아파트! / 그녀는 나의 호실 맞은편에 살고 있었고 / 문을 열고 들어서며 경계하듯 나를 쳐다봤다 / 나 대낮에 꿈길인 듯 따라갔네 / 낯선 그녀의 희고 아름다운 다리를

–장정일[86] '아파트 묘지'

아세요 그대 아침 운동 페달 돌리고 있을 때, 아직 곤히 잠든 아래층 여자 아랫배 위를 허덕거리며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 아세요 잘 익은 생선 등으로 내려꽂히는 당신 젓가락, 못다 푼 숙제를 향해 엎드린 아래층 아이 등골을 쑤시고 있다는 사실, /// 아세요 칫솔질하는 당신 면상으로 위층 그 위의 위층으로부터 개숫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 층층이 포개져 헛구역질 아내 위에 그 위층 그 아래층 아내와 남편 사이에 겹겹이 포개져 있다는 사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위층 아래층을 향해 오르가슴은 달리고 있다는 사실, 잘 차려진 그득한 행복 위로 누가 자꾸 가래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

–최영철[87] '아래층 여자 그 아래층 남자'

옆집 남자가 죽었다/벽 하나 사이에 두고 그는 죽어 있고/ 나는 살아 있다 그는 죽어서 1305호 관 속에 누워 있고 / 나는 살아서 1306호 관 속에 누워 있다 // 우리는 거울처럼 마주 보고 / 마주 보고 드러눕고 마주 보고 일어나고 / 마주 보고 맨몸에 물을 끼얹으며 / 마주 보고 확성기를 틀고 마주 보고 팬터마임을 하고 / 마주 보고 대포를 겨눈 채 // 오늘 나는 옆집에 문상가지 않는다 / 그와 나는 호수(號數)가 다르니까 /그는 어젯밤 깊은 밤 죽어서 / 벗은 발을 거울 밖으로 쑤욱 내밀었지만 / 그는 어젯밤 깊은 밤 죽어서 / 병풍 앞 공손히 조아린 자식들/친구들을 보여주면서 웃어 제쳤지만 / 오늘 나는 문상가지 않는다 그 남자의/자식을 봐도 모른 체 한다 우리는 / 서로 호수가 다르다

–김혜순[88] '남과 북'

벽을 마주한 아파트를 휴전선에 대치한 남북에 비유하고 있을 정도로 삭막한 아파트의 현실. 그러나 아파트라고 모두 그런 것만은 아니다. 또한 한국의 아파트는 우리고유의 온돌과 함께 제3세계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으며, 선진국들도 주목할 만큼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질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건축사들에 의해 아파트의 환경은 진화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집에 대한 동시 중 일부는 "정연복의 '집에 관한 시모음'에서, 아파트 시중 7편은 '안락과 죽음의 분열증적 공간, 아파트–기획특집 시인의 집, 시속의 집'–〈최재봉〉을 참조.

84) 1945. 함남 홍원. 「허무집」, 「빈자일기」, 「어느 별에서의 하루」
85) 경북영천. 「얼음시집」, 「살레시오네 집」, 「진흙얼굴」
86) 경북 달성. 「햄버거에 대한 명상」 소설–아담이 눈뜰 때, 내게 거짓말을 해봐,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 문만 닫으면 외부와 단절된 공간 그래서 묘지로
87) 1956. 경남 창녕. 「엉겅퀴」, 「찔러본다」, 「동백꽃 붉고 시린 눈물」
88) 1955. 경북 울진. 「슬픔치약 거울크림」, 「핑크 룸 푸른 얼굴」, 「당신의 첫」

600여 년의 시간을 잇다

Sungnyemun Gate Reopens

– 숭례문 원형복구와 기술재현의 도전

- Restoration of historic gate an opportunity to promote conservation of heritage and nationality

조인숙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 ISCARSAH Expert (ICOMOS Korea)

숭례문 복구 기념행사

국보 제1호 숭례문이 2008년 2월10일 방화 참사 후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오랜 기간의 복구작업을 거쳐 5년여 만에 완공되었다. 2013년 5월 4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숭례문 복구기념 행사는 국민화합의 장(場)으로 꾸며졌으며 과거의 액운은 하늘로 보내고(天道), 복구완료를 하늘에 고한 후(告天), 새로운 시작과 안팎을 연결하는 소통의 공간으로서 문을 여는(開門)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국민들이 직접 쓴 희망엽서로 제작된 "희망보감"을 조선시대 왕실귀중품 운반하던 가마 채여(彩轝)에 싣고 광화문 광장의 상생마당으로 이동, 준공기념 주제인 "치유와 상생"을 의미하는 "비나리" 공연에 참여하였다. 마지막에는 출연진들과 시민들이 한데 어울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4대 아리랑(본조, 정선, 밀양, 진도 아리랑) 합창을 했다.

준공 기념식에는 숭례문 복구에 참여자들, 자원봉사자들, 기부자들, 행사관계자들 외에도 다문화가정, 탈북자 가족,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꿋꿋이 정장해온 어린이 및 청소년들 국민 다수가 참석했다.

준공 기념식 사흘 전에는 종묘 정전에서 숭례문 복구를 국민에게 알리는 제사의식으로 고유제(告由祭)도 지냈다. 조선왕조는 100여 년 전에 이미 사라졌지만 선대왕께 알리던 고유제라는 의식의 재현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뜻 깊은 의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은 AP, 로이터, AFP, 신화, 마이니치 등 외국통신사를 포함한 20여 개의 외신 언론매체들에 의해 "한국의 국보1호, 복원되다"라는 제하로 전세계에 보도되었다. 외신보도는 박 대통령이 기념식사에서 강조한 "민족의 자긍심", "새 희망, 새 시대의 창조"를 숭례문 복구의 의미와 함께 크게 부각시켰으며 정부와 국민들이 공사에 쏟은 노력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한 '복구에 사용된 전통재료와 기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의 강화' 등에도 주목했다.

숭례문의 역사와 개요

조선(1392~1897) 및 대한제국(1897~1910)의 한양도성(漢陽都城)은 지형과 일체화된 18.7km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동서남북 주요부위에 도성출입문이 설치되었다. 숭례문은 한양도성의 남쪽 출입문인 까닭에 남대문이라고도 했으며 명실상부한 한양도성의 정문이었다. 2008년 방화로 훼손되기 이전까지는 한양도성 내 조선시대 목조건물로서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건축물이었다.

숭례문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정치 · 학문 · 도덕의 근본인 성리학(性理學)에서 다섯 가지 덕목(德目)으로 삼던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 · 신(信)의 오상(五常) 중 하나인 "예(禮, Lǐ)"

방화 후 숭례문–문화재청 제공

에 유래한다.

이는 향(向)으로는 남쪽에 해당하고, 천문의 바탕인 오행(五行)으로는 화(火)에 해당한다. 다른 문과는 달리 편액을 세로로 세웠다. 여기에는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그 하나는 풍수(風水)상, 도성 한양의 조산(朝山)인 관악산의 화기로부터 도성을 보호하기 위해 '불은 불로써 다스린다(以火治火)'는 화재방지를 위한 비보풍수의 하나라는 주장과 〈논어〉의 "예를 통해 사람이 일어선다(入於禮)'는 의미에서 나왔다는 견해가 있다.

숭례문의 다양한 기능

숭례문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다. 기록에 의하면 숭례문에서 종을 쳐서 문의 개폐를 알림으로 출입의 통제를 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세종 7년 흥천사(興天寺)의 종을 옮겨와 숭례문에 걸었다는 기록이 있다. 대개 저녁에는 통금을 알리는 종을 28번 쳐서 문을 닫고 새벽에는 33번의 종을 쳐 문의 개방을 알렸다. 이렇듯 도성의 출입기능 외에 기청제(祈晴祭) 및 기우제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국가의 주요 시책을 발표하는 장소로도 활용을 했으며 숭례문 앞에서는 임금이 직접 참관하여 중죄인을 재판하고 참수해서 그 목을 걸어놓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숭례문이 처음 영건된 것은 1398년이며 15세기 중엽 및 후반에 개건되었고 1860년 문루 보수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훗날 1907년 전차 및 자동차 통행을 위해 성곽 일부가 헐려나가면서 도성을 출입하는 정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 1952년에는 한국전쟁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했고, 1961~1963년 전면해체수리과정 중 1962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국보 제1호로 지정되어 국가문화재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숭례문 문루 관람을 허용한 지 채 2년도 안 된 2008년 2월 10일 방화로 인해 문루의 상당부분이 소실되었다. 이후 관계전문가들에 의해 복구작업의 추진이 결정되었고 2012년 3월 8일 목조 문루의 상량식을 할 수 있었으며 예정보다 약 5개월 미뤄진 2013년 4월 30일 공사를 모두 마치고 2013년 5월 4일 숭례문 복구 준공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최첨단 문화재 보존 · 복원기술의 구현

숭례문 복구작업에는 화재수습 4개월, 복구준비 1년 7개월 그리고 복구공사 약 3년, 총 공사기간이 5년 2개월 20일(2008. 2. 10~ 2013. 4. 30) 걸렸고, 소요비용은 약 277억원(미화약 2,450만 달러)에 달하며 인원규모로는 목공사에 3,968명이 참여했고, 기와공사에 284명 등 연인원 35,000명이 동원된 주요 국가사업이었다. 주요자재로 목재가 151,369 재(才)로 26ton(이 중 화를 피한 목재 60,047재를 재사용했고, 기중목이 10,855재이다), 기와 23,369장, 단청에 들어간 천연안료 1,332kg, 화강석 1,228㎥가 소요된 대규모 문화재 복구공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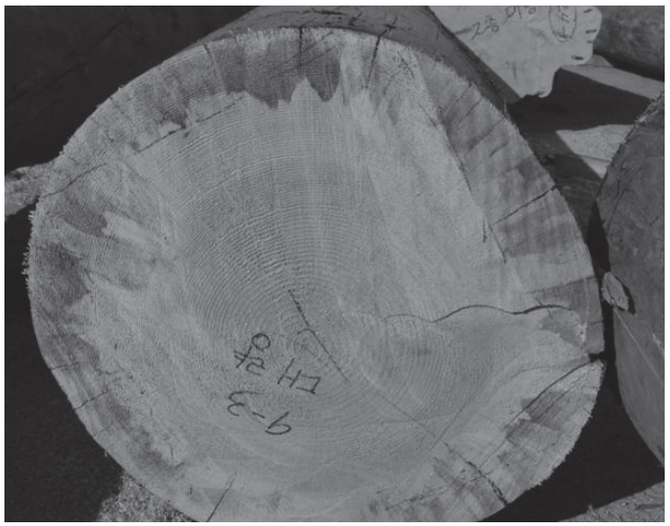
화재수습

우선 현장을 수습해서 부재를 분류 정리했다. 숭례문 수습부재의 반출관리를 위해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시스템을 사용했다. 이 시스템은 부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해부재에 부재명, 탄화정도, 수습위치 등의 정보가 담긴 RFID 태그를 부착해 활용하는 것으로, 핸드헬드 리더기를 통해 태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응급보존 처리와 보양 처리가 끝난 후 부재를 이동하여 경복궁 내에 마련된 부재 보관고에 적치 한 후 복구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복구준비

1 · 2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했다. 발굴조사를 통해 숭례문 앞뒤에 깔았던 박석으로 조선후기 도로를 확인하였고, 조선전기~대한제국시기 건물터와 숭례문 동서 성벽의 기초를 확인하는 성과



목재(수령103년) – 숭례문 복구 소나무(준경묘 2007. 12 벌목 2010. 10 작동)–신응수 대목장 제공

가 있었다.

복구용 목재수급에 만전을 기했다. 조선 태조의 5대조 묘소인 강원도 삼척 준경묘 묘역의 소나무를 벌채하고, 숭례문 복구를 위하여 국민들이 기증한 소나무를 확보하여 헬기를 이용해서 이 목재들을 운반하여 경복궁 목재보관소에 옮겨놓았다.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의사를 밝힌 소나무 166건 중 80건에 대해 현지조사 및 법률검토를 거쳐 선별하여 최종 21그루의 소나무와 원목 338개를 기증받았다.

가설덧집 및 주변정비 공사를 하고 손상부재 조사 및 보존처리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숭례문복구 및 성벽복원 설계를 완료하고 철물조사, 단청조사 및 방재용역을 실시했다. 이러한 복구준비의 모든 과정을 영상기록으로 남기고 고증조사를 실시했다.

복구공사

우선 문루해체 및 정밀 실측조사를 했다. 한편 숭례문 복구현장 남동쪽에 대장간을 조성해서 전통 철물 제작과정 시연을 했다. 석공사는 산에서 캐온 원석을 현장으로 옮겨와 망치나 정 등 전통공구로 치석(治石)을 하고 석공사용 정(釘) 다듬기 시연을 하면서 육축 보수 및 좌우 성벽 복원공사를 진행했다. 목조문루 복구공사에 특기할만한 사항은 도끼, 대패, 끌 등 전통 공구로 목재를 치목(治木)하고 조립한 것이다. 지붕공사는 제와장이 직접 손으로 빚고 전통가마에서 구워낸 전통기와를 번와장이 전통 기구로 지붕에 시공했다. 단청공사는 전통안료와 전통 접착제인 아교를 사용, 습기에 강한 동유를 칠하여 도막 보호했다. 아울러 소방공사, 방재시스템 설치 등을 하고 주변정비를 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장인들 대거 참여

한편 화재당시 긴급 수습된 숭례문 현판은 지덕사(至德祠)에 소장된 탁본자료를 제공받아 서체를 바로잡아 복원 완료했다. 지덕사는 조선 태종의 장남이며 세종의 맏형인 양녕대군 이제(讓寧大君 李禔 1394~1462)와 그 부인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이다.

숭례문 현판은 조선시대 궁궐 현판의 전형적 제작방식을 재현하여 검은색 흑칠을 한 소나무판에 양각으로 글씨를 돋을 새김하고 백분(白粉)을 칠했다.

복구과정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의 총출동이다. 대목장(74호) 기능보유자 신응수를 비롯하여 석장(120호) 기능보유자 이의상 및 이재순, 단청장(48호) 기능보유자 홍창원, 제와장(91호) 기능보유자 한형준, 번와장(121호) 기능보유자 이근복 및 대장장(안성 향토문화재) 기능보유자 신인영과 각 목공사 부분의 부편수 문기현과 신재순을 비롯한 기능별 전수조교들이 혼신을 다해 숭례문 복구에 정성과 최선을 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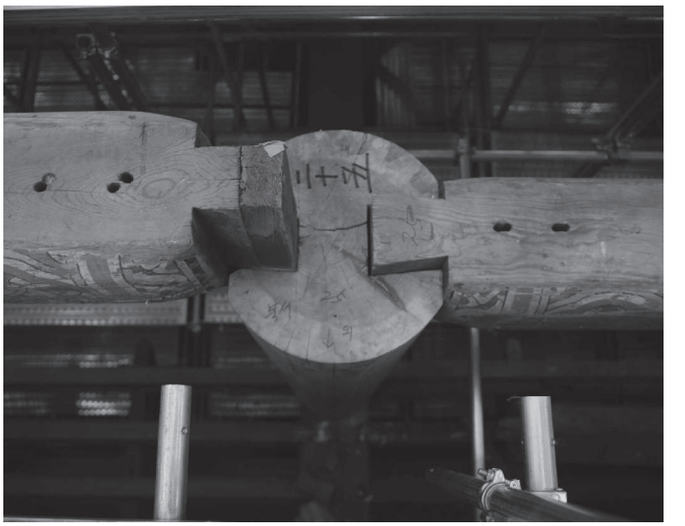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주요 장인들을 모두 인터뷰했으나 여기서 일일이 언급을 하지는 않고 그 중 몇몇 장인들을 별도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숭례문이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택한 재료나 구사한 기법이 있느냐고 물었던 내용을 문화재청 인터뷰에 일부 보충하자면 다음과 같다.

숭례문 복구의 핵심인 1, 2층 문루 목공사의 총책 도편수인 대목장 신응수(1942년생)는 "숭례문 복구에 정성과 최선을 다했다. 화재 참사로 빚어진 숭례문 복구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각자 문화유산에 주인 의식을 갖고 관심과 사랑을 쏟으면 좋겠다."며 "복구에 기존 목재를 최대한 활용하되 보충 목재는 수령이 100년이 넘는 국내산 소나무를 찾아내어 전통방식을 고집하면서 일일이 손으로 자르고 손 대패로 소중히 다듬어서 옛 기법 그대로 목재를 손질해서 사용했다. 우리환경에 좋은 목재는 한국소나무인데 특히 속이 붉고 나이테가 아주 촘촘한 적송(赤松)을 최적재료로 여긴다. 숭례문 고주(高柱)에 사용된 소나무는 수령 300여 년에 이른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부분은 참사의 흔적을 남겨 교육의 기회로 삼고자 그대로 두었다. 내부의 중심기둥인 고주 4기는 상층부에서 기존목재에 새로운 부재를 잇는 동바리 이음의 기법을 활용했다." 고 한다.

그는 특히 1962년 중수 공사 때에도 참여했다. 한국의 도편수의 맥을 잇고 있는 조원재(1903~1972), 이광규(1918~1985) 스승 밑에서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을 했던 그가 이젠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라 도편수로서 숭례문을 복구한 것이다.

석장 이의상(1941년생)은 "전통방식에 따라 대장일을 도맡아 복구 과정에 힘 보탠 것에 보람을 느낀다. 처음 전통방식으로 숭례문을 복구한다고 했을 때 막막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석장들이 쓰는 전통 연장은 70년대 중반에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옛날 연장을 구해와 작업을 했다. 숭례문 복구에 참여한 3년은 석장 인생 55년에 있어서 무척 감회가 깊고 무사고로 공사를 마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회상한다. 함

하층 포 조립–신응수 대목장 제공


하층 기둥(신재) + 창방(구재)–신응수 대목장 제공

께 일한 석장(석조각 분야) 이재순(1955년생)은 "석재는 포천석을 사용했는데 이미 지면 위에 노출된 석재가 아니라 땅 속에서 채석을 한 돌을 사용해서 내구연한이 길다. 그리고 기법 구사 이전에 해체 함으로써 오히려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흙이나 물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물을 쌓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구체적인 예로 주춧돌 하부 장대석 지정(地定)에 육축 가까이는 시옷 자(人字) 형태로 하중을 받도록 보강한 것과 육축이 거의 끝나는 부분의 주초 하부는 물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강돌로 적심적 지정한 것을 발견했다. 또한 커다란 석재의 무게중심에 구멍을 뚫어 철이나 목재로 끼워서 들 수 있게 했던 것을 발견해서 중중구(中重口)라 명했다. 이런 부분들을 복구작업에 재현하는 노력을 했다"고 한다.

첨단 3D 레이저스캔기술 동원

이러한 복구 작업의 전 과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 수행했다. 아울러 이에 적용한 복구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은: 재료는 가능한 원래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육축 및 상부는 화재 전 모습대로 복구하며; 다만 20세기 초에 훼손된 문루 양 옆의 성벽과 그 지반을 최대한 복원을 한다는 것이었다.

복구에는 첨단 3D 레이저스캔 기술이 동원되었는데 마침 2002년도 작업했던 3D 스캔자료가 있어서 수작업 도면과 병행해서 복구에 참고하였다. 이 복구작업 1,916일의 복구기록을 영상의궤(映像儀軌)로 제작하였고 이는 앞으로 국가 기록으로 보관을 하게 된다.

의궤(儀軌)란 조선 왕실에서 국가의 주요 행사가 있을 때 훗날 참고하기 위해 글과 그림으로 남기는 기록문서를 가리킨다. 조선왕실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임시 기구인 도감(都監)을 두어 이를 주관하게 했는데, 행사를 마치면 도감을 해체하고 의궤청(儀軌廳)을 설치하여 의궤의 편찬을 맡아보게 하였다. 조선왕조 의궤는 2007년 6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숭례문 복구과정기록으로 새 시대에 맞는 영상의궤를 제작함으로써 조선의 유산에 현대의 기술을 입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숭례문 복구의 상징적인 의미: 대국민 소통

국보의 일련번호는 지정순서이다. 말하자면 국보 중 가장 먼저 지정된 것이 숭례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숭례문이 국보 제 1호라는 점은 지정의 순서나 문화재보호법 제 23조 국보지정의 기준인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오래된 훌륭한 건축물이라는 내용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로 국민들 마음 속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는 애정이자 염원이다.

그러므로 숭례문의 복구란 일종의 대국민 소통의 일환이며 단순한 건축문화재의 복구 그 이상으로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라는 의미가 있다. 이는 복구 기념식과 함께 일반인에게 개방한 후 1일 20,000여 명의 방문객이 숭례문을 찾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현재 숭례문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또는 7시) 사이 일반 개방을 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엔 하루에 3회 선착순 20명씩 문루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염원에 보답을 하고자 한다.

조선전기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려는 의지

복구 전 · 후의 변화 중 복구 후 크게 변화된 부분은 20세기 초 잘려나간 성벽의 일부 복원과 계단폭 및 지반 높이의 변화다. 서북으로 약 16m, 동남으로 약 53m 정도의 성벽을 육축에 붙여 복원한 점과 동측 계단을 2.9m에서 5m로 수정했고 지반을 조선후기 때로 복원하여 복구 전보 30~50cm 정도 낮추었다. 한편 목조 문루의 상층지붕 추녀마루 양성에 단 차이를 두고 용마루는 1.1m 정도 길게 함으로써 원형을 찾는데 주력했다. 문루의 1층

바닥마루(大廳) 부분은 1960년대 우물마루(井廳) 형태로 수리했던 것을 "조선고적도보" 등의 고증에 따라 다시 장마루로 변경했다. 1층 부분 지붕의 추녀마루의 장식기와인 잡상(雜像)의 수를 8개에서 7개로 바로 잡았다. 지붕에서 주목할 점은 KS 규격 기와를 일일이 손으로 빚어 구운 전통기와로 교체했고 홍예문 천장의 용문양을 조선 전기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복구과정에서 새로 첨가된 것은 침입감지 센서와 화재 속보설비 및 소방서 직통의 핫라인 등 방재시설이다. 화재를 대비한 것으로는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장치, 건물 외부에 소화전 및 각 네 귀퉁이에 방수총을 설치했고 광 센서형 열 감지기 및 적외선 삼파장 불꽃 감지기 등의 화재감지기와 18대의 CCTV를 건물 내 · 외부에 설치하여 초기대처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했으며 옥개부에서는 서까래 개판 위를 방염천으로 덮은 후 적심목을 놓아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10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보완을 했다. 뿐만 아니라 피뢰설비를 해서 천재(天災)에도 대비를 했다. 용마루 양끝 치미부분과 성벽 연결 부분에 피뢰도선을 설치하여 숭례문하부에 매설한 탄소접지봉을 통해 낙뢰가 흘러나가도록 조치했다.

조명시설도 대폭 늘어났다. 숭례문 주변과 성벽아래에 90개에 달하는 경관 조명을 설치했고 하층 문루와 성벽 상부 및 홍예 내부에도 LED 조명 75개를 설치하여 숭례문을 비추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바뀌어 방재관리시설 건축물을 새로 짓고 경비원이 상주하게 되었다. 관리주체는 소재지인 서울시 중구청에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이관되었다.

에필로그

한국의 문화재 보수 역사상 가장 많은 시간과 재화가 투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된 문화재 보수 경험이 총동원된 숭례문 복구는 재난 대비라던가 재료나 기술재현에의 도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후대로 이어져 내려 가면서 문화재 복구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숭례문 복구 과정을 통해 좀 더 욕심을 내고 싶다. 그것은 세계적인 역사도시 서울이라는 총체적인 환경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문화재주변 영향에 대한 검토와 성곽 및 도시계획, 교통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 광범위한 검토가 부족했다. 예를 들면 문화재로부터 앙각을 적용할 때 건물높이의 실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도시차원에서 문화재보호법을 검토했으면 복구기간 중 벌어진 인근 고층 건물의 문화재영향 평가는 달라졌을 것이다. 완료 후 아무리 피하려 해도 용마루에 상투처럼 솟아 있는 건물들이나 야간에 번쩍이는 전광판을 사진에 안 담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전통의 계승과 창작의 경계 및 보여주고 싶은 것과 진정성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다. 조적조 등의 복원이나 수리에 사용하는 기법 중 원래의 부분과 수리된 부분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법이나 수리기록 등을 분명하게 명기하는 기법 등을 도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구 부재를 보여준다고 성벽을 모자이크처럼 처리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만 훗날 재수리 할 경우 좀 구분이 어려울 것이다. 미학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차라리 원래의 육축을 살리고 보충된 성벽이 새로 지은 것이라는 표시를 하는 편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기존의 여장과 복원한 성벽의 만남 부분의 처리도 건축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화재복원에 접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동남으로 성벽을 연장할 때 어차피 조선시대의 지형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현재를 수용하고 미래를 고려하여 지형이 올라가면 성벽은 내려오게 한다던가 함으로써 착시교정도 하고 기왕에 복구한 건물이 잘 보이도록 살렸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는 주인공의 실존적 의미파악이 부족하고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원형유지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전체의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서북쪽 성벽 또한 교육을 위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여장부분이라도 연결하여 교통의 흐름은 수용하되 동남쪽 성벽과 균형을 유지하는 길이 정도라도 복원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한 복구의 시점도 어떤 부분은 현대로 어떤 부분은 조선후기 또는 조선전기를 취했다. 차라리 그것이 언제였건 동시대로 결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의 역사도시 환경 속에 조선후기 건물로 복구를 한 다음, 조선전기의 단청을 입히기로 한 결정은 신중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의 전 과정에 희생적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께 국민은 경의를 표한다.

이 글은 "KOREA June2013 VOL.9 NO.6"의 Cover story "Sungnyemun Gate Reopens (4-13쪽)"의 집필을 위해 작성한 한글원고이며 현황 및 문화재청과 해외문화홍보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崇禮門 – 『숭례문 화재 피해현황 및 수습 보고서』(2008) 등을 참조 했다.

한국건축 태동의 주역 —예산지역 건축사 김세환(Ⅰ)

Architect, Kim, Se-hwan, From Yesan, Who Pioneered Korean Architecture.

해방 이전과 이후 근현대건축과 작품활동(1950~1970)을 중심으로

김득수 |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해방이전

한국의 건축근대사는 일제강점(1910)이후 해당(1945)까지 조선총독부 주관하에 관청, 학교, 은행 등 새로운 건축문화와 기술에 적응하면서 건설 관련 기관과 일본 건축사 그리고, 선교사가 주도하에 르네상스양식, 서구식 건축물들이 점차 확산되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상공학교(1906), 공업전습소(1907) 등이 설립되었음에도, 실제적으로 박길룡, 김윤기, 홍윤식 등과 같은 근대식 건축교육을 받은 한국인 건축사는 1920년 이후가 돼서야 등장하였다. 공업전습소는 목조구법에 관련된 사항만을 가르쳤었다. 따라서, 1915년 이후 고등기술인력의 수요를 느낀 조선총독부는 1916년에 근대식 건축교육을 담당하는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목조보다는 일본인들의 수요가 많은 조적조의 수요가 점차 확대되면서 발생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일본유학파 건축사들이 합류하여 이들이 해방 이후 한국의 건축계에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들로서 활동하였다.

또한, 1970년대까지 전쟁과 재건 등 과도기적인 혼란 속에서 1958년 건설업법 제정, 1965년 건축사제도의 시작으로 건축계 발전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일제에 의한 건축 관련 교육의 시작은 1916년 4월에 개교한 경성공업전문학교로부터이며, 한국인 건축사들이 일제의 관공서 설계를 통해 사회로 진출하는 기반이 되었다.

충남지역 근대건축 발전배경은 경부선(1904년), 호남선(1914년) 시발점 개통과 더불어 1932년 충남도청을 대전으로 이전과 동시에 계획시가지로 변천하나 1932년 전까지 도청소재인 교육행정중심지였던 공주는 인구가 줄면서 퇴락하게 된다. 경부선, 호남선, 경남철도(장항선)의 개통으로 충청남도의 지역발전 변화에 새로운 역할을 했다. 내포지역인 예산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인과 외국인들의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에 천주교의 전파와 그로 인한 포교활동과 상업활동이 확장되면서 근대적 상업도시로 발전한다.

충남 예산은 사설철도 경남철도(장항선, 1922년~1923년) 개통과 동시에 현 지방문화재(제66호)로 지정된 호서은행본점 건물이 나카무라 요시헤이[1]의 설계로 1922년 신축, 준공 이전된다. 호서은행은 지형상 내포의 중심인 예산이란 작은 고을에 1913년 5월 21일 설립되었다는 것은 면소재지인 예산 중소지주들이 민족의 경제자립이란 목적으로 순수한 민족자본에 의하여 일찍이 세워진 지방은행 중 한옥으로 건축되었으며, 현존하는 건축물로 원형은 알 수 있으나 증축으로 많은 변형이 생긴 상태다.

경남철도가 예산 온천리간 대정 11년(1922년) 개통에 이어 호서은행 본점 신축(1922년 준공) 이전으로 활발한 상권 형성과 함께 상당수 일본인들이 유입되면서 일본식 건물이 들어서는 계기

1) 나카무라 요시헤이(中村輿資平) : 동경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辰野葛西설계사무소에 입사. 辰野金吾가 일본 제일은행 경성 총지점(합방후 조선은행)의 설계를 맡아 현장감독 및 상주체류자로 1908년에 내한 준공(1912년)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정착하여 조선에서 최초의 설계사무소를 동년 경성에 개설한다. 천도교중앙교회당 준공 무렵인 1921년 3월 목포항을 출발하여 구미각국을 여행하고 돌아와 경성의 설계사무소를 폐업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1917년에는 만주에 진출하여 대련출장소 개설과 동경으로 돌아가 증촌 공무소를 개설하여 동경과 스즈오카현을 중심으로 공사 활동을 하였다. 한국내 중요작품은 은행건축, 사립학교, 종교계통 건축 등 그는 은행건축으로 그의 건축사 생활이 시작되었으며, 조선은행 건축고문으로 있었기에 당시 한국건축사들이 휘기하여 한국인 사립학교를 다루게 된다.
(윤일중 : 1910~1930년대 2인의 외인건축사에 대하여, 한국근대건축사연구, 1988, 138~142p)

〈1945년 이전에 설립된 근대교육기관〉

교명	소재지	설립년도	비고
상공학교	경성	1899	농상공학교로 개칭(1904) 폐지(1906)
어의도공업전수학교	경성	1906	현 서울산업대
공업전습소	경성	1907	조가학과 설치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	1916	1922년 경성고등공업학교 → 현 서울대학교
전주간이공업학교	전북	1916	1922년 전주공업보습학교 → 현 전주공업고등학교
연희전문학교	경성	1917	현 연세대학교
경성공업학교	경성	1922	공업전습소(전실), 현 서울공업고등학교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충남	1927	현 대전 한밭대학교
송정공업학교	전남	1927	
부산공립실수(實修)학교	부산	1932	1932년 → 부산공립공업학교
소화공업학교	경성	1934	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상공학원	경성	1936	
대동공업전문학교	평양	1938	1944년 평양공업전문학교, 건축과 폐과
동아공과학원	경성	1939	김연준이 설립, 1941년 동아공과학원이 폐지 / 1941년 동아고등공과학원 설립 / 1945년 건국기술학교 전문부 개편, 한양공업고등학교 자리로 이전 / 1946년 소화공과학교를 인수, 건국기술학교 중등부와 병합하여 한양공업학교를 설립 / 1948년 한양공과대학
평양공립공업학교	평양		북쪽에는 平壤公立工業學校와 北靑職業學校 그리고 載寧공업전문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북청직업학교	함북		

출처: 안창모, 한국근대건축교의 시점논쟁, 건축문화(2001, 1): 127–128
양상호, 20세기전반기한국의건축교육에관한실증적고찰, 건축역사연구(1992):142–161
http://webzine.kia.or.kr/kia_image/html/01_01_02_01_03.htm, 한국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가 되었다. 관청건물인 예산군청(1923년), 예산면사무소, 공주지방법원예산출장소, 예산경찰서(1923년), 예산우편소(1924년), 예산농업미곡창고(1925년, 현존), 일본인 영령분양소(현존), 예산곡물검사 예산출장소(1928년), 남성합동전기회사 예산출장소(1929년), 예산세무서, 전주전매국 예산출장소(1930년), 학교, 병원, 전문식당, 상가주택, 마치야 등 일본식 주택이 건설되었다.

해방이후

1945년 해방을 맞으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다. 미군정에 예속된 미공병대에 의한 간이 건축수준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해 건축이 시작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도시와 건축물은 초토화되고 말았다.

호서은행–1922년 설계(나카무라 요시헤이)

당시 건축물 전후 복구사업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다보니, 기술부족과 졸속 건축은 불가피한 일이었고, 1960년대까지 파괴된 건축을 개보수하거나 증축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대학진학을 위해 1958년 처음 서울에 올라와 도착한 서울역 주변과 전차 궤도 건너 맞은편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르네상스식 4, 5층 규모의 건축물이 파괴되어 보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는 도로확장으로 50미터 이상 남산 쪽으로 후퇴한 현대식 건물이 서 있다.

해방이후 국내에서 활동한 건축사들은 대부분 지방보다 서울을 중심으로 건축과 교수들이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형태였다.

충남지방에서 해방이후 건축사의 활동은 주로 대전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소읍 도시인 각 지방 도시는 1, 2명 건축사의 활동에 불과했고, 해방 전후와 6.25전란을 거치면서 건축대서사무소가 등장하였다.

충남에서 초창기 활동한 건축사의 사무소 실태는 다음과 같다.

대전	천안	논산	조치원	아산	예산	부여
7명	3명	1명	1명	1명	2명	1명

〈충남지역의 1세대 건축사와 출신학교〉

출신학교	소재지	비고
경성공립직업학교	최용현(1932) 배한구(1936) 심재석(1946)	
경성공립공업학교	정진경(1946)	광산과
대전공립공업학교	양세환(1940) 송돈영(1941) 김광덕(1936) 박치성(1945)	
소화공과학교	김이동(1936)	
전주공립공업학교	김세환(1937) 김윤환(1937)	
서울공립공업고등학교	권순거(1940)	2년중퇴
일본범정부속공업학교	조정환(1942 범정대학)	한양대 공대(1962)
한양공과대학	허정욱(1948)	
예산공립보통학교	최봉갑(1927)	국졸
조치원공립보통학교	원동규(1935)	국졸

출처: 이상훈, 대전충남지역 1세대 한국인 건축사와 그 활동에 관한 연구, 목원대 석사논문, 2002년, p37

예산지역 건축사 김세환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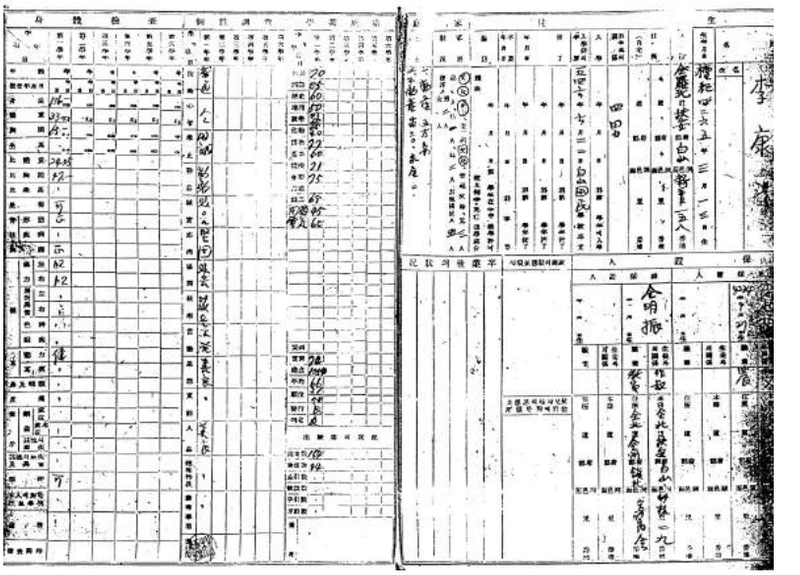
해방 후 충남지역 건축사들은 대부분 관청에 근무했다. 근대도시 발전을 거듭하던 지역과는 달리 읍면 단위의 지역에서는 소규모 개인주택외 별다른 건축 활동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해방이후 예산지방에서 작품 활동(1950~1970)을 한 건축사 김세환(金世煥)은 일제하에 1919년 3월 1일 충남 논산군 성동면 우곤리 296(원적) 태생으로 고향에서 여유있는 지주의 5남 4녀 중 2남으로(동생 김윤환 3남) 태어나 그는 비교적 자유로운 가족 생활 속에서 소년기를 보낸다. 농촌에서 4km 떨어진 강경읍에 있는 강경공립보통학교를 거쳐 1935년 전주공업학교 건축과를 동생 김윤환(金潤煥, 1921년생)[2], 친구 김병일[3]과 함께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축을 수학하였고, 2년만에 졸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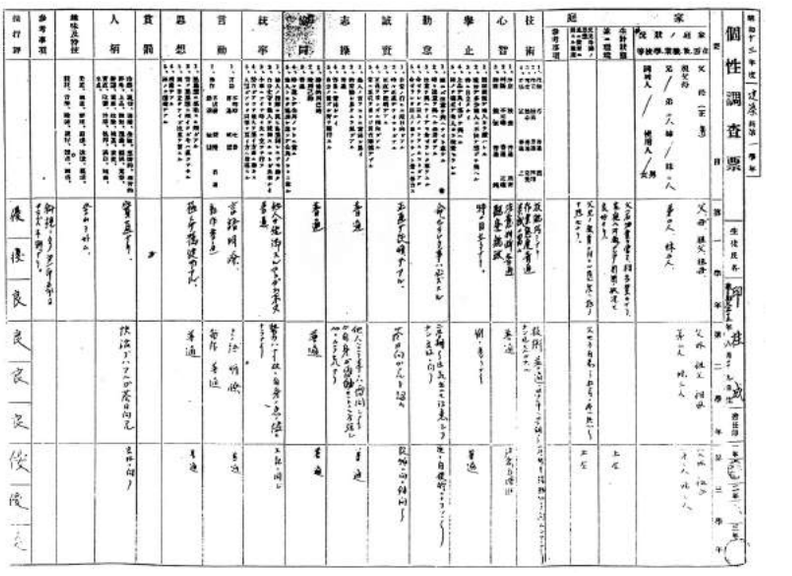
김세환은 경성부 한강로 2가에 있는 간조(間組)[4] 경성지점에 입사하여 1937년 3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영선업무 공사감리 실무에 종사하면서 함경북도 아오지(阿吾地)출장소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던 중 해방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 고향에 내려왔다. 그 후 1946~1947년 충청남도 도청 건축영선 업무기사로 근무한지 일년만에 예산군청 영선기사로 발령받게 되었다. 그후, 1950년 예산 교육구청부서로 옮겨 20여 년간 공직자로서 예산군 읍면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 실습실 강당 등 설계와 현장감독을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퇴임 후 건설부시행 1급 건축사(1-269) 자격을 1965년 6월 15일 취득하였고, 시공기술사(을-665) 자격으로 잠시 건설회사 건축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설계사무소를 자영, 많은 작품을 남겼다.

건축사 김세환은 중고 분리에 의해 예산중학교 본관과 별관(1957년 3월에 준공, 2층 조적조 건물)을 비롯하여 예산중앙초등학교 본관, 예산고등학교 본관, 예산교육청(2층 청사, 벽돌조, 1961년 6월 12일 설계), 예산농업고등학교 본관(1962년 12월 25일 준공된 3층 18교실, 철근콘크리트 건물과 연결교사 18학급), 예당토지개량조합(현 농업기반공사 예산지사, 1962년 설계, 1962년 9월 착공, 1963년 5월 준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예산문화원(1963년 준공, 조적조 2층 슬라브 건물) 등을 설계하였다.

이외에 예산에서 평생을 지내면서 작품으로 1960년대에 준공된 2층 반공회관(철거됨), 향천사 극락전(1976년), 8년 공사 끝에 준공(1962년)된 예산제일감리교회(철거됨), 예산중앙교회, 예산장로교회 교육관, 주교리에 있는 예산중앙극장, 온양에 있는 아산시 교육청 청사, 보령 장애자학교 본관을 직접 계획하고 설계하였다. 이



단기 4265년(1932) 건축과성적표



소화 13년(1939) 건축과 개성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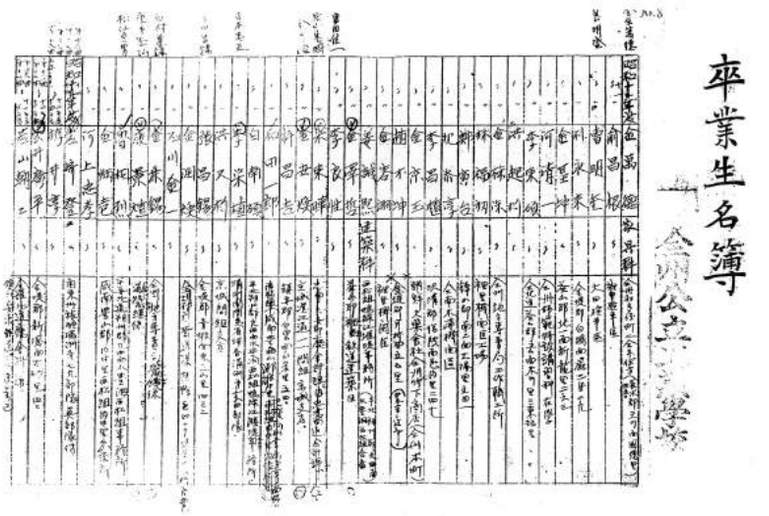
렇듯 건축사 김세환은 예산지역의 근현대기의 정점에서 큰 획을 긋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특히 예산농고, 예산중학교본관, 교육청 문화원, 예당토지개량조합, 반공회관 등의 건축디자인은 한국인 건축사들이 사용했던 일본식 건축양식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이 건물들은 서구 모더니즘적 경향을 반영한 넓은 창과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스크린벽, 수평난간 등을 사용함으로써 수직과 수평라인이 적절하게 조합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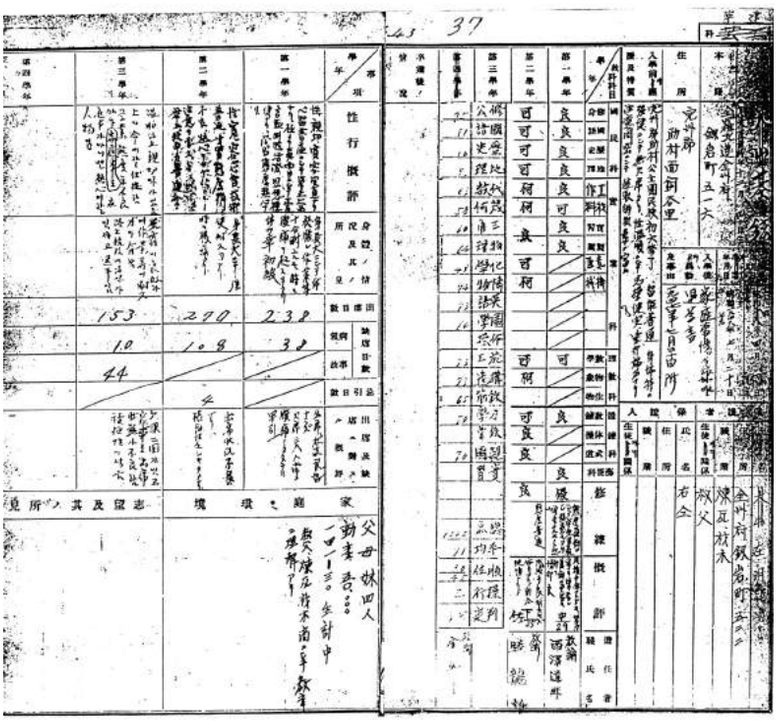
2) 김윤환(金潤煥, 1921년 11월 12일~1992년) : 건축사 김세환씨의 친동생으로 강경공립보통학교, 전주공립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충남제련소 공무과(1938~1941년), 전주부 영선과(1941~1943년), 충남교육 시설계(1946~1970년) 등 건축설계 감독을 역임하였다. 1943~1946년 해방 전후 충남건축 대서사무소를 운영한바 있으며, 1965년 8월 2일자 건설부 시행 1급 건축사(1-503) 건설기술자(건축시공1급 661호)를 취득하고, 김윤환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하여 1970~1992년까지 20여년간 부여에서 작품활동을 하였다. 주요작품에는 부여군청, 부여읍사무소, 면사무소, 농업창고, 농촌지도소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3) 김병일(金炳壹, 1921년 5월 6일) : 전북 김제군 금산면 상봉리 288 태생으로써 부친(김세환), 동생(김윤환)과 함께 한반에서 건축수업을 받은 신분으로 전주공립공업학교 졸업하고 함남 풍산군 내중리 西松組中里 出張所(1938. 3 ~1942. 1) 건축기사, (주)녹소조(1942~1945) 건축기사, 전주시청 건설과(1947~1954) 건축기사, 육군 문관국방대학원 3급 문과(1956~1964) 등에 근무한 기록이 있으며 서울 구로구에 삼산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1966~1998) · 운영하신 분이다(소화 12년(1938)건축과 졸업생 명부).

4) 간조(間組) : 1888년 동경에서 창립되었으며, 경성지점 외에 大阪, 下關, 大連 등 지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공사는 철도국 우회관, 압록강 및 한강교량공사, 경성치과 의학전문학교, 체신국보험과 경성상공 장려관 등이다(건축운동 4, 한국근대건축개론, 128p, 대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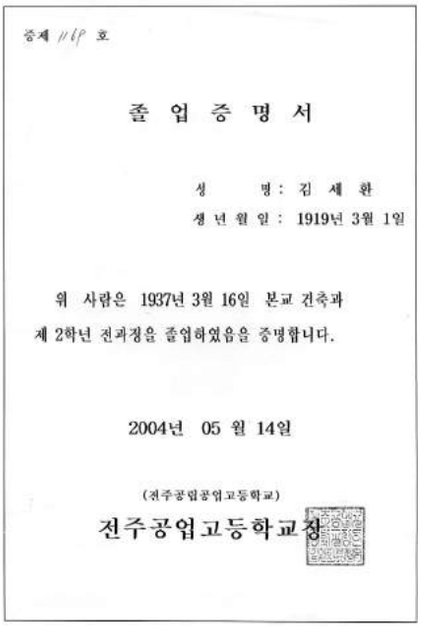


소화 12년(1938) 건축과 졸업생명부(김세환, 김윤환, 김병일)



1943년 교과 및 교육과정

어 안정감이 보이고 있다. 특히, 농지개량조합 건물은 빛을 조정하는 차양과 루버, 기둥의 육중함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둥을 콘크리트 블럭을 사용해서 더욱 수직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가볍게 보이도록 고려하고 있다. 게다가, 나무줄기와 같은 기둥 위에 받쳐져 있는 곡선형 계단실, 건물의 4면기둥형태. 창과 루버의 반복적인 굴곡 등으로 인해 다양한 입면의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농지개량조합 입구 부분에 캐노피의 비대칭형태와 예산문화원 입구에서 3개의 세장형수직창을 세겨놓은 ㄱ자형태의 캐노피는 입구라는 강한 장소성을 하나의 기호적 형태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건축사 김세환의 건축물을 통해서는 1950– 1970년대 한국의 건축은 절대 전근대적이지 않았으며, 지방건축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증제 111P 호

졸 업 증 명 서

성 명 : 김 세 환

생 년 월 일 : 1919년 3월 1일

위 사람은 1937년 3월 16일 본교 건축과
제 2학년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4년 05 월 14일

(전주공립공업고등학교)

전주공업고등학교장

졸업증명서(김세환)

그 시절의 원족(소풍) 1935년

〈충남지역에서 활동한 건축사 김세환/김윤환이 수학했던 전주공업학교 연혁 및 교과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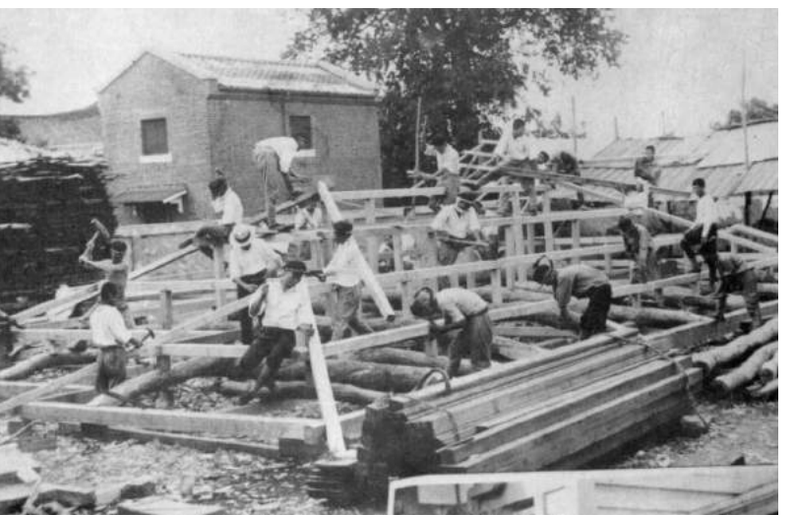
연도	내용	교과과정
1916년 4월 1일	전주군 간이공업학교 개교	지물, 면물, 죽공 3과(1년제)
1918년 4월 1일	죽공과 폐하고 엽공과 신설	지물, 면물, 엽공 3과
1922년 4월 1일	전주공업보습학교로 승격	2년제
1923년 4월 1일	면물, 엽공과 폐하고 가구과 신설	지물, 가구 2과
1930년 4월 1일	지물과 폐하고 건축과 신설	가구, 건축 2과
1936년 4월 1일	엽공과 증설	가구, 건축, 엽공 3과
1938년 3월 24일	전주공립공업전수학교로 승격	3년제
1938년 4월 1일	가구과 폐하고 토목과 증설	건축, 엽공, 토목 3과
1944년 4월 1일	전주공립공업학교로 승격, 엽공과 폐하고 공예과 신설	건축, 토목, 공예 3과(4년제)

출처: 전주공고 80년사

〈1940년대 전주공립공업학교 건축과 교과과목〉

구분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국민과	수학	○	○	수공
	국어	○	○	국어
	역사	○	○	역사
	지리	○	○	지리
실업과	공업개설			대수
	실습제도	○	○	기하
	건축시공			삼각
	건축재료	○	○	물리
	건축구조	○	○	화학
	건축계획			박물
	기계		○	영어
	전기			도학
	영어	○	○	체조
리수과	수학	○	○	시공
	물상	○	○	구조
	생물			철근
체련과	교련	○	○	역학
	체조		○	철골
	무도		○	제도
비고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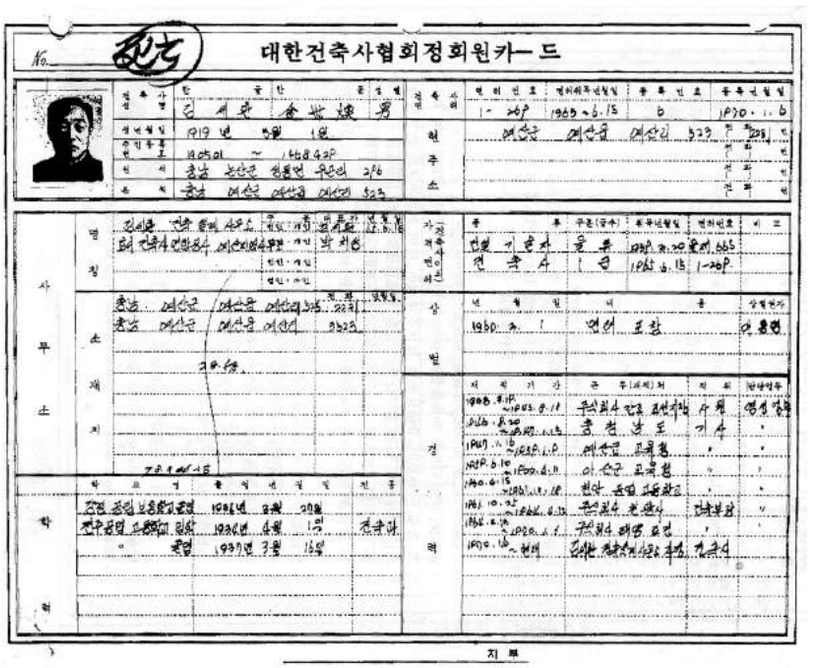
출처: 전주공고 교무과 제공



건축과의 현장실습

그 시대의 작품들(1919~1978/김세환)

해방과 더불어 6 · 25사변에 파괴된 도시는 복구사업으로 건축이 활발하였으나 필자가 살아온 충남 예산은 분지속의 도시로 전쟁 중 파괴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공공건물, 학교건축은 1, 2교실 연결 증축을 계속하는 정도로 자재는 주로 미군정 원조에 목재, 시멘트, 철근 등이며, 시멘트벽돌은 현장에서 제작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을 신축 및 증축에 사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카드 (김세환)

김세환씨의 작품현황

작품	설계자	준공	구조
평촌초등학교	김세환	1952	벽돌
장복초등학교	김세환	1954	벽돌
구만초등학교	김세환	1956	벽돌
조림초등학교	김세환	1956	벽돌
동신초등학교	김세환	1957	벽돌
주교초등학교	김세환	1957	벽돌
예산중학교 본관, 별관	김세환	1957	벽돌, 목조
예산교육청	김세환	1961	벽돌
예산제일감리교회	김세환	1962	석조
예산농업고등학교 본관	김세환	1963	R.C
예산토지개량조합	김세환	1964	R.C
예산문화원	김세환	1964	벽돌
예산중앙교회	김세환	1965	R.C
충남보령복지법인 정심원교육본관	김세환	1967	R.C
예산고등학교	김세환	1969	R.C
농협협동조합	김세환	1970	R.C
예산자유회관(반공회관)	김세환	1970	R.C
아산교육청	김세환	1974	R.C
예산중앙극장	김세환	1974	R.C
향천사 극락전	김세환	1977	R.C

기존 일식건축의 양식이 아닌 모더니즘을 반영 수직 · 수평적 라인은 건물의 안전감과 빛을 조정하는 차양과 루버 등은 다양한 굴곡으로 지루함을 배제시키고 있다. 또한 입구모양은 건축사의 독창성을 1950~60년대 한국건축이 전근대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근 · 현대 건축기술사연표(1/3)

Modern Korean Architectural Technology Chronological Table

한동수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정송이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부 석사과정

건축기술사 연표[1] 작성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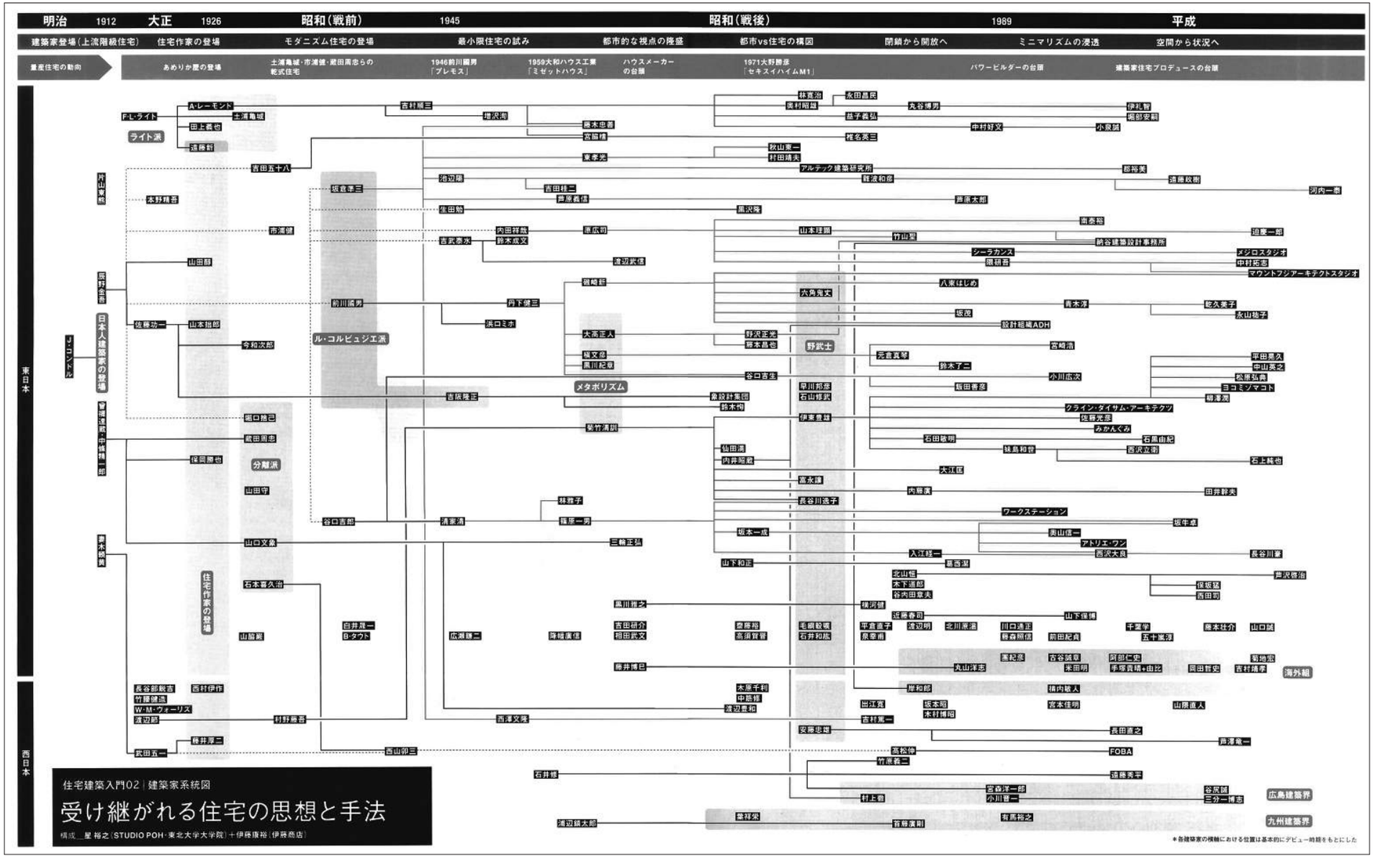
건축은 전체 학문분야는 물론 사회 각층의 산업분야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초자료의 정리가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만 하더라도 기초자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되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기초연구를 위한 사전류의 정리가 대단히 잘 되어 있으며[2] 일본은 어느 하나의 관점 또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연표(주택변천사 연표, 건축이론변천사 연표 등)들이 잘 구비되어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건축분야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표의 작업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1999년 한국건축100년이라는 연표를 제작, 배포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4년 한국건축문화연표를 만들어 웹서비스로 제공한 바 있다.[3] 그러나 이들의 내용은

그림1.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만든 한국건축문화연표(2004년)(상)와 한국건축 100년 연표(1999년)(하)의 시작부분

1) 본 연표는 2012년 (주)삼성물산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기관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2) 사전류가 많이 간행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것을 찾기 위한 사전도 나와 있을 정도이다. 예를 들면 〈중국공구서대사전(中國工具書大辭典)〉[楊牧之 主編, 黑龍江省人民出版社(哈爾濱), 1993年]은 바로 필요한 사전을 찾기 위한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3) 최근 이 서비스는 중단이 된 상태로 접속이 불가능하다.

그림2. 연표의 한 사례로 일본의 주택 사상과 수법 변천도



주로 건축 작품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건축기술을 비롯한 법규 등과 같은 주요한 항목들이 누락되어 있다.

인터넷이 생활화된 오늘날은 가히 정보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이 매일 수없이 양산되고 있고 그 속에서 개인은 양질의 필요한 정보의 취사선택을 위해 갖가지 키워드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는 지식으로 곧바로 전환될 수 없으며 지식 역시 곧바로 지혜로 전환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양이 많다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없으며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가공될 때 비로소 사회 각 분야에서 그 힘과 역량을 발휘하여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표는 바로 지난 100여년에 걸쳐 대량으로 생산된 건축 분야의 정보, 특히 건축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국내 최초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한편, 사무소건축과 아파트 등 공공주거 형식을 포함한 주거건축의 중요한 사례들을 대비시켜 상호 관련성을 추적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건축계는 물론 국가건설기술의 변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연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건축계의 미래전략을 짜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건설업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윤리기준을 재정비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외적인 홍보 자료로 활용하는데 2차적인 목적이 있다.

- 건축기술사적인 측면에서 한국근현대건축기술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재조명
- 분산된 한국근현대건축 기술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를 통한 기초자료의 확보
- 사회의 제반 현상과 건설업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시
- 한국건설업계의 역량과 역할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미래전략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건축기술사 연표 작성의 시공간적 기준

본 연표는 기본적으로 건축 또는 건설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대한제국 시대(1897년)를 기점으로 연구팀의 1차 연구가 마무리 되고 중간보고회를 가졌던 2012년 6월까지로 시간적인 범주를 확정했으며, 공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개념(한반도와 부속도서, 영해와 영공)을 적용하여 이러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생산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만 1945년 해방 이후의 내용은 자료 취득의 문제와 한계로 남한지역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건축기술사 연표의 자료 수집 대상

본 연구팀이 만든 한국근현대건축기술사 연표는 아직 국내에서 시도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표의 작성에 앞서 연구팀은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되었던 1999년 당시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간행한 "한국건축 100년: 건축작품연표 및 한국근현대건축사연표"를 먼저 분석하여 이 가운데 일부 관련 자료를 추출, 검토하였으며, 이후 연표의 구성 체계를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기관과 DB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계통적으로 수집하여 분석, 통합하였다.

- 도서관 및 포털사이트
  -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 규장각 및 장서각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근대자료사이트
  - 신문기사 검색포털사이트 뉴스라이브러리(경향, 동아, 매일경제: 1920년-1999년)
  - 조선일보 기사 검색사이트

- 학회 및 건축 관련 기관
  - 대한건축학회: 한국근현대 건축 관련 학위논문, 학회논문 및 단행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건설교통평가원
  - 기타 건축 관련 연구소
  - 각 주요 건설사의 연보 및 사사(社史)
  - 건설협회에서 간행하는 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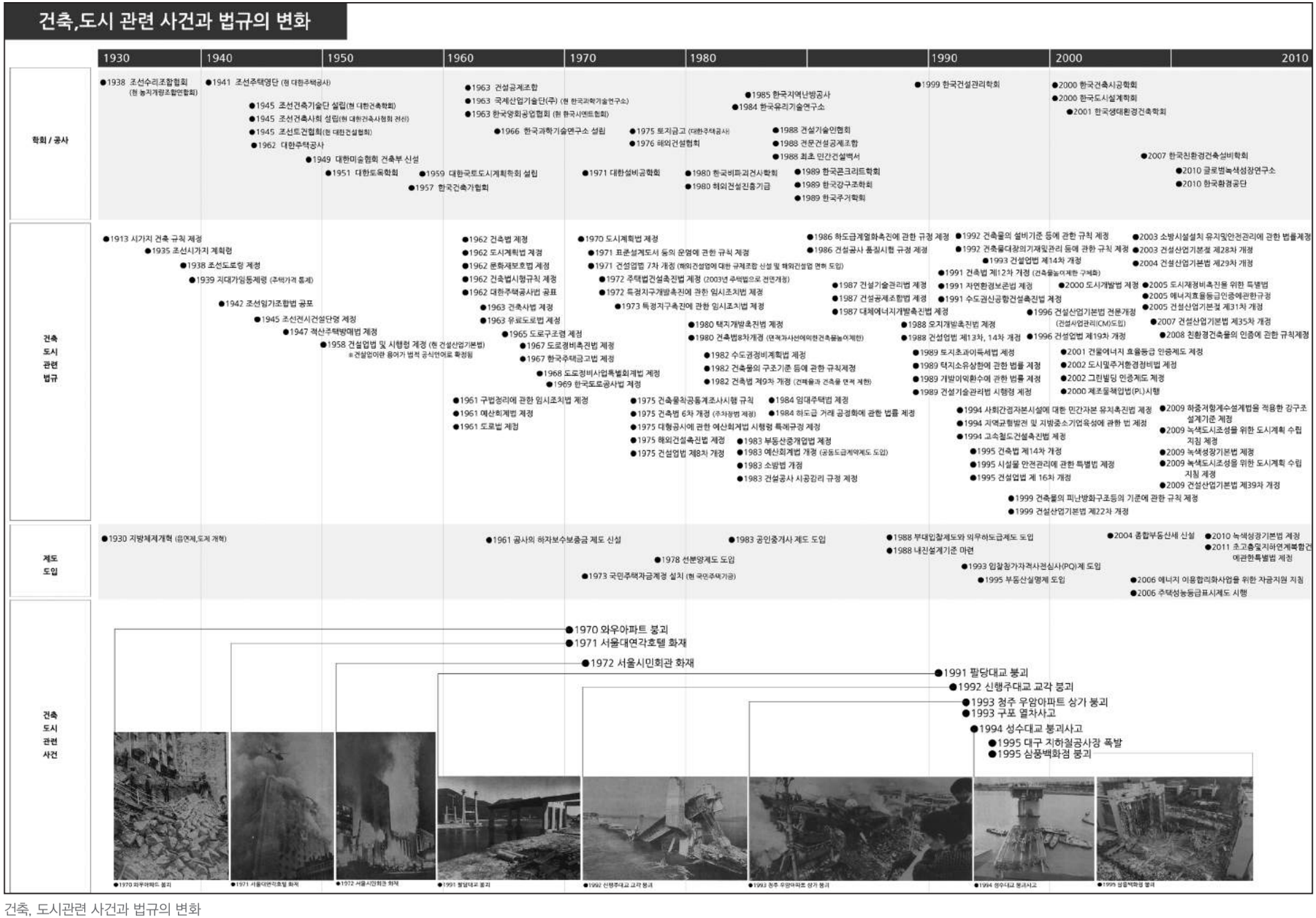
- 전시
  - 엑스포, 경향하우징 페어 등의 관련 자료
  - 건축 관련 각종 자재, 물류 전시와 관련된 자료

- 기타
  - 각종 제품 카탈로그
  - 회사의 홍보용 자료

연표 내용의 주제별 분석

본 연표는 건축과 관련된 기술 및 재료의 개발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 현상 및 법령의 제정과 개편,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실제 건설 사례 등 기술의 측면에서 한국근현대건축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였다.

작성된 연표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디자인 못지않게 법규, 재료, 설비, 구조와 긴밀하



건축, 도시관련 사건과 법규의 변화

게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건축물의 외관이 거의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점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를 전후로 각종 건축자재가 국산화되거나 자체 개발을 통해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각종 건축물의 설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또한 1960년대 후반 시멘트 공장의 준공으로 새마을 운동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970년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국회의사당의 건설과정에서 퍼스 시스템 도입과 각종 해외건축규준의 번역은 건설공정관리의 정착과 건축법의 정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우리가 이 연표에서 주목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외국에서의 건축기술도입이나 자재수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변화가 아니라 순수 국내기술개발과 수입을 대체하는 국산화의 성공 시점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건설입국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하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본 연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출된 자료는 반드시 중복 점검을 통하여 가장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표는 단순히 문자자료만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와 비문자의 적절한 배합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극대화된 연표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비문자자료, 예를 들어 각종 건축물 사례의 일관된 시각적 표현을 유지하기 위한 사진데이터의 수집과 촬영을 부분적으로 진행하였다. 끝으로 연표는 개념적으로 종합연표와 분석연표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종합연표는 조사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분석연표는 종합연표를 바탕으로 일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2차 가공을 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편집을 문제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제별로 분석된 연표만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연표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포함된 자료수집의 구체적인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현상
  - 건축 관련 주요 사건
  - 건축 관련 4년 이상 대학의 설립
  - 건축 관련 주요 단체의 설립
- 제도
  - 건축, 도시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편
  - 소방, 설비, 시공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편
  - 주거 및 공공사무소 건축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편
  - 건축기술 관련 각종 자격 및 시험의 실시
- 건축기술
  - 설비, 재료의 국내 최초 개발, 적용사례
  - 기계 및 도구의 국내 최초 개발, 적용사례
  - 시공기술의 국내 최초 개발, 적용사례
  - 건축기술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최초 개발, 적용사례
- 건설업
  - 건축 관련 주요 건설, 토목회사의 설립
- 건축작품
  - 구조, 재료, 시공, 설비 등의 측면에서 국내 최초로 적용된 주거 및 사무소 건축

건축, 도시 관련 사건과 법규의 변화

해방 이전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건축, 도시 관련 법령들은 해방 이후 1962년에 제정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모태가 되었으며 이후 각종 법령의 개정과 반포는 건축, 도시 관련 사건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토목구조물이나 건축물의 인위적인 훼손 등은 법령의 정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각종 국가 기간시설의 건설이나 해외건설의 붐, 부동산 경기, 도시의 정비 등을 의 일법령의 변화도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나 나이다. 또한 매년 시도별로 거행된 전국체전, 1986년과 1988년에 각각 거행된 아시안게임, 올림픽경기와 같은 대형 체육대회 역시 지자체별로 상응하는 조례 등의 제정에 일정한 공헌을 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친환경, 녹색환경, 지속가능한 건축 등에 관련된 법령의 신설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 공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6월 4일자로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 감리 등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 13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지난 4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하여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건축물로 지정하여 보수하거나 리모델링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건축분야의 정책연구 · 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년 후인 2014년 6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2014.6.5] [법률 제11865호, 2013.6.4, 제정]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 ·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및 발주자는 건축서비스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
3.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 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 ·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그 밖의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7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 · 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 · 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 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 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 · 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 · 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계정보 ·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축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보호
2. 건축서비스에 해당하는 신기술의 보호
3.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건축서비스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 ·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창업지원)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 · 개발 성과의 제공

3.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4.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 기회 제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 · 연구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협조
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③ 시 ·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건축물등의 보수나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 ·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설계의도 구현)

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 · 시공자 ·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

는 아니 되며,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 · 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임직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 · 조사 · 기획
2. 제7조제1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3.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사업
4.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5.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6. 출판 및 홍보 사업
7. 교육 · 연수 사업
8. 국제 교류 · 협력 사업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③ 건축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출연금)

① 정부는 건축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건축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건축진흥원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건축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 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 · 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6장 보칙

제32조(조세의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정보체계의 구축
4.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제34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임원 및 직원
2.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제7장 벌칙

제36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건축주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시공자 또는 감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부과 · 징수한다.

부칙 〈제11865호, 2013.6.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협회소식

제5회 이사회

2013년도 제5회 이사회가 지난 5월 15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표준회칙 개정의 건과 시.도건축사회별 회칙 개정 승인의 건,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표준회칙 개정의 건
  - 표준회칙 개정안 제11조의2(권리의 정지) 제2항중 '해당 회원에게'를 '해당 지역건축사회 및 해당 회원에게' 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시.도건축사회별 회칙 개정 승인의 건
  - 서울건축사회 회칙 개정안 제11조의2(권리의 정지) 제2항중 '해당 회원에게'를 '해당 지역건축사회 및 해당 회원에게'로 수정하고 나머지 시도건축사회별 회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함.

▲기타사항

- 협회 창립 50주년(2015년) 기념행사 및 책자 발간 등을 위하여 준비위원회 설치 등 검토가 필요함.
- 회의문화 개선을 위해 아이패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사양, 금액 등을 조사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감리제도개선 TF

제1회 감리제도개선 TF 회의가 지난 5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감리제도개선TF팀의 임무 및 추진전략의 건
  - 감리제도개선TF팀의 임무 및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 함.

■ 제2회 감리제도개선 TF

제2회 감리제도개선 TF 회의가 지난 5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
  - 설계 · 감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함.

■ 제3회 법제위원회

제3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법제위원회 운영 및 추진 방향의 건
  - 건축사법 개정 추진(대가기준 준수 의무화)
  -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허가로 전환
  - 기타 사안에 따른 안건에 대한 협의
- 제2호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의 건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키로 함.
- 제3호 : 공작물 축조 변경신고 절차 마련 건의의 건
  - 사무처에서 마련한 개정건의안과 별지서식 개정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함.
- 제4호 : 기타의 건
  - 범죄예방 설계 기준 의무화에 대한 건
    - ▷ 범죄예방 설계 기준 의무화에 대한 개정법률안 삭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함.
    - ▷ 사유 : 범죄예방은 건축공간만으로 근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타 법령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건축법에 규정을 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관련 법 시행일에 대한 문제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관련) 시행일과 관련하여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키로 함.

■ 제3회 정책위원회

제3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협회발전워크숍 개최의 건
  – 2013년도 협회발전워크숍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 제2호 : 친환경건축연구원 운영규정 개정의 건
  –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원을 운영할 것인지,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도 좀 더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기타사항
- 워크숍 종료 후 건축사 건축신고 폐지건, 20년전 설계비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기획업무 설계비 받기), 디자인 빌더 도입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

■ 제4회 정책위원회

제4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협회발전워크숍 진행에 관한 건
  – 2013년도 협회발전워크숍 진행과 관련하여 협의함.

■ 제1회 회장직선제연구 TF

제1회 회장직선제연구 TF 회의가 지난 5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장 직선제 시행방안 마련의 건
  – 회장 직선제 시행에 따른 선거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차기회의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제1회 협동조합 TF

제1회 협동조합 TF 회의가 지난 6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TFF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TFT 구성은 3인으로 하고, TFT 내에 협회 자문변호사와 자문회계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운영하기로 함.
    ▷ 다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의는 TFT 위원만으로 개최하고, 자문위원에게는 보고서 초안이 완료되면 자문을 의뢰
  – TFT 운영은 3개월로 하여 9.20일까지 약 1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기로 함.
    ▷ 임경식 위원은 해당 지역의 사례와 자료를 전달하고, 보고서 작성은 강희달 위원장과 길기현 위원이 작성하며, 자료의 편집 등은 사무처에서 지원
- 제2호 : 협동조합 설립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 협회는 협동조합의 법적근거와 절차, 방법, 사업내용 등 표준모델(안)을 마련하여 시.도건축사회가 자체 실정에 맞게 활용토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함.
    ▷ 전국 단위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지역마다 운영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 마련 곤란
    ▷ 협동조합과 협회의 역할 및 기능, 상호 연관관계 등을 심도 있게 고려
  – 사업내용은 우선 감리공영제로 단일화하고, 단계적으로 유지관리, 개발사업 등으로 확대 시행

■ 제3회 국제위원회

제3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국제위원회 업무분장 및 활동계획의 건

구분	담당	
2. 교류협정서(MOU) 관리	이승석, 강승우	심재호
3. 교류국가의 건축실무 자료 수집/분석 (계약서, 설계비 산정, 법규체계 등)	심형섭	김성민

  – 교류협정서 관리는 추가 MOU 및 Working Plan까지 업무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3. 교류국가의 건축실무 자료수집/분석'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회원국가에 공문을 보내 회신을 수집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 제안 (김성민 위원) ARCASIA 및 UIA 실무위원회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구분	담당
국제건축사연맹(UIA)	심재호, 김성민, 제니퍼 리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조인숙, 이근창, 신춘규, 심형섭, 이승석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오동희, 한동수, 강호원
유럽건축사협의회(ACE)	심재호, 강승우, 이윤석
교류단체 컨벤션 참가	김지덕, 이근창

  – AA誌 작품 선정 (담당위원) : 오동희, 강호원, 제니퍼 리, 이승석
  – 학생 공모전 작품 선정 (담당위원) : 강승우, 심형섭
    ▷ ARCASIA 및 학생 공모전 작품 선정 담당위원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조인숙 위원장)
    ▷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ARCASIA 기구 자체

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심재호 담당임원)

• 제2호 : 2013년도 미국건축사협회(AIA) 컨벤션 참가의 건
– 대표단 구성에 관해 회장과 논의 후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참가하기로 협의 함
• 제3호 : 제34차 이사회 및 제17차 아카시아 포럼 참가의 건
– 대표단 구성 : 4인 참석 계획(회장, 임원 1인, 국제위원회 위원)
– 교육위원회 및 친환경위원회는 본협회 내 기존위원회에서 대표단 구성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독려하기로 함(참가 시 해당위원회 예산 사용)
– 대표단 참석 일정은 효율적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논의 필요
– 우수한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참가경비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제4호 : 제16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의 건
– 7인 참석 계획(회장, 부회장/임원, 국제위원회 위원). 주제 확정 후, 회장과 협의하여 대표단을 확정하기로 함.
– 본협회 등록원 및 국토부 대표단은 자체 예산으로 참가 예정

▲기타사항
•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 컨벤션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 컨벤션과의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참석이 어려움

■ 제2회 인사위원회

제2회 인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상근임직원 연봉책정(안) 협의 건
– 2013년도 직원 연봉은 다음의 원칙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협의함.
▷ 예산절감을 위해 '12년도 연봉대비 4.6% 수준으로 책정
▷ 상하위 직급간 연봉격차 해소를 위해 상박하후로 차등(1~3급 2%내외, 4~5급 6%내외) 조정
▷ 신규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대졸초임연봉을 2,000만원으로 상향
▷ 각 직급별 최저연봉 기준을 마련하여 조정

■ 제1회 주거복지위원회

제1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 주거복지위원회 운영방안 논의의 건
– 주거복지위원회의 운영방안에 관하여 취약계층(아동,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방향으로 협의하였으며 사업의 주제는 각 위원들이 자료를 조사 차기회의에서 논의하여 선정키로 함
▷ 여성직장인들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사업 : 최운영 위원
▷ 농어촌지역 방치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사업 : 이경희 위원
▷ 마을 공동시설 지원사업(마을회관, 공부방 등) : 임형남 위원
▷ 그 외 각 지역건축사들의 재능기부 사례 및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건축사로서의 '재능기부 + 사회적기여 + 위상강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함.
– 세미나 추진계획
– 회의개최 계획(안)
• 제2호 :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지원의 건
– 대한여성건축사회가 주최하는 전국의 여성건축사들을 위한 행사로서 지난해 지원된 바와 같이 200만원 후원토록 협의함

■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대관비기준 검토요청 건
–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GAEC) 강좌개설에 대한 대관사용료는 기본 관리비만 50,000원을 납부 받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건축사실무교육에 대한 대관사용료 건은 자료보완 후 차기에 논의키로 함.
• 제2호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원 주차장 이용 검토요청 건
– 회원의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주차스티커발부는 할 수 없고, 다만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 이사회도장은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기타사항
• 회관 1층 로비 남자화장실 보수공사는 안상준 위원이 전담하여 도면 및 시공을 검토하여 위원장과 협의 후 협회 절차에 따라 추진키로 한다.

■ 제1회 문화홍보위원회

제1회 문화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문화홍보위원회 운영방안 협의의 건
– 본 협회 대변인을 두어 대국민 · 대언론 홍보를 펼치기로 함.
• 제2호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의 건
– TF구성, 환경영화제 업무제휴, 홈페이지 리뉴얼, 외부협찬 활성화를 시행하기로 함.
• 제3호 : 홍보동영상 제작 협의의 건
– 일반 국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재미있고,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으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하고, 영화제 ·

각종 행사 사용 등으로 활용도를 높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제2회 사업위원회

제2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한국건축산업대전 운영규정 및 자재추천 업무규정 개정의 건
  - 금일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차기회의 시 한 번 더 검토키로 함.
- 제2호 : 전시회 주제 선정 및 동시행사관련 업무분장의 건
  - 주제는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GREEN FESTIVAL'로 논의하였으며, 위원별 업무분장은 차기회의까지 조율하여 구성결과를 보고토록 함.

▲기타

- 제1호 : 한국건축산업대전 워크숍 개최의 건
  - 금년도 사업위원회의 장기적인 전시회 발전계획 및 現전담위원이 제8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이후는 활동종료를 희망하는 등,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협의코자 6월 14일(금)~15일(토), 1박2일 워크숍을 진행코자 함.
- 제2호 : 2013 KAFF CATALOG 제작의 건
  - 현재 제작준비중인 자료에 과년도 추천업체와 금년도 카달로그에 2012~13년도 내용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토록 반영되었으면 함.

■ 제1회 대한민국 신인건축사대상 운영위원회

제1회 대한민국 신인건축사대상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 대한민국 신진건축사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이재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함.
- 제2호 : 2013 대한민국 신진건축사상 추진계획의 건
  - 비슷한 종류의 상과 차별화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음회의에서 심사기준을 확정할 때 반영하기로 함.
- 제3호 : 2013 제1회 대한민국 신진건축사상 공모의 건
  - 명칭을 "대한민국 신인건축사대상"으로 변경하기로 함.
  - 공모대상을 "자격취득 후 10년"으로 변경하기로 함.
  - 우수상 수상자 수를 "10점 이내"로 변경하기로 함.
- 제4호 : 대한민국 신진건축사상 운영규칙 제정의 건
  - 제3호에서 변경한 내용으로 규칙을 수정하여 제정하기로 함.

■ 제1회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제1회 미래인재육성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운영의 건
  - 건축계 전반에 대한 젊은 건축사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협회에 건의하기로 함.
  - 젊은 건축사들에 국한되는 내용만을 다루지는 않기로 함.
  - 시장현황에 대해 폭넓은 시야로 접근, 건축사만의 시각이 아닌 대중들의 보편적인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대중이 동의할 수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함.
- 제2호 : 기타사항
  - 매월 한가지 주제를 선정, 다음 회의에서 집중논의하기로 함.
  - 월간 발생되는 협회현안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기로 함.
  - 다음 회의 주제를 선정하고 논의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선정된 주제에 대한 조사와 발표방식은 위원들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함.
  - 주제에 대한 검토내용은 협회내 비치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각종 출판물, SNS 등을 통해 대중 혹은 건축관계인들의 의견 등을 확인하기로 함.
  - 기타 회의안건은 위원 각자가 제안하기로 함.

■ 제3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3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자기계발 인정의 건
  - 건축사실무교육 자기계발 인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승인 함.
    1) 기관 및 개인 신청 사항은 원안대로 승인, 다만 서울건축사회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은 2시간만 인정
    2) 건설VE전문가교육, 친환경건축설계양성과정, 한옥설계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각각 5시간으로 인정
- 제2호 : 5.30일 이후 미등록 건축사의 실무교육 인정의 건
  - '12~'13년도 실무교육 이수 사항도 12시간 실무교육에 포함 인정
- 제3호 : 기타사항
  - '2013년도 건축사실무교육 변경' 승인 건은 보고한 것으로 추인함. 차후부터는 위원회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바람.

■ 제3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제3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사항 심의결과

• 제1호 : 실무교육 교육계획서 보완제출의 건
– 시 · 도건축사회 인력풀 구성 취합 완료되면 다음 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제2호 정부위탁과정 교육의 실무교육 인정의 건
– 2014년도에는 정부위탁교육과정 실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함. 국토부등 협의하였을 시 회의록을 위원회 회의시 참고자료로 줄 수 있도록 함.
• 제4호 자기계발 인정심사 및 자료 등록업무 관리의 건
– 자기계발 인정심사는 각 시 · 도건축사회에 주관하는 자기계발 교육은 건축사교육원에서 관리하고, 기타 단체 및 개인은 등록원에 직접 신청 하기로 하되, 상 · 하반기 심사를 기본원칙 함.
정익현 위원의 기타의견으로 가급적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심의하자는 의견도 있음.

▲협의사항

• 제1호 : 실무교육 인정시간 관리의 건
– 시행 초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 · 도건축사회 실무교육 인정시간(윤리1시간, 전문교육4시간, 자기계발3시간)을 기존대로 제한하기로 하되, 본협회 교육을 포함하여 1년 최대 20시간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연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제한된 시간을 풀기로 함.
▷ 유지관리 · 점검 교육은 각 시 · 도건축사회에서 교육을 시행하기로 함.
• 제2호 : 사이버강좌 제작의 건
– 사이버강좌 개설은 회의자료에 있는 강사진을 대상으로 제작을 하기로 하되 향후에는 제작 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제3호 : 실무교육 교육비 재검토의 건
– 사이버 교육비에 관해서는 제작비 및 관리비, 임대료,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수익분석을 다시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함.
▷ 본협회는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을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함.
• 제4호 : 건축사실무교육 운영규정(안) 제정의 건
– 규정(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후 정책위원회 및 이사회를 통해 상정하기로 함
– 빠른 시일 내에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심의하기로 함.
• 제5호 : 건축사교육원 개선방안 협의
– 향후 건축사들이 설계감리업무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5월31일 이후 발생되는 미등록 건축사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제4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제4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사항 심의결과

• 제1호 : 제2호 사이버강좌 제작의 건
– 다음 사이버강좌 제작부터는 위원회에서 대략적인 교안을 사전 검토한 후 제작하기로 함.
• 제2호 : 교육원 강사인력풀 취합현황 보고
– 강사인력풀 관련 사항은 미제출 시 · 도건축사회가 있으므로 취합 완료 후 다음 교육원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실무교육 운영규정(안) 제정의 건
– 문장의 적합성 및 협회정관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책위원회를 거친 후 6월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운영규정(안) [별첨3] 사이버강좌 강사 계약서에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사본은 삭제하기로 함.
– 각 위원들의 의견을 1주일 이내에 e-mail로 받아 최종안을 만들기로 함.
• 제2호 : 사이버강의 교육수강료 검토의 건
– 5개년 수익분석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각표 자문위원, 전영철 위원이 자료 준비하기로 함.
– 6월 20일 교육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후 사이버강좌는 7월초에 오픈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사무소 출장교육의 건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요청한 출장교육은 2013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계획에 공고된 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하되 본협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시간(윤리1시간, 전문4시간)범위 내에서 시행하기로 함.(필요시 서울건축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연계하여 시행)
– 개설 가능한 강좌를 안내하고 강의실 상황 및 관리 등을 체크
– 교육수강료 할인은 불가하며, 교육장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다른 사무실 건축사도 수강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함.
• 제4호 : 교육수강료 정산방법 변경의 건
– 원안대로 향후 정산방법은 각 시 · 도건축사회별 개별정산 방법으로 변경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결제 수수료는 각 시 · 도건축사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함.
– 프로그램 개발 관련 비용은 3백만 원 이하로 재협의 하여 시행하도록 함.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 일간 '건설경제신문'과 인터뷰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 8층 집무실에서 건설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회장은 설계대가 정상화, 민간발주사업 대가기준 마련, 발주제도 개선, 건축사 해외진출 국가적 지원책마련 등 임기동안 추진할 중점사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정을 계기로 건축이 건설산업에 종속돼 왔던 인식을 깰 수 있게 됐으며, 건축사가 창조경제의 핵심인 건축의 전 영역을 총괄할 수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 언론이 건축계 현안, 협회사업에 관심을 갖고 취재, 보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 한국건설VE연구원과 업무협력 합의 체결

우리협회는 지난 4월 8일 오전 11시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한국건설VE연구원에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 우리협회는 김영수 회장과 권병조 상근부회장, 김의중 부회장, 김득수 감사, 이남식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연구원에서는 전재열 원장, 손명섭 부회장, 이인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양 단체는 '건축분야 및 건설VE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건축사에 대한 VE자격을 취득을 위한 교육사업 외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완주소방서에 화재감지기 기증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김남중)는 지난 5월 28일 상대적 화재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250만원 상당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완주소방서에 기증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 내장형으로 별도의 전기배선 공사 없이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설치비용이 저렴해 낙후된 주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영등포지역건축사회, 영등포구청과 건축상담봉사 '나눔마루' 운영 협약

영등포지역건축사회는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무료상담을 제공하기로 하고 지난 5월 21일 영등포구청과 협약서 체결했다. 이날 상담건축사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구민의 건축분야 복지증진 및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나눔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나눔마루' 운영에 들어갔다.

건축 민원 무료상담은 영등포구청 2층 건축과에서 평일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2교대로 진행된다.

홍성지역건축사회, 홍성군과 MOU 체결

홍성지역건축사회(회장 오석구)는 지난 6월 5일 홍성군청에서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건축물의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소규모 신축이 급증한 홍성지역은 건축사 없이 부실 시공된 건축물로 분쟁이 빈번했다. 이에 홍성지역건축사회는 소규모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무보수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기술지원 서비스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 자문도 병행해 지역 내 건축물 품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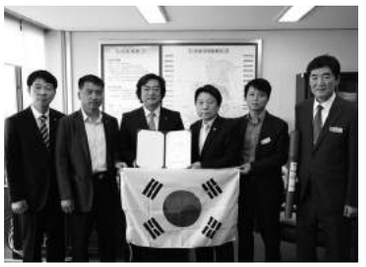
부여지역건축사협회, 부여군과 MOU 체결

부여지역건축사회(회장 서효석)는 지난 6월 5일 부여군청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건축사의 전문기술을 무료로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부여지역건축사회는 감리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무료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부여군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양측은 이번 사업이 소규모 건축물의 디자인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위법 및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지역건축사회, 창원시에 태극기 기증



창원시에서는 단독주택 사용승인(준공)을 완료하면 태극기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이는 창원지역건축사회(회장 김태호)가 지난 5월 30일 창원시에 태극기 500매를 기증했고, 하반기에 500매를 추가 기증하기로 약속 하면서부터다.

전달된 태극기는 창원시청에서 5개 구청으로 각 100매씩 분배해 사용승인 건축물 건축주에게 무상으로 배포된다. 창원지역건축사회와 시는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도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작품 공모

우리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후원하는 '2013년도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의 작품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은 건축설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창의력 및 기술력 등 설계자의 역량을 중시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특히 경력부족 등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인건축사의 설계능력을 선보일 기회와, 우수한 신인건축사 발굴·육성의 기반을 제공하여 건축설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제전이다.

응모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만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후 완공된 작품이 1개 이상인 자이며, 공동설계는 참여가 불가하다.

응모방법은 오는 7월 1일(월)부터 12일(금)까지 인터넷(kraa.kira.or.kr)으로 참가신청 후, 7월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작품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젊고 유능한 신인건축사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시상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상(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및 관련 협회장상(우수상 10점 이내)을 시상한다.

· 문의 : 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 및 대한건축사협회 신인건축사대상 담당자(3415-6851, 6852)

건축계소식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안전행정부에서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국가상징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 이미지 개선을 통한 코리아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공식 국가상징을 활용한 디자인'과 '비공식 국가상징 활용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일반인이나 대학생, 고등학생 및 기업 혹은 협회 등 단체 출품도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12일부터 13일 2일간이며, 11월 26일 개막식과 함께 시상식도 진행된다. 수상작은 일반부, 대학생부, 고등학생부 각각 국무총리상, 안전행정부장관상, 문화체육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조달청장상, 특허청장상 등 14부분에 걸쳐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 문의 : 한국디자인지식포럼 사무국, 031-623-2062 / defo409@gmail.com

마포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국제 학생 ·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가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을 위해 국제 학생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포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국제 학생 · 전문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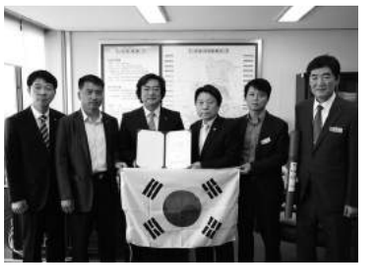
마포 석유비축기지는 1976년에 성산동 매봉산 자락에 저장탱크 5기를 묻어 석유를 관리해 온 서울의 유일한 비축기지로서, 이 자리에 월드컵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해 안전상의 이유로 2000년 11월 비축석유를 용인으로 이전, 약 13년간 이 기지를 폐쇄해 왔다.

응모자격은 '다양한 분야의 전세계 학생 및 전문가'이며, 공모내용은 '화석에너지시대의 상징인 석유탱크를 활용하여, 환경 · 생태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구현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구상'이다. 제출마감은 오는 8월 23일까지이며, 수상작은 9월 중에 발표된다.

금상 1점에게는 상장 및 부상 미화 1만 달러, 은상 2점은 상장 및 부상 각각 5,000달러, 동상 3점은 상장 및 부상 각각 3,000달러, 특선 5점에게는 상장 및 부상 각각 1,000달러, 입선 10여 작품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홈페이지(http://www.seoul.go.kr/pdc_idea)를 참고하면 된다.

창원지역건축사회, 창원시에 태극기 기증



창원시에서는 단독주택 사용승인(준공)을 완료하면 태극기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이는 창원지역건축사회(회장 김태호)가 지난 5월 30일 창원시에 태극기 500매를 기증했고, 하반기에 500매를 추가 기증하기로 약속 하면서부터다.

전달된 태극기는 창원시청에서 5개 구청으로 각 100매씩 분배해 사용승인 건축물 건축주에게 무상으로 배포된다. 창원지역건축사회와 시는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도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작품 공모

우리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후원하는 '2013년도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의 작품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은 건축설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창의력 및 기술력 등 설계자의 역량을 중시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특히 경력부족 등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인건축사의 설계능력을 선보일 기회와, 우수한 신인건축사 발굴·육성의 기반을 제공하여 건축설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제전이다.

응모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만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후 완공된 작품이 1개 이상인 자이며, 공동설계는 참여가 불가하다.

응모방법은 오는 7월 1일(월)부터 12일(금)까지 인터넷(kraa.kira.or.kr)으로 참가신청 후, 7월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작품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젊고 유능한 신인건축사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시상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상(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및 관련 협회장상(우수상 10점 이내)을 시상한다.

· 문의 : 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 및 대한건축사협회 신인건축사대상 담당자(3415-6851, 6852)

건축계소식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안전행정부에서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국가상징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 이미지 개선을 통한 코리아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공식 국가상징을 활용한 디자인'과 '비공식 국가상징 활용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일반인이나 대학생, 고등학생 및 기업 혹은 협회 등 단체 출품도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12일부터 13일 2일간이며, 11월 26일 개막식과 함께 시상식도 진행된다. 수상작은 일반부, 대학생부, 고등학생부 각각 국무총리상, 안전행정부장관상, 문화체육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조달청장상, 특허청장상 등 14부분에 걸쳐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 문의 : 한국디자인지식포럼 사무국, 031-623-2062 / defo409@gmail.com

마포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국제 학생 ·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가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을 위해 국제 학생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포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국제 학생 · 전문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마포 석유비축기지는 1976년에 성산동 매봉산 자락에 저장탱크 5기를 묻어 석유를 관리해 온 서울의 유일한 비축기지로서, 이 자리에 월드컵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해 안전상의 이유로 2000년 11월 비축석유를 용인으로 이전, 약 13년간 이 기지를 폐쇄해 왔다.

응모자격은 '다양한 분야의 전세계 학생 및 전문가'이며, 공모내용은 '화석에너지시대의 상징인 석유탱크를 활용하여, 환경 · 생태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구현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구상'이다. 제출마감은 오는 8월 23일까지이며, 수상작은 9월 중에 발표된다.

금상 1점에게는 상장 및 부상 미화 1만 달러, 은상 2점은 상장 및 부상 각각 5,000달러, 동상 3점은 상장 및 부상 각각 3,000달러, 특선 5점에게는 상장 및 부상 각각 1,000달러, 입선 10여 작품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홈페이지(http://www.seoul.go.kr/pdc_idea)를 참고하면 된다.

2013/14년도 UIA 건축과 어린이 골든 큐브 어워드 개최

UIA 건축과 어린이 연구 프로그램에서 '2013/14년도 UIA 건축과 어린이 골든 큐브 어워드'를 개최한다.

이번 어워드는 건축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한 사람들과 기관을 선정하는 행사이며, 본 어워드에 출품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이나 상품에 대해서 기술하면 된다. 대상으로 하는 타깃 미취학 아동부터 만 18세까지이며, 공모분야는 다음 네 가지이다.

1. 학교(지도자, 교사, 학생)
2. 기관(기구, 기관, 박물관 등)
3. 인쇄매체(책, 매거진, 비시청각 교육자료)
4. 시청각매체(영화, 시청각교육자료, 웹사이트 등)

이 어워드는 참가자로 하여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조하도록 하는 경연대회가 아니다. 이는 '11. 9월부터 제출마감일인 '14. 3. 15까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된 활동, 상품 및 행사를 출품하면 된다.

심사는 2 단계로 구성된다.(국가적 차원 및 국제적 차원) 첫 번째 심사는 UIA협회 회원이 심사하는 것으로 각 부문당 한 작품씩 선발해 출품한다. 두 번째 심사는 국제 심사위원단이 국가 대표작품으로 출품된 후보에 한하여 심사를 하고 부문당 한 작품씩을 선정한다.

어워드에서 수상작으로 뽑히거나 첫 번째 심사를 통과하여 출품된 작품들은 '14. 8월에 개최되는 2014 UIA 더반 세계건축대회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제21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기능향상을 위해 「제21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오는 9월 13일 충북 음성군 소재의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개최한다.

경기직종은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건축배관, 전기용접, 도장, 측량, 조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실내건축제도, 방수 14직종이며 방수 15명을 제외한 13직종은 20명씩이다.

참가신청은 소정의 신청서에 소속회사의 대표자 확인을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소속된 관련단체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연합회는 이에 대하여 대회참가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대회개최 20일전(8.23 예정)까지 추천단체를 통하여 참가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은 오는 6월 10일(월)부터 7월 31일(수)까지이다.

1위(각 종목별 1인 이내)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 및 국토교통부장관상, 2위(각 종목별 2인 이내)는 상금 100만원 및 회장상, 3위(각 종목별 3인 이내)는 상금 70만원 및 회장상을 수여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추천(종목별 1위 입상자) 및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상(종목별 2,3위 입상자) 수상자에게는 기능사 자격시험을 면제하고, 산업연수, 장려금 지급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혹은 대한건축사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신간안내

건축이 말을 걸다_오래된 건물에 귀 기울이기

데이비드 리틀필드, 사스키아 루이스 저–온영태, 신춘규, 이준석 역 | 343쪽 | 대가북스

만약 건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들을 만한 가치는 있을까?

이 책은 사람들을 위해, 사람에 의해 지어진 건물들이 하는 말, 즉 그 속에 자리 잡은 꿈과 상상 그리고 과거 이야깃거리에 주목한다. 건축이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가치에 관한 건축학개론의 첫 장과는 달리, 그릇으로서의 효용을 다한 건물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저자는 '건축물이 말을 한다' 는 발칙한 발상을 통해 오래된 건물은 자신의 몸에 남겨진 여러 흔적이나 상처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스무 개 남짓한 오래된 건물들을 통하여 우리 삶의 가치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건축을 이 시대의 인문학으로 다루고 있으며 고갈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다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소재로 다루고 있다. 특히 기존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오던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주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책이다.

건축디테일방법론

애드워드 앨런, 패트릭 랜드 저 · 안준석 역 | 228쪽 | 기문당

이 책은 예일대학과 MIT에서 30년 이상 건축 실무관련 강의 중인 애드워드 앨런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교수인 패트릭 랜드의 공저를 안준석 교수가 번역한 책으로서 현장과 괴리된 우리나라의 건축 디자인 교육의 보정에 도움이 될 디테일 패턴들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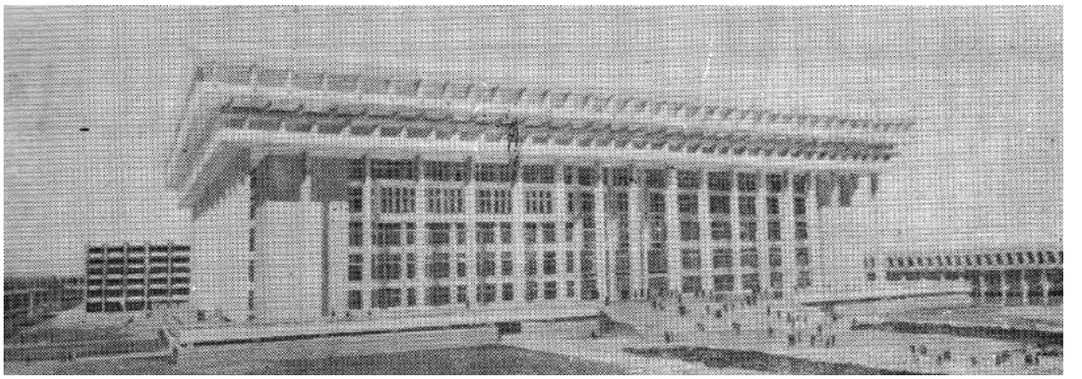
건축의 기능성, 시공성, 심미성을 주제로 분류한 94개의 디테일 패턴들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디테일 사례들을 제시하기보다는 패턴과 유사한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어진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력과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 배양에 도움을 준다.

중복 현상공모를 통해 탄생한 ‘국회의사당 계획안’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해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란 명언을 남긴 1969년은 ‘국회의사당 설계’가 국내 건축계의 큰 이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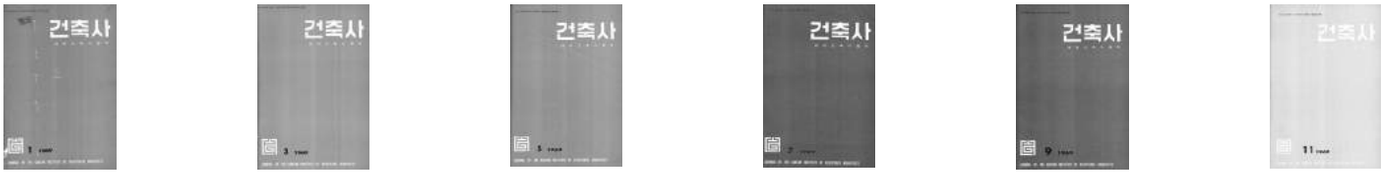
그 이슈메이커는 국회사무처였다. 국회사무처는 1968년 5월 중순 김중업, 이해성, 김정수, 김수근, 이광노, 강명구 6명의 건축사를 지명하고 이들에게 설계를 의뢰한다. 그런데 보름 후 5월 31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복 설계공모를 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다. 상황이 이러자 이들 6명 중 김수근, 강명구, 이해성은 포기를 하고 김중업, 이광노, 김정수는 출품한다. 두 번째 설계공모에서는 우수작 안영배 · 조창한의 안, 준우수작 박선길 · 김광욱의 안, 가작 장응재 외 3인 합작을 선정한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설계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붙이기까지 한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저작권을 불인한 것은 여러 작품의 장점을 취합해 보다 좋은 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함이고, 이중모집을 한 것은 중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장점이 취해지는 작가에게는 공동저작권을 인정, 설계에도 참여할 방침”이



국회의사당 초기 계획안

국회의사당 최종안(조감도)



란 입장을 밝힌다.

최종적으로 설계 계획은 김정수, 김중업, 안영배가, 구조는 이승우를 중심으로 하는 기획단이 구성되어 추진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기획단은 설계변경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당초 설계안은 평지붕이었는데, 그 지붕위에 '돔 구조물'을 올리라는 것이다. 국회의사당건립위원회에서 지름 50m, 높이 20m의 돔 구조물을 옥상에 설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건립위원회측은 "설계가 권위가 없다는 여론이 있어 국회총무단과 관계장관 회의를 거치고, 국회의장단, 건축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설계에 참여한 건축인들은 한 사람도 돔을 올리자는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당시 설계에 참여했던 안영배 교수는 1969년 건축사 7월호에 "설계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공공건축물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건축사가 소신껏 일해 나갈 수 있게끔, 여건이 좋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건축사의 위치를 기술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보다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설계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 간섭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1969년 건축사지 5호에 표2에 게재된 전면광고 '동도카페트'

1969년 건축사 3월호 7면에 게재된 신임 건설부장 · 차관 소개 코너. 당시 건설부장관에 이한림씨, 건설부차관에 김원기씨를 발령했다

44년 전 건의된 '건축청 신설'

김재철 회장

얼마 전 국토교통부 내에 건축정책관이 신설됐다. 이는 국토부 내에서 '건축'의 격이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의 격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은 이미 44년 전에 있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대 김재철 회장(사진)은 1969년 건축사 5월호에 '건축청 신설 건의서'를 통해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 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자립경제 성장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에 비례한 주택의 부족과 문화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제반 건축물의 수요에 따라 정부 기구 내에 단일 건축행정기구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게재했다. 건축청의 필요성에 대해 "건설 부문에서 막중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건축업무가 건설부, 총무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통일된 건축정책, 계획 및 예산정책에 허다한 차질을 초래케 하고 있음을 통찰하고, 차제에 건축기구의 일원화로 건축행정을 강력히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건축청을 신설하여 주기를 거듭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는 어떠한 회신을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건축청은 건설부 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김은미_Kim, Eunmee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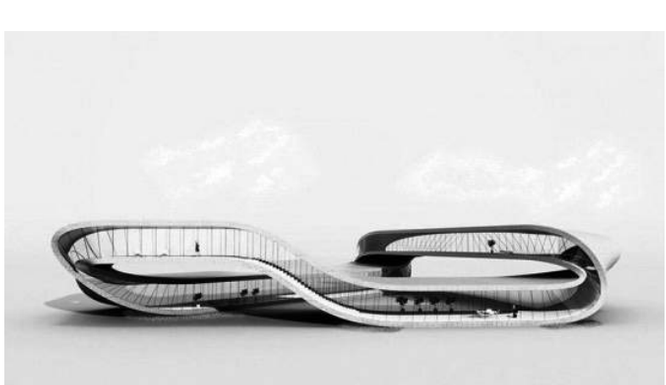
규모가 커지는 3D 프린팅

3-D PRINTING GOES B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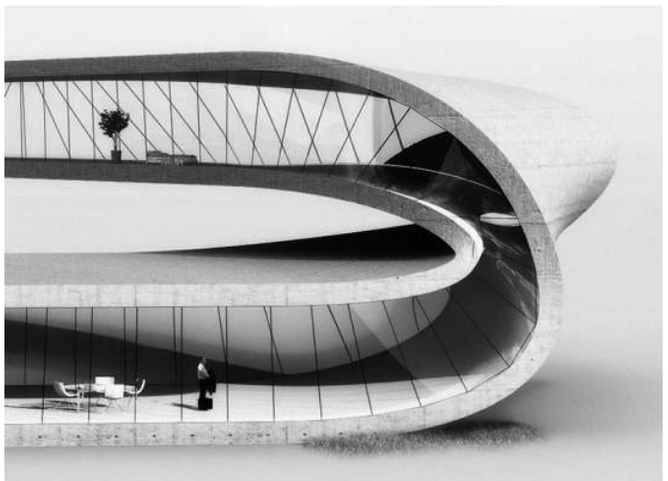
THE PROPOSED 3-D PRINTED LANDSCAPE HOUSE. (COURTESY UNIVERSE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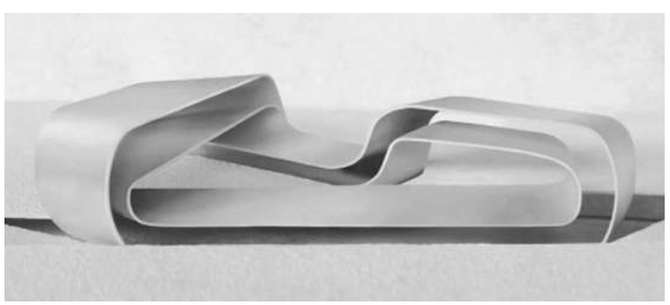
3D 프린터가 발명되고 삼십년이 넘는 지금 그 기술은 확실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 네덜란드 건축사 Janjaap Ruijssenaars는 이 기술로 면연면적 3,200평이 넘는 거대한 뭬비우스 스트립 하우스를 프린트하여 구축하는 것을 제시, 적용하는 극한의 시도를 하고 있다. Ruijssenaars가 "The Landscape House" 라 명명한 이 프로젝트는 "끝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포개어 지는 하나의 면"을 이용하여 숫자 8 모양을 차용한 자연스러운 형태를 지닌 2개 층 높이의 건축물이다. 이것은 어려움 없이 건물이 자연세계에 꼭 들어맞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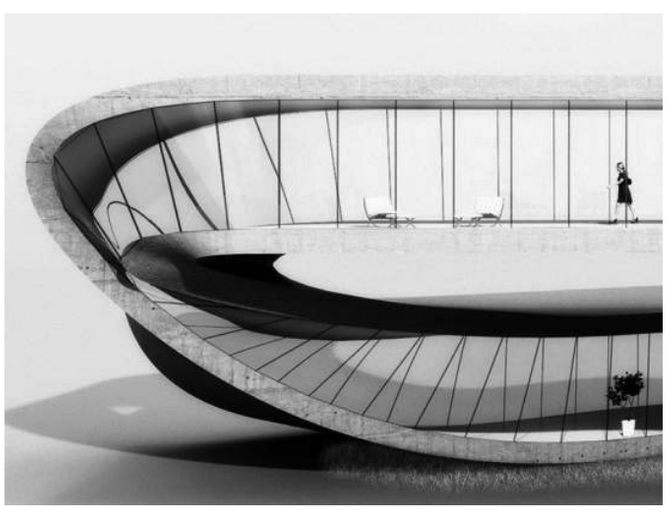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를 위해 Ruijssenaars는 새로운 로보틱 빌딩 구축 시스템을 만드는 D-Shape의 발명자이자 디자이너인 Rinus Rowlofs and Enrico Dini를 불러 들여 3D 프린터가 이 Landscape House를 위해 프린트 하도록 하였다. 그 방식은 아래에서 위 까지 약 6×9 미터가 넘는 단면이 각 레이어에 맞춰 프린트 될 것이다. 각 각의 얇은 레이어는 모래와 접착제재가 합쳐져 모든 것을 붙잡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 건물이 모두 프린트 되고 나서 그 표면 위에 붙여 있는 여분의 모래를 불어 없애고 나면 그 최종 구조물에 대리석과 같은 표면을 드러내게 된다. 이 정도의 규모에 3D 프린팅을 사용해보는 시도가 없었으므로, 화이버 글라스와 콘크리트 보강물이 확실한 구조 강도를 위해 더해 질 것이다. Landscape House 프로젝트를 위해 조성된 이 팀은 2014년 말까지 60~70억 예산 안에서 프로젝트를 완성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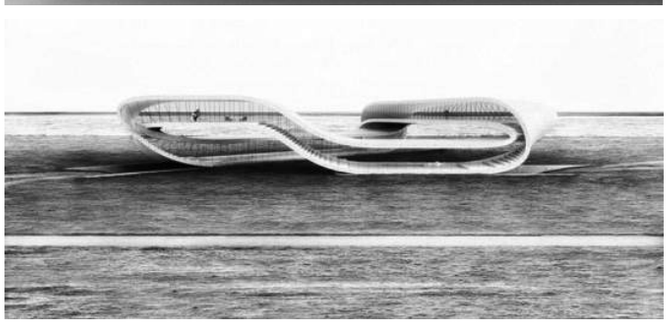


THE PROPOSED 3-D PRINTED LANDSCAPE HOUSE. (COURTESY UNIVERSE ARCHITECTURE)









THE PROPOSED 3-D PRINTED LANDSCAPE HOUSE. (COURTESY UNIVERSE ARCHITECTURE)

RENDERING OF DUS' PROPOSED 3D PRINTED HOUSE IN AMSTERDAM. (COURTESY DUS)

또 다른 네덜란드 건축사 그룹 DUS Public Architecture는 주력 관심 분야를 비누 방울에서 폴리프로필렌으로 바꾸면서 영국의 SoftKill Design과 네덜란드의 Janjaap Ruijssenaars와 함께 첫 번째 3D 프린트 하우스 완공을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 DUS의 목표는 암스테르담의 운하변에 4층짜리 집 시리즈를 설계, KamerMaker에 의해 현장에서 프린트하여 지어 올려 질 예정이다. KamerMaker는 세로로 긴 운송 컨테이너 안에 설치한 그 들의 용도에 맞게 설계한 3D 프린터를 사용할 것이다. 일을 시작할 앞으로 6달 동안 DUS는 전체 건축물 입면과 첫 번째 방의 시공을 끝낼 계획이다. DUS는 "welcoming room" 이라 명명 지어진 부분을 완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 3년 동안 완공 시킬 것을 기대했다.

DUS는 또한 이 하우스를 최신 프린팅 기술과 관련 연구를 위한 연구실로 사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DUS의 대표는 이 건축현장을 이벤트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히며, 그들은 현장에 프린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거기서 프린트 되는 모든 것은 전시될 예정이라며, 이것은 아주 훌륭한 시도와 배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각 하우스 내의 각 방들은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위해 사용될 것이고, 예를 들어 감자 전분 가루를 건축물 재료로 사용하는 것부터 프라스틱 재사용, 공병 사용, 재가공 등의 아이디어들도 다루어 질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삼년 동안 DUS가 현장에 머물 것이지만, 그들이 거기를 떠나야 하는 시점이 오면 그 구축물들을 모두 잘게 쪼개어 다른 곳에 새로이 지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최신의 3D 프린팅 기술은 이미 건축의 분야에 까지 적용 가능성을 보여 주며 시도의 단계에 까지 도달해 있다.

윗 글의 일부는 Architet's Newspaper의 기사를 일부 발췌, 인용 하였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3년 5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057	6,057	88	176	7	21	6,152	6,254	1,743	1,743	228	456	66	198	23	92	15	102	2,075	2,591	8,227	8,845
서울	942	942	22	44	0	0	964	986	886	886	121	242	44	132	11	44	10	60	1,072	1,364	2,036	2,350
부산	523	523	11	22	2	6	536	551	120	120	24	48	2	6	1	4	2	14	149	192	685	743
대구	516	516	20	40	4	12	540	568	71	71	14	28	4	12	2	8	0	0	91	119	631	687
인천	290	290	3	6	0	0	293	296	64	64	7	14	1	3	0	0	0	0	72	81	365	377
광주	219	219	0	0	0	0	219	219	42	42	6	12	3	9	2	8	0	0	53	71	272	290
대전	268	268	5	10	0	0	273	278	32	32	7	14	4	12	1	4	1	13	45	75	318	353
울산	191	191	5	10	0	0	196	201	21	21	2	4	1	3	0	0	0	0	24	28	220	229
경기	848	848	2	4	0	0	850	852	249	249	17	34	4	12	2	8	0	0	272	303	1,122	1,155
강원	203	203	2	4	0	0	205	207	23	23	2	4	0	0	1	4	0	0	26	31	231	238
충북	229	229	2	4	0	0	231	233	40	40	3	6	2	6	2	8	1	9	48	69	279	302
충남	293	293	1	2	0	0	294	295	54	54	8	16	0	0	1	4	0	0	63	74	357	369
전북	272	272	4	8	0	0	276	280	25	25	4	8	1	3	0	0	0	0	30	36	306	316
전남	223	223	0	0	0	0	223	223	24	24	2	4	0	0	0	0	1	6	27	34	250	257
경북	412	412	4	8	1	3	417	423	39	39	5	10	0	0	0	0	0	0	44	49	461	472
경남	490	490	6	12	0	0	496	502	37	37	4	8	0	0	0	0	0	0	41	45	537	547
제주	138	138	1	2	0	0	139	140	16	16	2	4	0	0	0	0	0	0	18	20	157	160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8,845	100%
서울	2,350	27%
부산	743	8.4%
대구	687	7.7%
인천	377	4.2%
광주	290	3.3%
대전	353	4.0%
울산	229	2.6%
경기	1,155	13%
강원	238	2.7%
충북	302	3.4%
충남	369	4.2%
전북	316	3.6%
전남	257	2.9%
경북	472	5.3%
경남	547	6.2%
제주	160	1.8%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3년 6월중순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1,673	1,726
서울	3,761	1,203
부산	749	55
대구	669	30
인천	375	5
광주	302	35
대전	363	31
울산	229	19
경기	1,408	62
강원	258	8
충북	319	51
충남	369	45
전북	326	18
전남	274	42
경북	483	17
경남	578	21
제주	164	21
기타	1046	63
비고	회원 : 8,629 / 비회원 : 3,044	대학 : 1,570 / 대학원 : 156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254	2,591	8,845	
비율	70.71%	29.29%	100%	
사무소수	6,152	2,075	8,227	
비율	74.78%	25.22%	100%	